금주의 법구–〈잡보장경〉
재물을 오물처럼 볼 줄 알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삶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80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2월 21일) 2022년 3월 23일 수요일



나누면 따뜻합니다 서울 조계사는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조계사 봉축표어 '나누면 따뜻해요'를 표현하는 도량등을 걸었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부처님께서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보시가 참된 공덕이라고 하셨다.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자"고 당부했다. **사진제공=조계사**

세계명상마을 개원…간화선사 한자리에

기공 4년만에 4월 20일 개원
제4회 간화선 대법회 봉행도

개원 맞춰 수행 공간 일반 개방
4월 26일까지 7일간 법석 열려
성파·지유·대원 스님 등 설법
4월 20일부터 선스테이도 진행


성파 스님 · 지유 스님 · 대원 스님 · 무여 스님 · 혜국 스님 · 의정 스님 · 영진 스님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4월 20일, 한국불교 간화선 중흥의 중심지로 거듭날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개원을 기념한 간화선 대법회가 열린다.

간화선대법회 준비위원회(위원장 각산)는 3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봉암사 천년의 산문을 열다' 기자회견을 열고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개원 및 제4회 간화선 대법회를 4월 20일 개최한다고 공개했다.

봉암사 세계명상마을은 2015년 간화선 중흥을 위해 전국선원수좌회 고우, 적명, 의정 스님 등 한국대표 선승들이 봉암사에 모여 결의한 국제선센터다.

봉암사 산자락 8만 4000여㎡ 부지에 간화선과 초기불교 통합수행이 가능한 공간으로 일반인과 스님들의 수행처가 있는 국민 수행공간으로 구성됐다. 2018년 7월 기공식을 필두로 건축연면적 5700여㎡로 명상관 2동, 명상숙소, 웰컴센터 등이 건립됐다. 이어 무문관 꾸띠, 숲속 꾸띠, 숲속 명상길 등이 추가로 불사 중에 있다.

이번 개원을 기념한 제4회 간화선 대법회에는 4월 20일 첫날 대원 스님(학림사 조실), 21일 영진 스님(백담사 유나), 22일 지유 스님(범어사 방장), 23일 의정 스님(한국참선지도자협회 이사장), 24일 무여 스님(축서사 조실), 25일 혜국 스님(석종사 조실), 26일 성파 스님(15대 조계종 종정예하)이 법사로 나선다. 특히 조계종 신임 종정 성파 대종사를 비롯해 세수 90세 평생 처음으로 산문 밖에서 설법 하는 지유 스님의 법석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참석자들은 법회 후 오후 1시 봉암사 참배, 선스테이 등을 할 수 있다. 7일 수행이 진행되는 선스테이에는 준비위원장 각산 스님(봉암사 세계명상마을 선원장), 의정 스님(상원사 용문선원장), 지범 스님(보문사 선원장), 월암 스님(한산사 선원장), 선법 스님(정진선원장), 진범 스님(봉암사 주지)이 직접 선수행을 지도한다.

대법회는 1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명상마을 명상홀 앞마당에서 진행되며, 선스테이는 100명 정원으로 4월 20일부터 진행된다.

간화선 대법회는 2년마다 열리는 조계종 선풍진작 법회로 2013년 조계사 1회 대법회에 이어 2016년 동화사 2회 대법회, 2018년 흥법사 3회 대법회 등이 열린 바 있다.

각산 스님은 "2년마다 열리던 간화선 대법회를 코로나로 인하여 4년 만에 열게 됐다. 이번 대법회는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개원을 겸해 열리는 대법석"이라며 "봉암사 세계명상마을이 공식적으로 일반대중에 처음 열리는 자리이기에 한국불교 7대선사를 모셨다"고 소개했다.

각산 스님은 "한국불교의 나아갈 방향은 수행"이라며 "불교 수행 진작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에게 최상의 힐링법이자 심신처방법이 될 간화선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배석한 정과 스님은 "자유롭고 싶다는 현대인들의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라며 "오롯이 의심을 가지면 어느새 번뇌망상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봉암사 수좌 혜우 스님은 "간화선은 대중화라는 중요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일반인들이 쉽게 선수행을 접하고,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효과가 담보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이번 법회와 세계명상마을 개원 의미를 부여했다.

중앙승가대 교수 금강 스님은 "한국사회에서 한국의 간화선은 그동안 대중들과 호흡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시대가 혼란스러울 때, 사람들의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수행자들이 나서야 한다"며 "천년 넘게 내려온 간화선의 종장들이 대중 앞에 나서는 매우 드문 자리"라고 평가했다.

한편, 참가신청은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홈페이지(www.wmv.or.kr)에서 가능하다. 간화선대법회 및 선스테이 외 세계명상마을 상설프로그램은 9일 화두명상, 평일 선스테이, 주말3일 집중수행 등이 있다. 문의 1577-4327

조계종 제15대 종정 예하
중봉성파 대종사 추대법회

3월 30일 서울 조계사서 봉행 예정



임기 3월 26일부터 시작
종단 안팎 주요인사 참석

조계종 제15대 종정으로 추대된 중봉 성파 대종사〈사진〉의 추대법회가 3월 30일 오후 2시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된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이 공개한 '제15대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 추대법회' 일정에 따르면 추대법회는 육법공양과 명종, 삼귀의, 반야심경, 봉행사, 행장 소개, 추대사, 축사, 헌사, 등단봉청, 불자봉정, 법장봉정, 예경삼배, 청법게, 입정, 법어, 하단, 축가,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된다.

조계종 종정은 법의 상징이자 종단 최고권위를 갖는 어른인 만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원로의장 세민 스님,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을 비롯한 종단 주요 소임자 스님들과 교구본사 주지, 종회의원 등 종단 중진 스님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또 이웃종교 및 이웃종단 대표자와 해외 각국의 주한대사, 정관계 인사 등이 직접 혹은 영상으로 참석한다.

조계종은 "제15대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의 임기는 2022년 3월 26일부터 시작된다"며 "조계종은 새롭게 추대되는 중봉 성파 종정예하의 가르침에 따라 종단의 사부대중들이 함께 화합하며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더욱 더 수행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중봉 성파 대종사는 월하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0년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1년 비구계를 수계했다. 1970년 4월 7일 통도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통도사 홍법 스님으로부터 전강했다. 1998년 봉암사 태고선원 수선안거 이래 26안거를 성만했고, 2000년에는 서운암 무위선원을 개원하기도 했다.

2002년 환성지안 문하 12세손 월하 스님으로부터 13세손으로 전법을 인정받아 법호 중봉을 수지했다. 이때 전법게는 인인각지자등화(人人各持自燈火) 기대일월심전로(豈待日月尋前路)로, '사람들 각기 자신의 등불을 가졌으니 어찌 해와 달을 기다려 앞을 찾겠느냐'다.

조계종 제5·8·9대 중앙종회의원과 통도사 주지, 통도사 서운암 감원, 영축학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3년 원로의원에 선출됐다. 또 2014년 대종사 법계를 품수하고 2018년 3월 영축총림 방장으로 추대됐다.

선화나 선시,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한 남다른 원력도 눈에 띈다. 1984년 성파시조문학상을 제정한 데 이어 1985년 전국시조백일장을 제정했으며, 1989년 사단법인 영축전통문화연구원 이사장과 2007년 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연구원 이사장을 역임했다. 전통문화 계승과 보존에 기여한 공로로 2007년 옥관문화훈장을 수훈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대한불교조계종 제15대 종정 中峰 性坡 大宗師 추대법회

모시는 글

귀의 삼보하옵고,
대한불교조계종 제15대 종정
中峰 性坡 大宗師 추대법회를 봉행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벽산 원행

일시
불기2566(2022)년 3월 30일(수) 오후 2시

장소
서울 조계사 대웅전 특설 법석

● 추대법회에 참석하는 스님들께서는 장삼과 종단 대가사를 수하시기 바랍니다.
● 추대법회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께서는 오후 1시까지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일 주차장 이용이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종, 첫 종단본 '불교개론' 출간

교육원 3월 15일 기자회견

학인 눈높이에 맞춰 기술해
승가대학 등 전문가들 집필
공동체 · 보살도 강조 '눈길'
올 1학기 부터 교재로 활용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이 3월 15일 열린 '불교개론' 발간 기자회견에서 발간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시중에 발간된 불교 개론서는 수십 종에 달한다. 하지만 대부분 교학 중심으로 어렵거나 단편적인 지식만을 습득하도록 했다. 그러다보니 불교 초심자에게는 개론서가 더 어려운 경우도 왕왕 있어왔다. 조계종이 불교 사문으로 입문한 학인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불교 개론서를 새롭게 발간해 눈길을 끈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진우)은 3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교개론〉 발간 의미에 대해 밝혔다.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불교와 사회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코로나19가 끝나도 포교 현장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이럴수록 빠르게 불교를 이해 · 습득하고 일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렇기에 학인들의 눈높이에서 기술된 개론서가 필요했다"고 새로운 개론서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조계종 교육원이 출간한 〈불교 개론〉은 첫 종단본 불교 개론서"라며 "이 시대에 맞는 생각과 사상, 언어적 표현과 이해 등에 부합되도록 편집했다. 개론이 승가교육 · 불교 공부에 큰 비중은 아니겠지만, 학인과 초심자가 이해하고 공부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쉬운 불교 개론서의 요구는 교육 일선 현장에서부터 있었다. 제8대 교육원 출범 직후 승가교육 발전 방안 수렴을 위한 교육교역자 순회 간담회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진행됐고, 이 자리에서 교육교역자 스님들은 "새로운 〈불교개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원은 2021년 3월 출 · 재가 전문가를 중심으로 편찬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4월에는 집필진을 선정해 본격적인 편찬에 들어갔다. 이후 교육원은 4차례 걸친 편찬추진위원회 회의와 검증 · 검수 과정을 통해 개론서의 내용을 확정하고, 올해 2월 28일 〈불교개론〉을 발간했다.

자체적인 편찬 원칙도 세웠다. 이에 대해 불학연구소장 보문 스님은 "중학교 졸업자라면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개념과 용어들을 최대한 풀이해서 한자가 아닌 한글로 기술했다. 이는 한글세대를 위한 배려"라며 "사찰승가대학, 중앙승가대, 동국대의 출 · 재가 전문가들을 초빙해 편찬위원회와 집필위원회를 구성했고, 연령대도 일선 현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40~50대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내용은 경 · 율 · 론, 어록 등의 출처를 밝혔다. 관련 논문, 저서 등도 함께 게재해 더 깊은 공부를 원하는 학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교육원이 밝힌 것처럼 조계종단본 〈불교개론〉은 일반 개론서와는 차이가 있다. 총 5장으로 구성된 〈불교개론〉은 종교에 대한 기본적 이해로 시작해 불교가 어떤 종교이며, 현대적으로 어떤 가치를 갖는지를 살핀 뒤, 불교 사상 · 역사 등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승가공동체과 계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래 승가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한 챕터에 걸쳐 기술한 것도 특징이다.

고명석 불학연구원 팀장은 "기존 개론서는 계율과 공동체성을 잘 다루지 않고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교육원의 〈불교개론〉은 '승가공동체와 계율'을 한 장으로 다루며 계율과 승가공동체 정신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며 "이는 학인 스님과 불교 초심자들을 위한 배려이며, 여기에는 미래사회 공동체의 지향점도 담겼다"고 강조했다.

교육원은 새로 편찬된 〈불교개론〉을 올해 1학기부터 학인스님들의 교재로 활용된다. 향후 교육원은 대승불교 전반을 다루는 〈대승불교 개론〉, 계율 개론서인 〈계율과 사회윤리〉 등도 발간할 계획이다.

교육부장 서봉 스님은 "제8대 교육원은 변화된 교육환경을 반영해 사찰승가대학 표준교육과정을 개편했고 이에 맞춰 〈불교개론〉 편찬을 우선적으로 추진했다"면서 "앞으로 종단본 〈불교개론〉이 승가교육기관에 널리 활용돼 학인들이 불교의 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미래 승가 핵심 인력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앙종회 문화분과 신설 추진

종헌특위, 3월16일 개정안 심의
유언장 제출도 비구(니)계부터
중앙종회법 · 승려법 등 5건 성안



조계종 중앙종회 산하에 불교문화와 문화재, 불교예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할 문화분과위원회 신설이 추진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 및 종법제 · 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호산, 이하 종헌특위)는 3월 16일 제6차 회의를 열어 제224회 임시회에 발의할 중앙종회법 · 승려법 · 호계원법 · 사찰법 개정안을 논의했다.〈사진〉

중앙종회법 개정안은 문화분과위원회 신설을 비롯해 분과위원회 소관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중 문화분과 신설은 현행법상 사회분과위원회가 사회 · 문화분야를 총괄하고 있어 총무원 사회부와 문화부 및 산하기관 관리 등 업무 범위가 광범위한 상황에서, 문화 분야에서의 전문성 및 범위확대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지적에 따라 논의됐다.

이에 종헌특위는 문화분과 신설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총무원 문화부 소관에 관한 사항, 불교중앙박물관 및 성보박물관 소관에 관한 사항, 성보(불교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불교문화 및 예술에 관한 사항 등으로 세부 사항을 담은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이 경우 기존 사회분과에 포함됐던 방송언론에 관한 사항과 불교신문사에 관한 사항은 문화부 소관으로, 문화분과에 자동적으로 포함된다. 또 현행법상 총무분과와 재정분과가 중복으로 관장하던 직영사찰 관리 및 감사업무도 총무분과로 일원화했으며, 11월 정기회 소집기일을 현행 11월 첫째 주에서 둘째 주로 변경키로 했다.

승려법 개정안은 형행법상 사미(니)계 수계 시 제출토록 정해진 유언장을 비구(니)계 수계 시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언장은 승려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을 위한 방안이다. 그러나 사미(니)계 수계 시 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에 따른 개개인의 부담감이 출가에 대한 회의적인 고민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구본사 혹은 공찰인 말사가 지역 내 도심포교를 위한 직영포교당을 건립할 경우, 보다 효율적으로 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권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사찰법' 개정안도 논의됐다. 사찰법 개정안은 제4조 사찰의 구분에 직영포교당 항목을 신설하고, △교구본사나 말사 주지는 본종 승려를 직영포교당의 관리인으로 임명해 관할 직영포교당 관리와 운영을 위임관리할 수 있다 △관리인 임명시 1개월 내 총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직영포교당 창건 시 총무원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등의 세부규정을 담았다.

이날 종헌특위는 제6차 회의서 성안한 중앙종회법 · 승려법 · 호계원법 · 사찰법 · 사찰부동산관리법 개정안을 3월 28일 개원할 제224회 임시회에 발의키로 결의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발등의 불' 출가자 급감, 실효적 대안 나올까

출가장려특위, 3월 15일 5차 회의서

출가자 급감의 원인 진단
구조적 개선 필요성 공감

출가자 연 100명 선이 무너졌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출가자 수가 100명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출가자 급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로 시급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출가수행자 장려 정책 마련을 위해 출범한 중앙종회 특별위원회가 출가자 감소의 요인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범종단 차원의 TF팀 구성 및 출가장려특별법 제정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해 주목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출가수행자장려정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정범, 이하 출가특위)는 3월 15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출가자 급감의 원인 진단을 토대로 대안 모색에 나섰다.

출가특위는 이날 회의 결과 3월 종회에서 특위 활동보고와 함께 총무원법 제12조 총무부 업무에 '출가장려 및 출가자 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개정을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이는 현행제도상 출가자에 대한 업무가 교육원 소관 승가교육 구조에 한정될 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출가장려 업무에 대한 소관부서가 부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3월 종회 입법발의를 목표로 출가장려에 관한 특별법 제출을 위한 긴급논의도 진행키로 했다. 그러나 출가자 감소의 원인이 총체적인 데다가 현행법상 이미 출가 장려와 관련한 법안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법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특위는 총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종법령 제개정을 통한 실효성 있는 방안 도출, 이를 위한 범종단 차원의 TF팀 구성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사찰 승가대학과 종립대학교의 병합 및 예비출가자(행자)교육을 포함하는 승려 교육제도의 구조적 개선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연령 · 계층별 출가자 장려정책의 대안을 제시했다.

또 선결적으로 총무원법 개정 촉구를 통해 소관부서 부재를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위원 스님들은 이날 종립대학 학생을 출가예비자로 포함시키는 안, 청소년 단기출가 범위를 확대 및 일부개편하는 안 등을 폭넓게 논의한 끝에, 위원장 정범 스님을 중심으로 특별법을 논의해 입법을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

출가자수 급감은 종단의 오랜 숙제인 만큼, 이번 종회에서 얼마나 현실적인 대안을 담은 입법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송지희 기자

지역별 종교차별신고센터 설치 추진

종교편향특위, 제8차 회의서

조계종이 지역 교구본사와의 협력을 토대로 지역종교차별신고센터의 설치를 추진한다. 이는 그동안 반복적으로 지속돼 온 종교편향 · 차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응방안의 일환이다. 올해 종교평화위원회가 추진하는 상시모니터링,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역할 확대 등과 연계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인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 불교왜곡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선광, 이하 종교편향특위)는 3월 16일 제8차 회의를 열고 사회부가 보고한 종교편향 대응사업의 건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사회부는 올해 종교편향 대응사업의 일환으로 제도 및 대응시스템 강화 및 현안대응을 위한 노력을 개진할 방침이다.

여러 방안 가운데 특히 지역종교차별신고센터 설치 추진의 건과 관련,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적지 않았다. 이는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공공기관의 종교차별 사업 및 행위에 대한 정보수집과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교구별 협력으로 지역센터를 구축하는 동시에, 포교 · 신도인력에 대한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역할 부여를 골자로 한다.

종교편향특위는 이날 4월 7일 중앙종회의원 연수로 진행될 '종교편향 불교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토론회' 세부사항도 확정했다.

송지희 기자

백만원력 결집불사
위례신도시
상월선원 신축불사

아홉스님의 석 달 동안의 동안거 상월선원 천막결사 정신을 계승하여 한국불교 중흥과 나라와 국민의 평안, 나아가 온 인류의 평화를 기원하기 위한 상월선원 신축불사를 추진합니다. 봉은사의 위례 신도시 상월선원 건립불사는 상월결사의 정신을 담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의 발원으로 시작된 백만원력 결집불사와 함께 우리 불자 한명 한명의 원력을 모아 한국불교의 내일을 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상월선원 신축불사 모연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상월선원 전체 불사 모연



상월선원 대웅전 불사 모연





전체 불사 : 1인 1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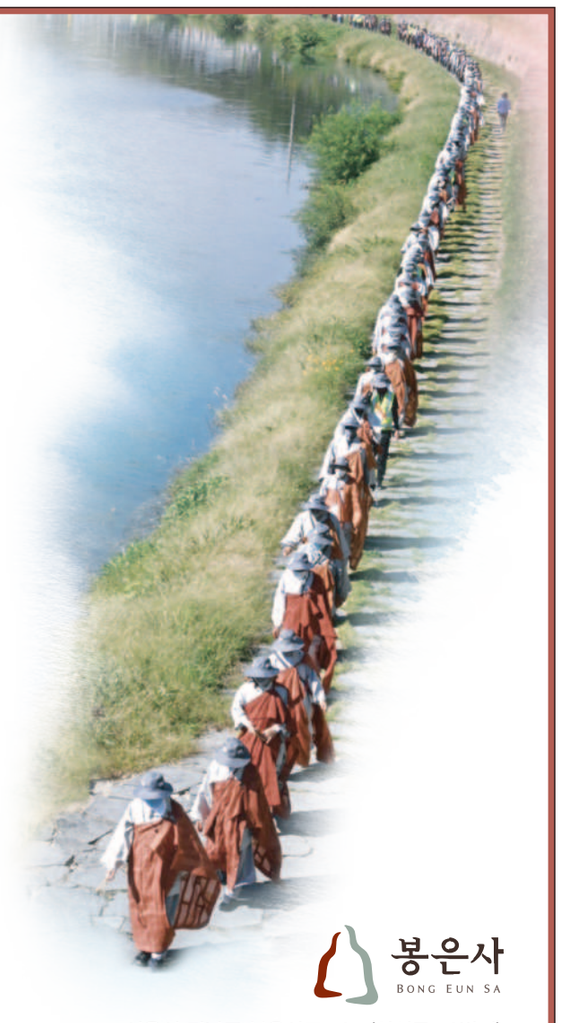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5-099939
농 협 301-0299-2142-01
국민은행 401301-04-080435
예 금 주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문의/안내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02)3218-4811/4837

홈페이지 http://www.bongeunsa.org

구 분	수 량	동참금
상량보	1개	2억원
대들보	18개	1억원(개당)
기둥	18개	5천만원(개당)
도리	77개	2천만원(개당)
주춧돌	18개	5백만원(개당)
서까래	236개	1백만원(개당)
기타		십시일반

구 분	내 용	가족모연(금판)		개인모연(은판)		십시일반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불상	삼존불(석가모니불) 및 좌대	5명	3억원	200명	100만원	500명	10만원
	삼존불(약사여래불) 및 좌대	5명	2억원	200명		500명	
	삼존불(아미타불) 및 좌대	5명	2억원	200명		500명	
	관세음보살 및 좌대	5명	1억원	200명		500명	
	지장보살 및 좌대	5명	1억원	200명		500명	
구 분	내 용	가족모연		개인모연		십시일반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탱화	후불탱화 삼세불도	10명	1억원	200명	50만원	200명	10만원
	신중탱화	10명	5천만원	200명		200명	
	감로탱화	10명	5천만원	200명		200명	



봉은사 BONG EUN SA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31 (삼성동 73번지)

동국대, 문화재 · 음악 특화로 '제2건학' 나선다

건학위원회 3월 16일 기자간담회서 밝혀

서울캠에 한국음악학과 신설
정원 15명…내년도부터 입학
문화재학과도 첫 입학생 받아
서울지역 유일한 문화재학과
"실용적 불교 인재 배출 노력"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음악이 곧 불교 음악이지만, 불자는 매우 적습니다. 한국음악학과가 설립되면 이제 우리 식구가 될 불교 음악 전문가들을 양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박범훈 한국음악학과 석좌교수)

"한국 문화재 중 70%가 불교문화재이지만, 이를 다루는 대학은 모두 타 대학들이었습니다. 불교에 대한 이해가 높은 종립대학에서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연구 · 교육할 수 있게 된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임영애 문화재학과 교수)

조계종립 동국대(총장 윤성이)가 한국음악과 문화재 관련 학과를 신설 · 운영하고 해당 분야 교육 · 연구의 특화에 나선다.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는 3월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화재학과와 한국음악과의 운영 방향과 의미에 대해 발표했다.

동국대는 올해부터 문화재학과 신설하고 첫 입학생을 받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2월 8일 열린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회 제342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설립이 결정된 한국음악학과는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한국음악학과와 문화재학과 모두 전통문화 보존 · 계승과 실용적 불교 인재 양성이라는 큰 목표를 갖고 설립됐다. 이는 동국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건학이념 구현 사업과도 맞닿는다.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3월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설된 문화재학과와 내년부터 신입생을 받는 한국음악학과의 운영 방향과 설립 의미에 대해 밝혔다.

불교 음악 인재 양성 기대 높아

2023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는 한국음악학과는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3월까지 입학전형위원회를 운영하고 이후에는 설립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운영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술대학에 설치되는 한국음악학과의 입학 정원은 15명이며 기악(소금 · 대금 · 피리 · 가야금 · 해금 · 거문고), 성악(판소리 · 민요 · 가곡 · 서도창 · 범패 · 화청), 작곡 · 지휘 전공으로 운영된다.

한국음악학과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불교 음악 인재를 배출이 가능해져 불교 음악포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범훈 동국대 한국음악학과 석좌교수는 "한국음악을 선도할 인재들이 필요했고, 1995년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한국음악학과가 만들어졌으나 지역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크게 성장하지는 못했다. 이는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면서 "새로 만들어질 서울 한국음악학과는 우수한 인재를 모집해 세계적인 스타 음악가를 배출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전 방향으로는 조계종 불교음악원과 함께하는 현장 공연 교육을 제시했다. 박 석좌교수는 "음악인은 공연이 제일 중요하다. 교실에서 이뤄지는 교육은 한계가 있다"면서 "조계종 불교음악원을 통한 공연 실습 등 현장 교육을 병행하도록 하겠다. 전국 사찰이 있기 때문에 공연할 수 있는 무대는 많은 것이 최대 이점"이라고 설명했다.

10:1 경쟁률…문화재학과 성공 안착

올해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 문화재학과는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정원 15명인 문화재학과는 운영 첫 해임에도 수시 10대 1, 정시 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학내에서도 학생들의 복수전공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문화재학과는 문화재 현장에서 활용되는 필수적인 지식들을 교육한다. 임영애 문화재학과 교수에 따르면 문화재학과에서는 △불교 고고학 △보존과학 △미술사 등을 주요 전공으로 다룬다.

불교 고고학의 경우 절터를 발굴하고 발굴지와 유구들을 읽어내는 능력을 배양하며, 보존과학은 발굴 유물들을 보존 · 관리하는 기술이다. 잘 보존처리된 문화재들을 연구 · 분석하기 위해서는 미술사 전반에 걸친 지식이 필요하다. 이 같은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함으로서 실무형 인재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게 임 교수의 설명이다.

임 교수는 "전국에는 문화재학과가 몇몇 있지만, 서울에 있는 문화재학과는 동국대가 유일하다"며 "취업 전망도 밝은 편이다. 정부에서는 인구 3만 9000명 당 1개의 미술관, 박물관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만큼 관련 수요가 많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학원에는 40년 전통으로 미술사학과가 있기 때문에 앞선 선배들을 멘토-멘티로 연계하면 학과는 꾸준히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성이 동국대 총장은 "학과 신설 관련해 운영 정원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학교 법인과 건학위원회 스님들의 관심 덕분에 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면서 "문화재학과는 높은 경쟁률로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했고, 한국음악학과는 비상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전통 계승과 특화 인재를 양성하는 두 학과가 발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건학위원회 고문 자승 스님께서는 불교 인재 양성에 초점을 두고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강조하셨다"면서 "불교학과, 선학과, 인도철학과가 이론적 인재를 양성했다면 한국음악학과와 문화재학과는 실용적인 불교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평등한끼' 단식으로 차별금지법 촉구"

사노위, 3월 15일 기도회서 차별 · 혐오 끊는 릴레이 단식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이하 사노위)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하루 한 끼 단식을 하는 '평등한끼' 릴레이 단식행동에 동참했다.

사노위는 3월 15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차별을 끊고 평등을 잇는 2022인 릴레이 단식행동 〈평등한끼〉'와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도회를 봉행했다.

'평등한끼'는 사노위가 그동안 동참해 왔던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만들기 유세단'에 이어 하루 한끼 단식으로 차별을 끊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데 힘을 보태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들은 하루한끼 단식을 통한 공동행동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 새로운 정부 출범 전 차별금지법을 시민의 힘으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기도회에 앞서 사노위 부위원장 혜문 스님은 "부처님은 모든 이들이 평등하기에 차별이 없다고 하셨다"면서 "차별과 혐오를 끊자는 의지를 담아 한 끼를 굶고 평등으로 한 끼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기도회 이후 스님들은 '평등의 약속을 잇는 차별금지법 제정' '모두를 위한 내일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등의 메시지가 담긴 피켓을 들고 국회 앞을 돌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발원했다. 사노위는 종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모든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가 만들어 지길 바라며 정기 기도회와 연대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차별을 끊고 평등을 잇는 2022인 릴레이 단식행동 평등한끼'는 단체와 개인 모두 참여할 수 있다. 4월 8일까지 원하는 날을 골라 각자의 자리에서 한 끼를 단식하고 SNS에 이를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동시에 매일 11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 국회 정문 앞에서 다양한 단체들의 릴레이 단식행동도 이어진다.

임은호 기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3월 15일 기도회를 봉행했다.

조계종 · 상월결사,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

아름다운동행 · 현대불교신문 공동캠페인

8월 12일까지 긴급 모금
"피난민 상처에 자비온정"

한국불교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생한 난민 구호를 위해 긴급모연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조계종(총무원장 원행)과 상월결사(회주 자승)가 주최하고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과 현대불교신문이 주관한다.

2월 24일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무력침공으로 주요시설들이 파괴되고 1000명 이상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 또 15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전쟁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민간인에 대한 피해 발생으로 난민 지원이 긴급한 상황이다.

이에 조계종은 전쟁 중단과 우크라이나 구호를 위한 호소문을 불교계에서 처음 발표한 상월결사와 함께 모연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아름다운동행과 현대불교신문이 주관하는 이번 모금 캠페인은 8월 12일까지 진행된다. 모금액은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통한 간접 지원과 인접국가 NGO 및 불교 단체를 통한 직접 지원이 병행된다. 급박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하루빨리 재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모금동참 링크(https://url.kr/apycvg) 홈페이지(www.dreaminus.org) 참조. 02)737-9595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산불피해 복구에 자비온정 이어져

조계사 3천 · 월정사 3천만 원
해인사 2천 · 불국사 5천만 원
3월18일 울진구청서 일괄전달

경북울진 산불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불교계 온정이 속속 답지하고 있다. 조계사와 해인사, 불국사 등 전국 본사들이 잇따라 울진지역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금을 전달했다. 조계종은 3월 18일 울진구청에 복구기금을 전달했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3월 1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아름다운동행(대표이사 원행)을 통해 산불지원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기금은 조계사 신도들이 십시일반 모연한 기금으로 의미를 더했다. 도반 HC도 같은 날 1천만원을 전달했다.

지현 스님은 "울진지역 산불 피해상황을 보고 신도분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보탰다"며 "사찰 피해는 덜하지만, 민가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지원이 시급할 것으로 보고 급히 기금을 전달키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김의정 조계사 신도회장 등 신도회 임원이 배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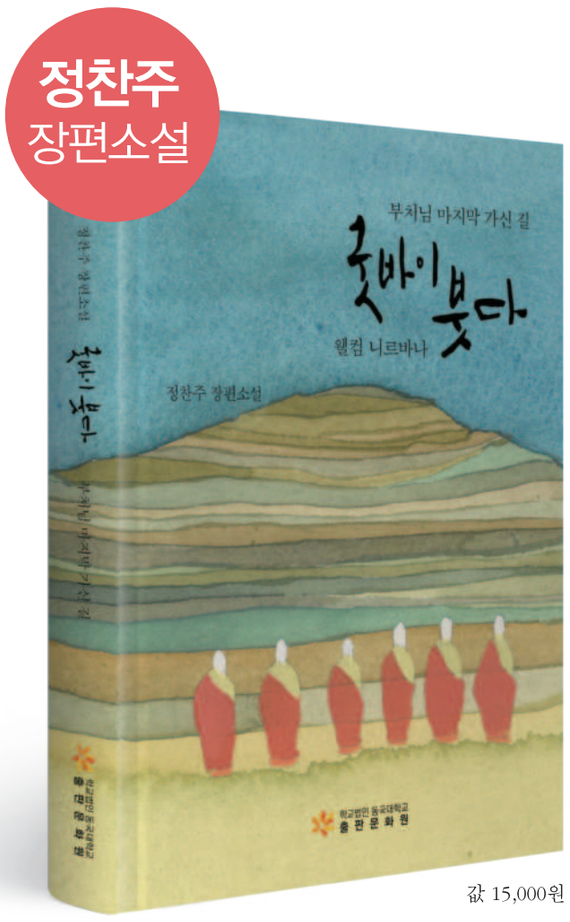
해인사(주지 현응)도 경북울진 산불 피해 기금으로 2000만원을 쾌척했다. 해인사 총무국장 진각 스님은 "합천 산불이 크게 나면서 우려가 컸으나 다행히 거리가 있어 피해는 없었다"며 "최근 경북 울진 지역의 피해가 심각해 해당 지역의 피해복구 및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금을 전달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불국사(주지 종우)와 무진선원(선원장 도선)도 각 5000만원을 전달했다. 경북울진 지역 뿐 아니라 강원지역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기금이다. 산불피해 우려가 심각했던 울진 불영사 주지 일운 스님도 참석해 종단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3월 17일에는 월정사(주지 정념)가 산불 피해 지원금 3000만 원을 전달했다. 원행 스님은 "언제나 산불에 주의하고 사찰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소중한 기금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3월 18일 총무부장 삼혜 스님과 사회부장 원경 스님,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 스님 등을 중심으로 지원단을 구성해 울진구청에 지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

송지희 기자 · 임은호 기자

정찬주 장편소설



값 15,000원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출판문화원 | http://dgpress.dongguk.edu
전화 02.2264.4714 팩스 02.2268.7851

지금 이 순간, 다시 주목해야 하는 까닭은?

굿바이 붓다

웰컴 니르바나

"코로나19 팬데믹, 인간의 이기심이 불러온 인류의 불행"
"혼란과 두려움! 어떻게, 무엇에 의지해 살아야 하나?"





열반을 앞둔 부처님의 간곡한 가르침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소설 〈굿바이 붓다〉는 부처님이 웨살리에서 비구들을 불러놓고 당신의 열반을 선언한 뒤부터 꾸쉬나가라 변두리에 있는 살라나무 숲 속에서 눈을 감으실 때까지 시봉하는 제자 아난다와 주고받은 세 달 동안의 이야기가 주요한 내용이다.

"아난다여, 너는 여래의 열반을 한탄하거나 슬퍼해서는 안 되느니라. 너에게 항상 말하지 않았더냐. 아무리 사랑하고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침내는 헤어져야 할 때가 찾아오는 것이라고. 그것을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앞으로 여래가 없더라도 방일하지 말고 부지런히 힘써 정진하여 번뇌 없는 경지에 빨리 도달함이 좋으리라."

"끝내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감화(感化)다!"

– 작가 정찬주 –

장애인이 가기 좋은 절, 어디일까?

보리수아래, 전국 사찰 대상 연구조사 실시

후보군 80여 사찰 전수조사 후
모범사례로 자료집 발간도 계획
인식개선 위한 교육자료 기대도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중증뇌성마비장애를 가진 홍현승 씨는 2005년부터 서울 화계사에서 신행생활을 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현승 씨가 처음 화계사에 방문했을 때 갈수 있었던 곳은 대적광전뿐이었다. 안전난간대(핸들바)가 설치된 곳이 그곳뿐이었던 것. 대웅전 참배를 하고 싶었던 현승 씨는 어느 날 만난 주지스님께 가벼운 말로 "대웅전에 난간 하나 설치해 주시면 안 되냐"고 물었다. 얼마 안 돼 나무 조립으로 임시 경사로가 만들어졌고 1년 후, 대웅전뿐 아니라 삼성각에 정식 경사로와 난간이 설치됐다.

난간 덕분에 현승 씨는 화계사에서 신행생활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었다. 화계사 불교학생회와 대학생법회, 불교대학 2년 그리고 학생회 포교사를 거쳐 학생회 간사로 활동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조계종 포교사 고시에 최연소 합격했으며 시집 출간으로 시인이 됐다.

그 세월이 어느덧 17년. 난간 하나로 시작된 불연이 현승 씨의 삶을 이토록 아름답게 만들고 있다. 현승 씨는 화계사뿐 아니라 사찰 곳곳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설치돼 있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장애인의 불교 접근이 쉽지 않은 것이 늘 안타깝다.

사회구조가 법률 제정, 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구조로 바뀜에 따라 사찰 환경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사회에서 사찰은 편의시설 등을 갖추지 않았고 불편하다는 인식이 크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전무한 것으로 인식돼 장애인의 불교 접근성을 막고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환경을 갖춘 사찰을 파악해 장애인과 가족, 장애인계, 사회복지계, 지역사회 등 사회 전반에 알릴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장애인 불자단체 보리수아래(대표 최명숙)가 진행 중인 '장애인이 가기 좋은 절 조사연구사업'은 사찰은 장애인이 가기 어려운 곳이라는 오해를 풀기 위해 시작됐다.

시설을 잘 갖춘 사찰에서 신행활동을 펼치고 있는 장애인 불자들도 있지만 다수의 장애인 불자들은 이를 잘 알지 못해 활동하지 못하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낀 최명숙 대표는 "장애인이 가기 좋은 절은 어디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수년 전부터 연구에 대한 준비를 했다. 재정적 한계 등으로 인해 실행에 옮기지 못하다가 지난 3월,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가 실시한 불교시민사회단체 사업공모에서 선정되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최명숙 대표는 "많은 사찰들이 전통과 현대가 잘 어우러져 장애인이 전통문화재를 돌아보면서 법당 참배까지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 등 근래 들어 눈에 띄게 장애인에 대한 환경이 좋아졌다"면서 "그러나 홍보가 돼 있지 않기에 배려가 전무한 것으로 인식돼 장애인의 불교 접근성을 막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이번 사업 진행의 이유를 설명했다.

장애인에 대한 환경이 좋은 사찰에 대한 자료조사를 통해 접근성이 좋은 사찰에 대한 정보를 제공, 장애인이 사찰을 쉽게 찾아 신심 돈독한 신행생활을 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표다. 이를 통해 사찰은 장애인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재고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인들이 불교에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만들어 포교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보리수아래 회원들은 3월부터 직접 전국 사찰을 방문,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현장조사는 전국 조계종 사찰 80여 곳을 기본으로 하며 타종단의 대표 사찰로도 범위를 넓혀나간다는 방침이다.

경사로와 안내표지만, 장애인 화장실 등 기본적인 장애인 편의시설과 장애인이 참배할 수 있는 법당 등을 살필 계획이며 취합된 자료는 수필 형식으로 정리, 올해 10월 중순 경 자료집을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집 500부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전국 사찰과 장애인 단체, 사회복지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자료집이 발간되면 장애인 불자들의 신행뿐 아니라 종단 차원의 포교 전략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최명숙 대표는 "이번 조사는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닌 모르고 있던 장애인 친화적 면모를 발굴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조사 시 장애인 시설에 대한 개선 의지가 있는 사찰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인식 교육 욕구가 있는 사찰은 교육도 겸할 계획"이라며 사찰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조계종 포교원은 3월 15일 제6기 포교 · 신도연구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 활성화 위한 조직 정비

제6기 포교 · 신도연구위원회 새 구성

3월 15일 신임위원 위촉
포교위원장에 지현 스님
신도위원장에 원명 스님

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범해)이 3월 15일 포교종책 및 포교사업 활성화를 위한 포교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다. 포교위원회는 각 사찰과의 원할한 소통을 맡고, 현실성 있는 포교종책 개발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6기 위원에는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을 위원장으로, 수국사 주지 호산 스님(중앙종회의원), 호압사 주지 우봉 스님(종회 사무처장), 종회 포교분과위원장 법원 스님, 세원사 주지 정운 스님(종회의원), 김영석 포교사단장과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등 7명이 위촉됐다.

해당 사찰에서 활발한 포교를 진행중인 스님과 현장활동가, 학계 전문가들이 포진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와 함께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같은 날 신도연구위원도 위촉했다. 신도연구위원회는 신도조직화와 관리 등을 함께 고민하는 조직이다.

신도연구위원회는 위원장으로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이, 불교문화재연구소 부소장 호암 스님(인각사 주지),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 종로노인복지관장 정관스님(종회의원),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송일호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 등이 위촉됐다.

범해 스님은 "각 위원들은 종단 포교를 책임진다는 원력으로 포교원과 함께 해주길 바란다. 불교 미래를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 새로운 포교방안을 수립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포교위원장 지현 스님은 "코로나로 포교환경이 어렵지만 앞으로 미래를 위한 포교방안을 설계해가겠다. 포교는 스님의 의무라 생각하고 책임을 맡은 만큼 의원들과 최선을 다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교위원 호산 스님도 "불교계는 문화를 활용한 포교에 앞장서야 한다. 포교위원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역동적인 포교방안을 도출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노덕현 기자

(사)맑고향기롭게 대학생 장학금 지원

4월 15일까지 신청서 접수

(사)맑고향기롭게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4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지원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의 청년으로 수도권 및 지역의 2년제 이상 대학생 △본인 또는 부모(보호자)가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등록된 종단의 사찰, 단체 소속 신도(회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가능자 △법정 저소득층 및 소득구간 5구간 이하 △직전 학기 평균학점 B학점 이상인 학생(학점 4.5 만점의 경우 총 평점 3.5 이상, 학점 4.3 만점의 경우 총 평점 3.3 이상)이다. 선정결과는 5월 17일 본회 홈페이지 발표 및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장학증서 수여식은 5월 28일 오후 2시에 개최된다. 02)741-4696 임은호 기자

동국대에 인재 양성 장학금 기부 잇달아

보은 법주사, 1000만원 쾌척
충북 미래불자 장학기금 활용
월드머시코리아 5000만원 기부



장학증서 수여식에 이어 진행된 기념촬영.

불교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기금이 동국대에 잇달아 쾌척됐다.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는 3월 16일 동국대 본관 5층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법주사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수여식에는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과 건학위원회 위원장 돈관 스님, 박기련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학교법인에서는 지정학 법인사무처장, 동국대 서울캠퍼스에서는 기획부총장 종호 스님, 박광현 교무학생처장과 법주사 장학생 6명이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건학위원회 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은 건학위원회가 지역사찰과 동국대에 재학 중인 해당지역 학생들을 연결해 수여하는 장학금이다. 지역사회 공헌과 미래불자 육성 등 인재불사를 목표로 한다. 지난해 11월 포항 원법사를 시작으로 8번 째 주자가 된 법주사는 동국대 재학생을 학교로부터 추천받아 10명을 선정, 장학금을 수여했다. 장학금 수혜인원은 지금까지 총 80명으로 늘었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지역사찰과 해당지역 학생을 연계하는 동국대 건학위원회의 장학사업으로 인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의 인연이 깊어지는 계기가 됐다"며 "소중한 인연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더욱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은 "충북지역 학생들에게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동국대 건학위원회에 감사드린다"며 "지역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경은(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2학년) 학생은 장학생을 대표해 법주사와 정도 스님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김경은 학생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계기였다. 따뜻한 나눔의 힘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월드머시코리아 대표 현진 스님은 3월 15일 윤성이 동국대 총장을 만나 기부금 5000만 원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현진 스님의 뜻에 따라 동국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국제포교사, 간화선 수행법 배우다

국제포교사회, 3월 12일 각산 스님 초청 법회

'참선명상 여덟 단계' 주제
온 ·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이재홍)는 3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선원장 각산 스님 초청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참선 명상의 여덟 단계'를 주제로 간화선의 수행법이 소개됐으며, 대면 및 비대면 참석자와의 열띤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국제포교사회는 지난 1월 11일, 봉암사 세계명상마을(선원장 각산)과 업무협약을 맺고 참선 수행의 대중화 및 세계화에 앞장서기로 했다.

봉암사 세계명상마을을 방문하는 외국인 대상 행사 지원과 홍보를 맡기로 했으며, 이번 초청법회는 국제포교사 교육 일환으로 진행됐다.

국제포교사회 회원 25명은 2월 25일부터 3일간 '세계명상센터 참불선원 49기 명상 입문반'에 참석해 교육을 받았으며, 국제포교사회 회원 24명은 4월 6일부터 시작되는 '제7기 참선아카데미'에서 명상과 참선 교육을 받고 명상지도사 2급 및 참선지도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대행선연구원 불교학술 진흥사업 안내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은 묘공당 대행선사의 사상과 교화행을 이어받고 그 가르침을 널리 선양하기 위해 다양한 불교학술 진흥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불교학 발전과 대행선 사상의 연구 진작을 위해 불교학 관련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 및 서류 제출처

▶ 모든 서류는 E-mail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 ds7788@hanmaum.org
▶ **홈페이지** www.daehaeng.re.kr
▶ **전화** 031)470-3276, 3277
▶ **주소**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대행선연구원

제5회 묘공학술상 공모

- **공모분야** : - 한마음선원 및 대행선사와 관련된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의 분야
  - 선학 또는 불교학과 관련된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의 분야
- **응모자격** :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박사 학위 소지자
- **선정분야** : 대상 1명 / 1,000만원의 상금과 상패
  우수상 2명 / 각 700만원의 상금과 상장
- **공모기간** : **2022년 3월 1일(화) ~ 31일(목)**

※ 공모신청 방법과 일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학술지 『한마음연구』 발간

- **발간시기** : 연2회(2월 28일, 8월31일)
- **투고분야** : - 한마음선원 및 대행선 관련 주제
  -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주제
- **투고시기** : 연중 접수
- **투고자격** : 박사과정 이상의 선학, 불교학 및 불교관련 인문학, 이공학, 의학 등의 연구자
- **투고방법** :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투고 (www.dbpiaone.com/dhs)

※ 『한마음연구』 논문투고 요령 및 심사규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 원고료 : 소정의 금액 (『한마음연구』 게재 완료 시)

제4회 묘공학술장학생 공모

- **응모자격** : 불교학 및 대행선 관련 주제를 연구하거나 논문(학위 논문 포함) 작성을 계획중인 대학원 재학(수료)자
- **선발인원** : 0명
- **공모기간** : **2022년 3월 1일(화) ~ 31일(목)**

※ 공모신청 방법과 일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붓다톡’으로 불자공동체 구축 앞장을

특별인터뷰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주윤식 제27대 중앙신도회장은… 1992년 제8교구본사 직지사를 재적사찰로 등록 후 1993년 법상스님을 전계사로 계를 받았다. 2017년 조계종 제8교구 신도회장으로 취임 후, 승보공양 운동을 전개해 직지사 승려복지회를 뒷받침했다. 승보공양 운동 8개월 만에 후원자 1000명을 모집했고 이 공로로 2019년 포교대상 공로상도 수상했다. 대구 중견기업 상하수처리 교반기 제작 업체인 주식회사 우진 대표이기도 하다. 사진은 붓다톡 앱이 담긴 스마트폰을 들고 밝게 웃는 주윤식 회장의 모습.

‘불자 네트워크’ 메신저앱
4월 출시, 각계 보고 한창
메신저기능 및 QR멤버쉽

10년차 행복바라미 캠페인
지역 중심 테마문화제 확산
영화제 비롯 활동주제 제시



불교성전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신심의 요체이기도 하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진행하는 〈불교성전〉 인증샷 이벤트에 참여한 불자들의 모습.

2021년 6월 24일 서울 전법회관에서는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27대 집행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불자공동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보화 사업 지원 협약이 이뤄진 것이다.

1년이 채 되지 않은 3월 17일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불자공동체 네트워크 구축의 핵심인 불자 메신저 앱 ‘B톡’ (이하 붓다톡)이 4월 정식 출시된다고 밝혔다.

불자공동체 네트워크 구축을 앞두고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누구보다 이에 대한 기대가 컸다. 2019년 취임 이후 코로나 확산 속에서 신도 조직화 등 불자 역량 제고에 힘썼지만 많은 부분에서 한계를 느꼈던 터였다.

주윤식 회장은 “취임 이후 많은 분야에서 노력을 해왔지만, 아쉬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한국불교 불자들의 역량을 한데 모으고,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동력을 갖게 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붓다톡’ 보급 사업 향후 주력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는 붓다톡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멤버십 회원증과 함께 가입한 회원들의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상호 공유하고, 각종 생활 혜택에 더해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도 제공한다.

불교계에서는 먼저 불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불교계에서는 그동안 조계종 신도등록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조계종 신도라는 한정된 자격과 제한된 정보 등으로 이를 활용하는 부대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붓다톡에는 불자들과 함께 불교경제공동체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도 참여 가능하다. 중앙신도회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불자 기업들 간의 상생을 이끌고, 불자 일자리 창출 등 경제공동체까지 구축해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주윤식 회장은 “먼저 웹 속에 DB를 넣어 행정구역별 실시간 검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불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다른 불자들의 정보를 알고 각종 사업에서 불자들을 중심으로 협력하자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주 회장은 그동안 사회에서 불자들의 역량 발휘가 이웃종교에 비해 약했던 것은 이러한 상호 협력의 문화가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주 회장은 “개신교 신자들을 보면 서로 정보를 공유하여 같은 교인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가게의 물건을 사곤 한다. 상부상조하는 문화가 점점 확대되면서 그 것이 결국 전법 포교 동력으로도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불자들의 정보가 한데 모아지고, 이용자 수 등이 담보되면 자연스럽게 기업들의 참여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붓다톡에서는 교원공제회나 군인공제회와 같이 회원 가입 후에는 금융 혜택, 물품 구입 혜택 등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기업들의 참여도 이뤄져 기업은행이 환전 우대와 특별 금융상품을, 전자랜드가 특가상품 및 5% 상품권 제공 등을, 한화리조트가 회원가 숙박 제공 등을 준비하고 있다. 디지털 회원증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하며, 스마트폰에 탑재돼 이들 기업에서 사용 시 자동으로 할인된다.

주 회장은 “신도 등록시 주어지는 사찰무료입장의 경우 신도와 불자라면 사찰을 찾을 때 일반인들보다 더 신심껏 보시해야 하기에 오히려 유료입장이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신도들 역량 결집이 결국 정보 디지털화에서 이뤄질 수 있다. 그에 기반하면 자연스럽게 혜택도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총무원장 스님과 포교원장 스님 등에 붓다톡 개발상황을 보고하고, 보급에 앞장설 계획이다.

불자들의 정보공유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과 비슷한 통합 메신저인 붓다톡은 메신저 기능제공과 불교 각 단체 활동을 공유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주 회장은 “일반인들도 가입이 가능하기에 전국 사찰 위치 및 특징 등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신도들의 활동, 사업 뿐만 아니라 사찰 정보와 소식 등을 담아 스마트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게 목표”라고 말했다.

주 회장은 “어느 큰스님의 법문도 유튜브로 접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유튜브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불교 관련 법률 상담을 맡는 변호사, 불교 관련 건축업자 등 불자들이 실제로 필요한 정보를 접하기가 어렵기에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 만으로도 부가가치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오프라인에서는 불자들이 많이 모여야 100만명이 모이기 힘듭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수백만명이 모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서로 교류가 되고 도와가면 자연스럽게 역량발휘가 되리라 봅니다.”

본분은 ‘권선’, 포교 마중물 역할 필요

주윤식 회장은 불자로서의 본분에 대해 강조했다. 스님들이 전법 포교에 나서는 만큼 이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기존 신자, 불자들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 회장은 “스님들이 전법 포교에 나서는 것은 부처님 법을 많이 알려서 대중들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신도들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주변에 비불자가 있으면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법석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주 회장은 1기 졸업시 2기 입학자를 모집하도록 한 봉은사 수미산원정대를 예로 들며, 법회에도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주변인들에게 권하는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회장은 “부처님 당시 어떻게 교세가 커졌는지를 살펴보면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는데, 직접 가서 들어보니 너무 좋아서, 다음에는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서 점점 커졌기 때문”이라며 “부처님 당시 법을 듣기 위해 이웃집 사람도, 형님도, 아버지도 모시고 가고 하니 점점 법이 퍼진 것”이라고 말했다.

주 회장은 이러한 적극적 역할이 바로 신도들이 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스님들께서 그 마중물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허한 사람, 어떤 감동이 필요한 사람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법하고, 전법 하는게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들이 좋은게 있으면 서로 권선하고, 이끌고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 회장은 붓다톡 또한 일반인들에게 개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회장은 “사실 불자들만 한정해서 혜택을 주고, 활용하면 여러면에서 더 장점이 있겠지만, 일반인들도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한두번이라도 불교계 소식을 접하고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입니다. 한명이 열명한테 권하기만 해도 많이 홍보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부처님 복밭 짓는 〈불교성전〉 보급 앞장

이와 함께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지난해 온라인을 중심으로 진행한 〈불교성전〉 법공양 불사를 온오프라인에서 활발히 펼칠 계획이다. 불교성전 법공양 불사 선포식을 지역마다 개최한다.

불교성전 법공양 불사는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불교성전 보급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당시 조계종 서점에서는 조계종 신도의 경우 10% 할인 혜택을 주고 판매시 20% 가량의 수익을 얻는 구조로 보급을 진행하고 있었다. 중앙신도회는 이 사업을 이어받아 한명이 두명에게 법공양 하는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했다. 불교성전 법공양 불사는 지난해 코로나 와중에도 나름의 성과를 맺었다.

주 회장은 “불교성전 봉정식을 보며 성전을 보급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불교성전이라면, 나라에서는 국정교과서다. 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경전인데 불자들에게 보급이 많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들었다”고 소회를 털어놨다.

“금강경을 한번 만 읊어도 죽은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공덕이 쌓인다는데 불교성전을 다른 이들에게 권선하면 그 공덕이 얼마나 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누군가에게 전한다면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공덕을 짓는 것이 아닐까요.”

릴레이 캠페인은 본인이 받은 〈불교성전〉이 타인이 본인을 위한 보시라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낳았다. 〈불교성전〉을 받은 불자들은 다시 다른 이들 2명에게 〈불교성전〉을 보시했다.

주 회장은 “불교의 가장 대표적인 수행이자 문화가 ‘보시’ 아니겠는가. 기본적으로 할인이 되는 부분을 떠나서 많은 분들이 할인 안해줘도 좋으니 보시하겠다고 쾌척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불교성전 판매 수익은 각 교구신도회의 활동비로도 활용돼 신도조직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다만 주 회장은 코로나로 인하여 릴레이 캠페인을 온라인 중심으로밖에 진행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한번은 강원도 사찰 법회에 갔을 때입니다. 아직도 불교성전에 대해 모르는 불자님들이 계셔서 아쉬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 엔데믹을 맞아 각 교구본사나 사찰을 다니며 불교성전 수지독송과 보시의 공덕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고 다닐 계획입니다.”

10년 맞은 행복바라미 지역테마 사업 전개

중앙신도회는 올해 10주년을 맞는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도 9월 중 중앙 행사와 함께 나눔문화 캠페인으로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새해를 맞아 중앙신도회는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불교영화제인 세계일화 국제불교영화제를 8월 충무로 대한극장에서 열 예정이다. 전국 순회 상영도 준비 중에 있다. 특히 이러한 문화 축제를 비롯한 지역 테마 사업은 신도조직화에도 필수적이라는게 주윤식 회장의 지론이다.

주 회장은 “불교 신도조직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공동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조직이 계속 움직이기 위해서라도 지역 테마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회장은 “불교계 공익사업인 행복바라미의 경우 10년을 맞았다.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10년이 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불교계 원력이 모이고, 정부지원을 받아 각 지역에서 진행되기에 점점 의미가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은 지역문화제로 날로 발전하고 있다. 조계종 6교구의 경우 탁발 모연을 하고, 조계종 9교구의 경우 승시축제를 여는 등 지역별 테마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주 회장은 “당초에는 모금 위주였다면 이제는 지역문화 창달로 성격이 전환되고 있다. 이웃을 위한 모금 뿐만 아니라 지역불교문화를 알리고, 그 문화를 다시 어려운 이웃을 위해 회향하는 것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4월 열리는 국제불교박람회에도 처음으로 대형부스를 만들어, 행복바라미 캠페인을 홍보할 예정이다.

주 회장은 “그동안 중앙신도회가 행복바라미 사업을 이끌며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역할을 맡았다면 이제 지역불교계와 교구신도회가 주도하고, 중앙에서 지원하는 역할로의 변화”라며 “다시 지역에서 선순환 되는 모금캠페인의 선례를 장기적으로 구축해 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불자 · 신도로서 본분 지키는 한해로

주윤식 회장은 “불교는 개미신도들의 믿음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스님들이 그 단단한 기반을 딛고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네트워크 사업 등을 하여 신도들이 활성화되도록 힘을 넣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도들이 신도를 만든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본분을 다하자는 것이 취임사였는데, 상월결사에 참여하며 확신을 얻었습니다.”

주 회장은 수행정진하는 스님들을 보조하는 신도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주 회장은 “스님들이 얼마나 절실하면 몸 상해가면서 거리로 나오겠습니까. 함께 수행해가며 한명이라도 전법하고자 하는 간절함에 공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는 불자들이 엄청난 신심을 갖고 있지만 힘을 모으는 방법을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불교 신도층이 더 두꺼워지고, 넓게 만들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데 헌신할 것입니다. 2021년 한해는 힘든 한해였습니다. 세상이 어려울 때는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본분을 다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봅니다. 각자 최선을 다하면 2022년 한해 행복으로 가득찰 것입니다.”

용학 스님, 온라인 만남 오프라인으로 회향

〈화엄경〉 '입법계품' 온라인수강자 초청
오프라인 모임 개최해 회향 법회 열어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유튜브 채널 '용학스님TV木魚'서
1992년 불교한문경전 강의 시작
구독 22만4천여명, 영상 622개


유튜브 채널 '용학스님TV木魚(목어)' 오프라인 모임이 3월 12일부터 13일까지 경북 경주 황룡원에서 개최됐다.

유튜브 채널 '용학스님TV木魚(목어)'를 운영하고 있는 용학 스님(수암선원 주지)이 온라인으로 자신의 강의를 들어온 불자들을 위해 특별한 만남을 마련했다.

스님은 온라인 수강자 100명을 초대해 3월 12일부터 13일까지 경북 경주 황룡원에서 유튜브 채널 '용학스님TV木魚(목어)'의 오프라인 모임을 개최했다.

용학 스님은 유튜브 채널 '용학스님TV木魚(목어)'를 통해 2년 동안 〈화엄경〉 '입법계품'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는 매주 수요일마다 실시간 진행했으며, 실시간 강의에는 200여 명이 접속해 강의를 들었다.

실시간 온라인 강의는 국내의 불자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접속하는 등 많은 대중이 관심을 보였다. 실시간 강의 이후 올리는 녹화 강의도 높은 조회 수를 기록했다. '용학스님TV木魚(목어)'는 불교한문경전 전문 강의 채널로 1992년에 시작해 현재 구독자는 22만 4000여 명이며, 강의 영상은 622개에 달한다.

이날 모임은 용학 스님이 온라인으로 만난 불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직접 대면해 전하고 〈화엄경〉 '입법계품' 강의를 회향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코로나19 방역을 고려해 초청된 100여 명의 참석자들은 1박2일 동안 용학 스님의 강의를 직접 대면해 듣고 소감을 나눴을 뿐 아니라 차담 및 자유 일정으로 휴식과 힐링의 시간을 이어갔다. 행사 기간 동안의 숙박료 및 기타 비용을 용학 스님이 기부로 부담했다.

첫 모임은 먼저 '화엄경 입법계품 선재산림 회향법회'로 문을 열었다. 용학 스님을 비롯한 참가대중은 〈화엄경〉 '입법계품' 강의 회향을 기념하며 용학 스님의 강의와 '문수지남도(文殊指南圖)'를 담은 책 〈입법계품 지남도(入法界品指南圖)〉를 불전에 봉정했다.

회향법회는 상강례, 법성게, 책 〈입법계품 지남도〉 출판 봉정식, 용학 스님 및 정기란 작가 인사말,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책 〈입법계품 지남도〉는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 구법행을 떠난 내용과 색을 입힌 '문수지남도'를 함께 실어 편찬했다. '문수지남도'는 선재동자의 구법행을 묘사한 그림으로, 북송 말기에 유백 스님이 지은 〈문수지남도찬〉 속의 그림이다. 〈문수지남도찬〉은 그림 '문수지남도'에 찬(讚)을 더해 편찬한 책이다.

유백 스님은 송나라 3대 총림 중 하나인 법운사의 법수 스님 법을 이었고 황궁을 출입하며 선법(禪法)을 선양했다. 열반 후 황제가 호를 내려 불국선사라는 시호(諡號)를 받았다. '문수지남도'는 무비 스님의 염화실 강의를 안내하는 〈염화지〉 표지로도 활용됐던 것으로, 목판을 먹으로 찍어내 무채색이었지만 붓다아티스트로 알려진 정기란 작가가 색을 입혀 새롭게 제작됐다.

용학 스님은 "이번 책 〈입법계품 지남도〉에 담긴 그림 '문수지남도'는 1000여 년 만에 새롭게 색을 입어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 된 것이다. 〈염화지〉 출판을 도서출판 맑은소리맑은나라가 담당하는데 온라인 강의 때 '입법계품'을 설명하는 좋은 자료로 활용됐다. 이번 출판에도 함께 해 이렇게 좋은 책이 탄생하게 되었다. 동참하며 도움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며 특히 은사이신 무비 스님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부산 광명사
찾아가는 생명존중 캠페인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심산)가 3월 15일 부산 사상구 덕포동 광명사에서 '찾아가는 생명존중 캠페인'을 진행했다.

광명사 주지 법경 스님과 신도들은 이번 캠페인에서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서 20장과 그동안 십시일반 모은 생명나눔저금통을 보시했다.

광명사는 2017년 6월부터 지역 독거어르신을 위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도시락 배달로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는 "이번 회를 시작으로 광명사와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가 지속적으로 인연을 이어가고 생명존중과 생명나눔의 관심이 더욱 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 관음사, 틱낫한 스님 49재 회향

3월11일 수광보전, 저서 〈엄마〉 봉정도



부산 관음사(회주 지현)가 3월 11일 경내 수광보전에서 틱낫한 스님의 열반을 추모하는 49재 막재를 회향했다.

틱낫한 스님 49재에는 관음사 회주 지현 스님을 비롯해 송광사 스님들과 관음사 신도들이 동참했으며 명종 5타로 시작해 △개식 및 삼귀의 △헌향 및 헌공 △헌다 △틱낫한 스님 저서 〈엄마〉 봉정식 △대중 삼배 △입정 △영상법문 △반야심경 △추모사 △불교중창단 '연울림' 추모 음성공양 △헌화 △인사말 등으로 진행됐다.

책 〈엄마〉는 틱낫한 스님을 추모하며 제작한 스님의 저서 〈엄마〉 법공양판이다. 책 〈엄마〉를 읽고 감동을 받았던 회주 지현 스님이 절판된 것이 안타까워 플럼빌리지와 번역자 이도흠 교수의 양해를 얻은 뒤 1000권을 발행했다. 법공양을 위해 관음사 이신원 불자를 비롯해 신도들이 십시일반 동참했으며 도서출판 맑은소리맑은나라가 편집을 담당했다.

지현 스님은 책에 남긴 조사(弔辭)를 통해 "저희들의 삶과 수행의 길에 이해와 사랑 그리고 평화와 행복의 씨앗을 심어주신 스승님의 열반 소식은 밝은 한낮에 갑자기 태양이 사라진 듯한 아득함이다"며 "스승님은 눈 없는 이에게 눈이 되어주시고 손발 없는 이에게 손발이 되어서 이해와 사랑을 전하신 선지식이었다. 허공은 다함이 있을지라도 스승님의 은혜는 다할 수 없기에 마음속에 스승님의 가르침을 꽃피워서 스승님의 서원을 만분의 일이라도 갚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틱낫한 존자의 저서 〈엄마〉는 엄마의 아름답고 거룩한 사랑을 아주 아름답게 그려주었다. 저를 비롯한 수많은 독자들이 눈물을 흘리거나 통곡하면서 읽었던 책이다"고 소개했다.

관음사는 틱낫한 스님의 원적 후 경내 수광보전에 분향소를 마련해 1월 28일부터 49재를 봉행해왔다. 관음사 회주 지현 스님은 2003년 틱낫한 스님 방한 이후부터 20여 년 동안 플럼빌리지와 인연을 이어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제4회 부산불교대상 후보 공모

공모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회장 박수관)가 '제4회 부산불교대상' 수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부산불교대상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지역과 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불자를 발굴해 불교계 귀감으로 삼고자 제정했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부산불교대상 공모기간은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이다. 추천대상자는 부처님 교리 실천, 불교 발전, 사회봉사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부산의 불자 또는 불교 관련 단체로서 부산지역 사찰 대표, 부산지역 불교 관련 기관 및 단체장 2인 또는 2개 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출서류는 후보자 추천서 1부, 공적조서(공적개요, 세부공적내용) 1부, 공적 증빙서류이며, 양식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홈페이지 http://www.bbf.or.kr에서 다운로드 하면 된다.

접수는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부산시부산진구 부전로 71, 9층)로 우편 또는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심사결과는 2022년 4월 20일, 언론사 지면 및 개별 통보하며 시상은 4월 30일 오후 5시 부산시민공원 중앙 잔디광장에서 개최되는 2566 부산연등축제 행사장에서 진행된다.

대상(1명) 수상자는 상금 1000만 원과 상패, 최우수상(1명)은 상금 500만 원과 상패, 우수상(3명)은 상금 각 300만 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051)898-2672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천태종 부산 광명사, 이재동 신도회장 취임

대한불교천태종 광명사(주지 춘광)가 3월 13일 경내 지관전에서 '신도회장 취임식'을 봉행했다.



이재동 신임 신도회장은 '울타리 역할'을 강조하며 소임자로 역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이재동 신도회장은 "광명사는 불교의 참된 보살행 실천으로 부산의 으뜸가는 사찰이다. 신도회장으로 취임한 저는 주지 춘광 스님의 뜻을 받들고 신도님들을 근거리에서 외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드릴 것을 약속한다"며 "불자들이 기도하고 수행하는 데 불편 없는 도량이 되도록 돕고, 나아가 광명사 신도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동 신도회장은 주식회사 태금 대표이사이며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원 겸임교수와 총동문회 회장, 법무부 법사랑위원 통영지역연합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범어사 신도부회장과 여여정사 신도회장을 지낸 바 있으며 불자기업인으로 불교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과 대학 발전기금 등 지속적인 보시행을 실천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울산 여여선원
개원 11주년 기념법회



울산 여여선원(주지 효암)은 3월 12일 경내 대법당에서 '개원 1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울산 여여선원은 울산 공업탑 로터리에 위치해 도심포교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날 법회에는 주지 효암 스님과 이병호 울산불교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30여 명이 참석했다. 개원기념법회는 삼귀의, 반야심경, 청법가, 입정, 법문, 발원문 순으로 진행됐다. 주지 효암 스님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 동안 기념법회를 모두 취소했었다. 이번 해도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조촐하게 진행하게 되었다"며 "하지만 십시일반 나눔으로 기념법회를 회향해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울산 여여선원은 이날 백미 10kg 108포를 강원도 산불피해 이재민에게 구호품으로 전달했으며, 백미는 신도들이 십시일반 동참해 후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백만원력 결집불사

희망의 불교,
미래의 불교를 함께 열어갑시다.

백만원력 결집불사

-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분황사 건립
-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 건립
- 불교요양원 건립
- 경주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 세종시 광제사 및 한국불교문화 체험관 건립
-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
- 10.27법난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관 건립
-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 기금 조성
- 위례 상월선원 신축불사
- 나눔 및 교육기금 조성

대한불교조계종


●인도 부다가야한국사찰 분황사 건립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 건립


●세종시 광제사 및 한국불교문화 체험관 건립



●경주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모연동참안내

백만원력결집불사, 대한불교조계종 검색

NAVER daum

www.buddhism.or.kr

▶매일 발우저금통에 보시

▶정기후원(CMS) : 신청서 또는 전화신청

▶후원계좌 예금주 : 재)아름다운동행(백만원력결집)
농 협 301-0248-0882-41
국민은행 008601-04-152458
우 체 국 010579-01-005480

▶ARS 060-700-0012(한통화 3,000원)

▶문의전화 02)6273-0108, 0109

• 모아진 발우저금통은 재적사찰 또는 문의전화로 상담해주세요.
• 재)아름다운동행은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설립한 기부재단이므로 백만원력결집 공식 모금창구입니다.

해인총림 해인사, '빛장엄' 만불보전 개원

3월 12일 개원법회 성료
2년 불사 1만 불보살 봉안

광섬유 활용하여 빛으로 장엄
관음보살 · 지장보살 봉안 의미
아미타불 조명으로 법당 위치
현응 스님 "극락정토 형상화"


합천 해인사는 3월 12일 만불보전 개원법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만불보전 실내 전경.

해인총림 해인사(주지 현응)가 광섬유를 활용한 빛으로 장엄한 만불보전을 3월 12일 개원했다.

합천 해인사(주지 현응)는 3월 12일 만불보전 및 법계탑 마당에서 만불보전 개원법회를 개최했다.

해인사 만불보전은 고려시대 조성한 관음보살상과 지장보살상 복장, 개금불사와 함께 이 두 불상이 모셔진 전각으로 2020년 법당 장엄불사를 거쳐 빛과 음악, 다채로운 색으로 '화장세계'를 표현하여 새롭게 선보이게 됐다.

만불보전 불사는 2019년 현응 스님이 주지로 부임 후 성보박물관에 봉안된 관음보살상과 지장보살상을 대적광전에 봉안하기로 하며 진행됐다. 2020년 1월 10일 보살상 복장 내부 크기를 확인 하던 중 고려시대로 확인되는 사리함 등 복장물이 나오며 보살상의 조성연대 등이 밝혀졌다.

이에 해인사는 만불보전에 친견 법당을 마련하고 9개월간의 복장불사 모연을 통해 2020년 11월 만불보전에서 불복장 및 점안의식을 진행했다.

이후 만불보전 장엄 및 원불봉안 계획이 논의됐으며, 2년여 간의 불사를 통해 광섬유와 세라믹 재질을 활용한 장엄 및 원불 봉안이 이뤄졌다.

법당 상부는 빛과 색으로 장엄됐으며, 원불단과 상하벽면이 스크린화 되어 불교문양을 변화 가능한 다양한 조명으로 장엄하고, 두 보살상 사이에는 아미타불을 조명으로 형상화 했다.

이날 만불보전 개원법회에서는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을 비롯해 전계사 무관 스님, 산중원로 선용 스님,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 다주 여연 스님, 노전 유초 스님 등 사중 스님들과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은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세분 성상을 모셨을 뿐만 아니라 원불 형태로 만불을 조성해 봉안함으로서, 모든 불자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고자 했다"며 "빛 장엄이 거룩한 해인사 만불보전은 모든 불자들이 아미타불 극락정토로 왕생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현응 스님은 이어 "해인사 만불보전을 개원하면서 그동안 불보살 성상 복장 불사와 개금불사에 동참하고, 법당 조명 장엄불사, 원불봉안에 동참한 모든 불자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우리 모두 보현보살 10대 행원을 실천하면서 극락정토 무량광명세계로 나아가자"고 발원했다.

한편, 만불보전 디자인은 전상용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영상 및 음악에는 박제성 서울대학교 교수, 시공은 임병시 전흥공예 대표가 맡았으며, 5차례 '법당 장엄 및 원불 디자인'이 협의됐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선운사 불교대학 첫 졸업생 배출

제1기 44명, 기본교육과정 38명 졸업



전북 서해안 전법과 포교를 위해 설립한 선운사불교대학이 첫 번째 졸업생을 배출했다.

선운사 불교대학(학장 경우)은 3월 13일 선운교육문화회관에서 제1회 전문교육과정 졸업생 44명과 기본교육과정 1기 8명, 2기 3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졸업식에는 학장 경우 스님과 선운교육문화회관 관장 법만 스님, 고창군사회복지시설장 대원 스님, 문수사 주지 태효 스님, 임종혁 선운사 신도회장, 김용수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유기상 고창군수, 최인규 고창군의회 의장, 선운사 보은합창단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 내외빈 소개, 경과보고, 졸업증서 수여, 시상, 선물증정, 졸업식사, 졸업사, 축사, 발원문 낭독, 축가, 사홍서원,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학장 경우 스님은 졸업생 대표 정만수 학생회장에게 졸업증서를 수여했으며, 손병수 수료자에게 수료증을 전했다.

시상에서는 교구장상인 문수상에 김정식, 학장상인 보현상에 박선우, 신철희, 신인호, 송순실, 포교원장상인 관음상에 정만수, 임송연. 포교사단장상인 발원상에 조재길, 송하현, 윤이화. 강미정. 원융상에 이영숙. 배영애 졸업생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학장 경우 스님은 졸업식사에서 "선운교육문화회관은 선운사와 24교구의 원력이 담긴 상징적인 도량"이라며 "불교대학에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소중한 인연이자 기회"라고 강조했다.

정만수 학생회장은 졸업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고 부처님의 동체대비사상을 자양분 삼아 몸소 실천하고 정진하는 불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성흥사, 소외계층에 라면 50박스 전달

군산 성흥사(주지 보위)는 3월 11일 군산시 성산면 주민센터를 방문해 관내 독거 어르신 등 소외계층을 위한 라면 50박스(1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사진>

전달식에는 성흥사 회주 송월 스님과 주지 보위 스님이 참석해 김성일 성산면장에게 직접 물품을 전달했다. 물품은 성산면에 거주중인 저소득 취약계층 중 식사 준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세대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송월 스님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전달하고 싶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 성흥사 송월 스님과 불자들은 정기적으로 군산 교도소 재소자를 위한 도움을 펼쳐오고 있으며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고산 스님 부도탑, 쌍계사에 세워지다

3월 13일 고산당 혜원대종사 열반 1주기 부도제막식 봉행
'불식촌음' 가르침, 부도이름


도산문도회 스님들이 고산 스님 부도탑을 제막하고 있다.

하동 쌍계사(주지 영담)는 3월 13일 고산당 혜원대종사 열반1주기 부도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산문도회 문장인 쌍계사 주지 영담 스님을 비롯해 건당 전계제자 보광 스님, 덕민 스님, 선원수좌회 회장 일오 스님, 보인 스님, 해총 스님, 수불 스님, 경담 스님 등 스님들이 참석했다.

도원암 옆에 조성된 고산 스님의 부도탑은 높이 2m, 무게 5t 규모로, 살색과 회색, 하얀색이 들어가 있는 포천석으로 제작해 따뜻한 느낌이 나게 했다. 제작은 최인수 서울대 명예교수가 담당했다.

부도탑은 고산 스님이 생전 강조한 쌍계사의 전통 정신인 선(禪), 교(敎), 율(律), 차(茶)와 범패(梵唄) 등의 의미를 담아 스님의 견고한 성품과 높은 수행력을 형상화했다.

최인수 교수는 "고산 대종사는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엄격한 일상으로 실천하시며 '불식촌음(不息寸陰)',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고산 가풍을 세우셨기에 대종사의 유지를 후학들과 사부대중이 깊이 새기고 실천하라는 뜻에서 '불식촌음(不息寸陰)'이라는 이름 붙였다"고 설명했다. 부도탑 안에는 고산 스님 사리와 함께 생전에 사용했던 다기, 〈육조단경〉 등 경전들이 봉안됐다.

주지 영담 스님은 이날 "많은 스님과 신도들이 부도탑 제막식에 참석해줘 감사드린다. 큰스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고 어긋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고산 스님은 1933년 경남 울주에서 태어나 1945년 출가해 3년 후 동산 스님을 은사로 계를 받았다. 스님은 참선과 경전 공부, 계율 등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1950년대부터 해인사 · 청암사 등 전국 선원에서 참선 수행했다. 청암사 승가대학 등에서 강백(講伯)으로 후학양성에 나섰으며, 동산 · 석암 스님을 잇는 율사로 꼽혔다.

1975년 쌍계사 주지로 부임해 중창불사를 하며 쌍계사를 전통차(茶) 중심지로 평가받게 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등을 지냈으며, 2012년 쌍계사가 선원 · 강원 · 율원 등을 갖춘 총림(叢林) 지정으로 초대 방장으로 추대된 후에도 농사와 참선을 직접 지도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백양사 수산 스님 10주기 다례재 봉행



백양사의 큰 어른이었던 수산당 지종대종사(1922~2012) 가르침을 되새기는 추모다례재가 열렸다.<사진>

장성 백양사(주지 무공)는 3월 17일 대웅전과 조사전에서 수산 스님 열반 10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다례재에는 원로의원 성오 스님, 수좌 일수 스님, 무공 스님 등 백양사 교구 본말사 스님을 비롯해 문도대표 진각 스님, 만당 스님, 신도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지 무공 스님은 "스님께서는 청빈한 삶과 수행, 그리고 실천을 통해 살아있는 부처님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전해주셨다. 스님의 마음을 잘 받들어 후손들도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자비신행회, 도담도담 기금 500만원 전달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는 3월 17일 도계 스님의 '안아줄께! 도담도담' 기금에 500만원을 전달하고,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선물도 전했다.<사진>

이날 전달식에는 도계 스님(소원정사 주지), 이경훈, 유가림 자비신행회 이사, 박성단 남구학대아동쉼터 센터장과 봉사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도담도담 기금으로 1개 쉼터 3자매(3살 6살, 9살)에게 물품이 전달됐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용품 전달이 이뤄질 예정이다.

도계 스님은 "앞으로 지속적인 기금 마련에 불교계가 동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 정품)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공단연등(고리용)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KC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 ·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中, 5천년 불교유적 광산 채굴 재착수

2013년 중단됐던 메스아이낙 인근 550만톤 구리 매장된 것으로 추정
수천 개 달하는 유적 매장돼 주목
개발 허가한 탈레반에 비판 이어져

박정현 객원기자

중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재장악한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 정권과 손잡고 아프간 로가(Logar)에 위치한 불교유적 메스아이낙(Mes Aynak) 인근 구리광산 채굴을 재개할 예정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3월 16일 불교 매체 부디스트도어(buddhist door)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영 광산회사(MCC)는 3월 중 탈레반 정권 초청으로 카불에 방문해 구리광산 채굴 재개와 관련해 논의한다. 메스아이낙은 세계에서 2번째로 큰 구리 매장지로, 전문가들은 이 지역에 약 550만 톤의 구리가 매장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007년 아프간 정부는 메스아이낙 아래 잠재된 100조 이상 가치를 가진 구리광산 채굴권을 중국 광산회사(MCC)에 30억 달러에 팔았다. 이후 중국은 구리광산 채굴에 나섰으나 구리 시세 하락과 아프간 내전 등 요인으로 인해 2013년 채굴을 중단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해 아프간에서 미군과 유엔연합군 등이 철수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 중국이 메스아이낙 구리광산 채굴에 다시 나섰다.


아프간 로가에 위치한 불교유적 메스아이낙. 출처=부디스트도어

로가 지역 관리들은 "메스아이낙 구리광산 채굴 프로젝트를 재개하기 위한 준비가 이미 완료됐다"며 "중국 MCC는 채굴 전문가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 몇 가지 세부 내용을 조율한 후 곧장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십 개의 중국 광산 회사가 구리 자원 추출 기회를 얻기 위한 계약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문제는 메스아이낙이 5000년 된 불교유적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수십 개의 진기한 형태의 사리탑과 사찰들, 수천 개에 달하는 불교 유물들이 다량 발견돼 전 세계의 주목을 끌었다. 특히 과거 서방과 동방을 연결했던 실크로드 무역의 중심지로 꼽힌다.

유물 발굴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구리광산 발굴을 중단하라는 전 세계의 비판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특히 경제력 강화를 위해 메스아이낙 일대 개발을 허용한 탈레반 정권을 향한 비난도 들끓는 분위기다.

탈레반 정권은 그동안 박물관, 도서관 등 주요 시설에 대한 공격과 약탈을 일삼았고 예술 및 문화 활동을 금지했다. 특히 2001년 바미안에서 6세기 제작된 불상 2개와 국립박물관에 소장됐던 수많은 불상과 유물을 파괴했다.

부디스트도어 등 외신은 "탈레반 정권에 의해 지난 20년간 수많은 문화재가 파괴됐다"며 "아프간에서 역사적으로 매우 귀중한 유물들이 파괴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많은 국가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메스아이낙의 훼손 소식은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업체인 카템퀸 필름(Kartemquin Films)에 의해 2015년부터 공론화됐다. 카템퀸 필름은 당시 다큐멘터리 '메스아이낙을 구하라' (Saving Mesaynak)를 제작하고 1만 명 서명운동, 유네스코 청원운동 등을 벌였다. 카템퀸 필름은 "후손들에게 메스아이낙을 안전히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꿈"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야산 진언종 신임 법인 우츠미 쇼류 스님
〈法印〉

3월 12일, 총본산 콘고부지서 취임식

1년 간 종조 코보대사 대리 활동
법인 상징 주홍색 가사장삼 전달


제 523대 법인으로 취임한 우츠미 쇼류 스님. 사진출처=곤고부지 공식 페이스북

일본불교에서 천년 넘게 법맥을 이어오고 있는 고야산 진언종(高野山眞言宗)이 한국의 종정에 상응하는 새 법인(法印)을 맞이했다. 지난 3월 12일 고야산 진언종의 총본산 콘고부지(金剛峰寺)에서 봉행된 취임식을 일본의 '교도통신' '와카야마 TV' 등이 보도했다.

일본 최대 불교 종단 중 하나로 꼽히는 진언종. 이 가운데서도 가장 역사가 깊은 고야산 진언종이 새 법인(法印)으로 우츠미 쇼류(內海照隆) 스님을 맞이했다. 법인이란 일본불교에서 가장 높은 법계로, 불교의 핵심인 삼법인에서 유래해 승단의 가장 뛰어난 스님을 이른다.

그 시작은 864년, 당시 진언종 고승이었던 신가(眞雅)대사에게 천황이 '법인대화상'이라는 법계를 올린 것에서 유래했다. 당시 관직으로는 종2품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았다. 조정에서 선출해 법인을 임명하던 것이 중세부터는 종단 내에서 법랍에 따라 선출하게 됐다.

고야산 진언종 법인의 정식명칭은 '사무검교집행법인대화상(寺務検校執行法印大和尚)'으로 임기는 1년으로 정해져 있다. 임기 동안 법인은 종조인 코보대사(弘法大師)의 대리자로 산내의 법회와 중요한 의식에서 법주 역할을 맡는다. 종조의 대리라는 상징성에서 법인은 일상생활과 행동에 여러 제약이 따른다. 임기 중엔 고야산을 떠날 수 없고, 의복이나 음식 등도 제한된다.

올해 제523대 법인으로 취임한 쇼류 스님은 올해 세납 75세로, 고야산에서 수행정진하며 현재 고야산 산내암자인 난인(南院)의 주지를 맡고 있다.

이날 아침 쇼류 스님은 학인을 상징하는 흰 가사와 검은 장삼을 수하고 콘고부지에 입장, 경내의 불전들을 모두 참배하고 참석자들의 하례를 받았다. 쇼류 스님은 "불초함에도 순서가 되었음에 대중께선 너그러이 봐주소서"라고 하는 전통적인 인사말로 하례에 참가한 이들에게 법인의 취임을 공표했다. 이후 스님에게는 법인 상징인 주홍색 가사 장삼이 전달됐다. 박영빈 객원기자

6억 원 복권 당첨된 태국 스님, 당첨금 회향

학교 · 사원 · 자선단체에 기부
지역 주민 · 참배객에도 나눠

우연히 산 복권이 모두 당첨돼 1800만 밧(한화 약 6억 6000만 원)라는 거금을 손에 넣은 스님이 모든 당첨금을 자선단체와 지역주민들에게 회향해 화제다. 3월 7일 태국의 현지 언론 '카오소드', '더 타이거' 등은 스님의 당첨금 회향에 대해 대서특필했다.

태국 북동부 나콘파놈주에 소재한 왓 프라탓 파놈 (Wat Phra That Phanom)은 부처님 쇄골뼈를 모시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성지다. 이곳에서 10년간 수행정진한 스님이 최근 구매한 복권 3장 모두가 당첨되면서 그 유명세를 더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스님은 "10년간 사찰을 떠나지 않고 정진한 가피를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스님은 지난 3월 1일 공양청을 받아 인근 식당을 들렀다가 복권을 들고 다니며 식당 손님들에게 파는 한 여성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복권을 구입했다고 밝혔다. 스님은 "복권 역시 일종의 도박이므로 출가자가 이것을 사는 것은 계율 상 적절치 않다"면서 "그러나 코로나19로 생계거리가 끊겨 복권을 팔고 다닌다는 말에 안타까움을 느껴 몇 장을 구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권 번호는 061905로 이중 605가 타오웨수완 신상 앞에서 기도할 때 본 번호"라고 전했다. 타오웨수완은 태국에서 악귀를 막고 부를 불러주는 것으로 신앙되고 있는 신이다. 스님은 "당첨이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기에 추첨이 끝나고 3일이 지나서야 당첨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당첨금을 나눠주고 있는 스님(왼쪽)과 사찰에 모인 사람들 모습. 출처=카오소드

스님은 "당첨금은 내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전달해 준 것"이라며 이미 자신이 수행한 왓 프라탓 파놈 사원과 학교, 지역에서 사람들을 돕는 국가 및 민간 자선단체에 400만 밧(한화 약 1억 5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찰을 참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1인당 500밧(한화 약 2만 원)씩 나눠주고 있다.

당첨금을 회향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사찰로 몰려들고 있다. 3월 7일 기준으로 150만 밧이 지역주민들에게 회향됐다. 타 지역에서까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나눠주는 금액을 500밧에서 200밧로 낮추긴 했으나 매일 이른 아침부터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현지 공무원들과 경찰들이 행렬을 통제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열사병 대책으로 시간을 나누어서 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태국에서는 이처럼 스님들의 복권 당첨이 소식이 수시로 보도되고 있다. 지난 2020년 11월에도 한 스님이 동일하게 1800만 밧에 당첨돼 당첨금 전액을 희사한 바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美 교수가 말하는 '부디쉬'란?
〈Buddhish〉

살게로 교수 불교입문서 발간
신조어 통한 쉬운 불교 강조


피에르체 살게로 교수. 출처=펜 스테이트 에빙턴 대학 홈페이지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에 위치한 펜 스테이트 에빙턴(Penn State Abington) 대학 아시아 · 종교학 부교수 피에르체 살게로가 마음챙김수행 방법 등을 담은 불교입문서 '부디쉬: 20개 가이드' (Buddhish: A Guide to 20)를 발간했다. 해당 대학이 3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살게로 부교수가 발간한 '부디쉬: 20개 가이드'는 학술적인 내용이 아닌, 불교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알려주기 위한 책"이라고 소개했다.

저자 살게로 부교수는 "마음챙김 수업에 참석하기 위해 줄을 설 필요 없다"며 "이 책은 불교 수행의 가치과 전통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모두를 위한 책이며 학문적 연구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그는 이번 책을 통해 '부디쉬' (Buddhish)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 불교(Buddhism)에 '~의 성질을 가진'이라는 뜻의 접미사 '-ish'를 붙인 것.

살게로 교수는 "나는 불교와 평생의 인생을 기록하려고 한다"며 "나는 비평가이자 학자로서 불교를 연구하는 동시에 불교의 열렬한 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저서에서 살게로 부교수는 태국 사원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에서 보낸 일화를 공유한다. "지난 25년간 불교에 대한 조사와 독서의 산물을 18개월간 집필 과정에 담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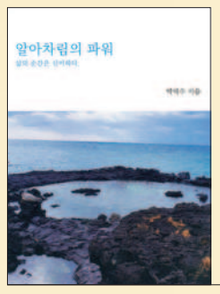
그는 "기존의 글들은 너무 건조하고 읽기 어렵다. 또 비싼 면도 있다"며 "읽기 쉽고 친근하고 저렴하게 접할 수 있는 불교 입문서를 쓰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박정현 객원기자





“명상은 타인과의 관계 회복하는 과정”



알아차림의 파워
박태수 지음
제주국제명상센터 펴냄
비매품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인간의 삶은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며, 명상은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 그리고 명상은 타인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이다.”〈재닛 서리〉

대화 과정부터 명상하는 사람과 안하는 사람은 다르다. 명상하는 사람은 상대가 자신의 감정, 생각, 기억을 말하는 동안 순간순간의 현상에 주의를 기울인다. 즉 명상하는 사람은 순간의 자각을 타인을 위해 사용한다. 상대가 지나치거나 부끄럽지 않게 하고, 공감과 함께 현재에 존재하기를 돕는다.

이 과정서 상대는 순간의 진실에 머무르는 법을 배우고, 자기를 한정시키는 집착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 지금까지 자기와 타인에 대한 고정된 관념에 집착했다면, 명상을 하면 거기서 벗어나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처럼 명상은 대인관계에서 나의 성장과 타인의 변화를 동시에 도울 수 있다. 개인은 혼자 변하기가 쉽지 않다. 상대와 주고 받는 관계를 통해 자신의 탁월함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변화는 순간을 온전히 만날 때만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명상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상대를 변화시키는 관계의 확대, 즉 세상과의 만남이 일어나게 한다.

그래서 명상은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세상을 행복하게 한다. 그렇다면 명상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나와 세상의 관계가 확대될 수 있을까?

30여년 동안 심리상담 전문가로 활동하며 현재 제주국제명상센터 이사장인 박태수 前 제주대 명예교수〈오른쪽 사진〉가 현대불교신문에 2016년부터 1년간 연재한 명상관련글들을 묶은 책 〈알아차림의 파워〉에 그 답이 들어있다.

저자는 책속에서 ‘알아차림(자각)’을 하라고 강조한다. 자신의 몸과 마음서 일어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놓치지 않고 알아차림으로써 삶을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행복해지기 위해선 꼭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체험이라고 저자는 소개한다. 저자는 머리말을 통해 “저의 70여 평생의 삶을 돌아보면, 나라고 하는 한 개인을 위한 삶이 거의 전부였다. 공부하고 가르치고 가족을 돌보며 뭔가를 성취하려는 것으로 가득찼다. 결국 ‘나’라는 것은 개인의 생각과 느낌이 전부요 그것을 빼면 아무것도 없었다”며 “이러한 나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 나만을 위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느끼고 실천하는 일이 전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나를 과감히 내려놓고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만이 의식의 전환이 일어난다. 그러면 나라는 개인 의식에서 뛰어넘어서 세상을 폭넓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책에서 나와 세상이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라고 하는 에고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허심(虛心)의 상태가 돼야 한다고 말한다.

즉 에고가 없는 상태로 상대를 만나면 매순간 상대의 몸과 마음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치 풋볼 선수가 한순간도 공을 놓치지 않고 시야에 넣어두듯이, 또한 권투 선수가 상대의 움직임을 매순간 주시하는 것처럼, 명상가는 상대의 몸과 마음의 현상을 놓치지 않고 만날 수 있다. 이것은 지금 만나는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이 연속적이고, 한 순간의 알아차림이 다음 순간의 알아차림으로 연결되며, 직전의 알아차림 순간은 현재 순간의 알아차림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면 마루바닥의 널빤지 사이에 틈이 없을 때 먼지나 모래가 그 사이로 들어갈 수 없듯이 마음에도 틈이 생기지 않으니 그 사이로 잡념이 끼어들수 없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저자는 타인을 도와주는 상담활동으로 출발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을 위한 명상활동이 더 많아졌다고 고백한다.

알아차림, 행복해지기 위한 필수 체험
나 내려놓고 세상 들어갈때 ‘의식전환’
나와세상 온전한 관계는 ‘에고’ 없애야
명상통한 의식 확대 세상 변화 가능해



하지만 저자는 명상은 얼핏보면 자신을 위한 활동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세상을 위한 타인과의 만남으로 확대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저자에게 결정적으로 명상공부와 명상포교를 위해 남은 여생을 헌신해야 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

2006년 1월1일 새벽. 인도 비하르 요가대학에서의 아침명상은 저자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았다. 저자가 명상상태로 들어가자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면서 문득 ‘내 나이가 벌써 60이구나’라는 생각이 일어났고 어릴 때 어른들로부터 “인간은 세상에 태어날 때 자기가 살 나이를 갖고 나오는데 그 나이가 60이야”라는 말씀이 떠올랐다. 그 순간 ‘내가 받은 나이를 다 살았구나. 앞으로는 남의 나이를 살게 되겠네. 남의 나이로 살면서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은 도둑의 심보야’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잠시 뒤 ‘이제부터는 남을 위해 살아야 겠구나’라는 자각이 일어나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어났다. 그리고 저자는 귀국하자마자 정년 이후 나를 위해 명상센터를 짓겠다고 사놓은 땅을 세상을 위해 내놓기로 하고 제주시 봉개동에 제주국제명상센터를 설립했다. 이후 15년 이상을 제주지역 명상포교에 전념했다. 저자는 “제 인생 과제라 할 수 있는 제주국제명상센터를 설립할 때는 나를 뛰어 넘어 이웃과 사회, 인류, 생태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를 수용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며 “이러한 설립 취지에 따라 그 실현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이를 가로막는 개인의 한계를 실감한다”고 털어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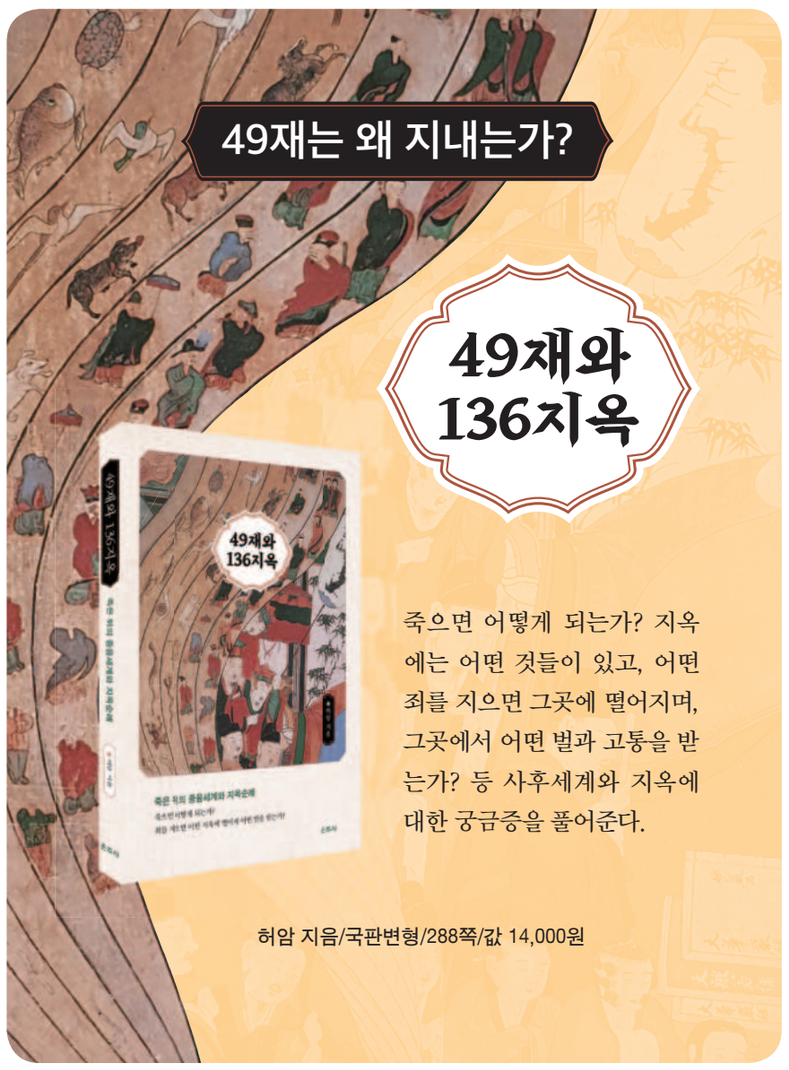
저자는 그동안 명상 멘토가 있다면 전국을 가리지 않고 쫓아가 가르침을 받았다. 지리산 백장암 용타 스님의 동사섭, 붓다락키따 스님의 위빠사나와 사마타명상, 상담심리의 스승인 이장호 · 이동식 교수, 요가명상과 아바타 전문가인 문진희 선생 등등. 하지만 저자는 가르침을 받는데만 그치고 마음 수련을 거치지 않는다면 주변 상황으로부터 쉽게 유혹 받을 수 있다고 충고한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과정에 대해 잘, 잘못을 의식하지 못한채 되풀이 한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어떤 습관이 형성되면 뇌가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완전히 중단시키는데, 명상 수련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깨어있게 함으로써 뇌의 활동을 도와 습관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저자는 책 속에서 “깨어있다는 것은 마음의 작용을 감지하고 있는 것, 즉 ‘지금’의 내 생각을 보는 것”이라며 “내 생각들을 움직이게 하는 저변의 태도와 감정을 지켜보면 내 생각동기가 불순하거나 부정적이거나 뭔가의 결핍에서 오는 것일 때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내 생각속에 그런 종류의 에너지가 들어 있음을 감지할 때는 다른 종류의 에너지로 교체할 수 있다. 그래서 생각은 때론 경험을 방해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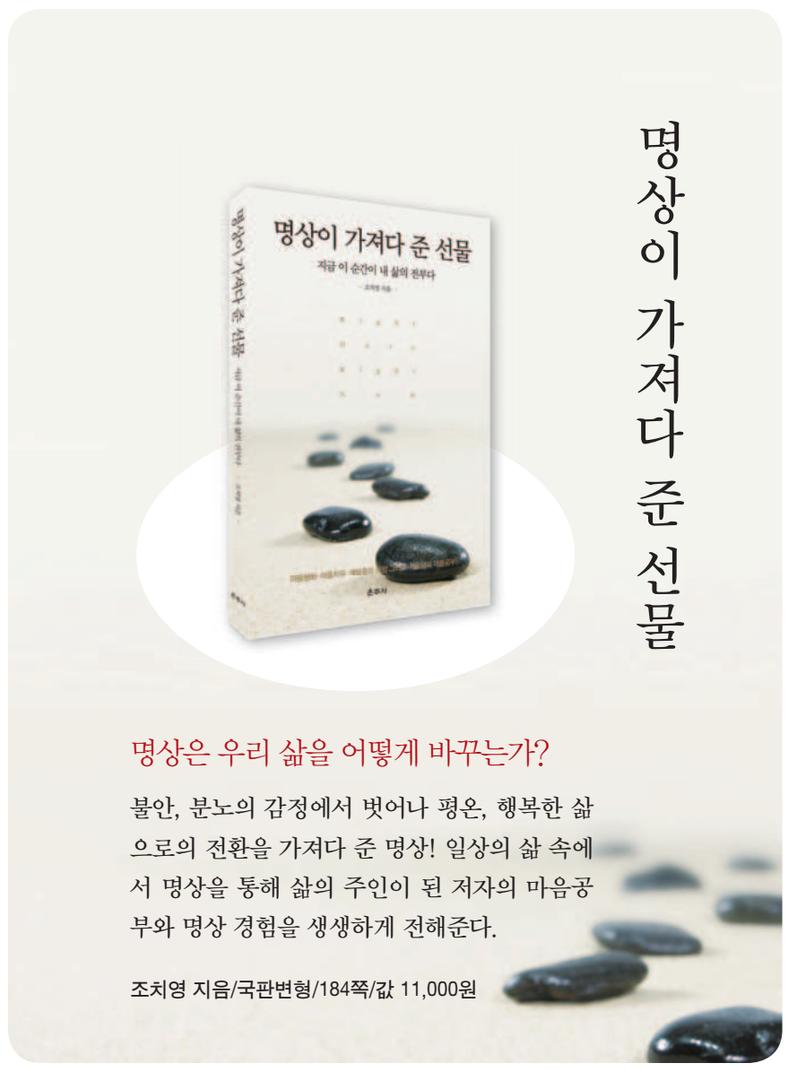
이 책은 총 5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세상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나는 어떤 생각으로 사는가 △사심없는 삶이란? △‘나’ 중심에서 ‘모두’를 위한 의식으로 △관계에서 나타나는 에고의 모습 등이다.

저자는 마지막으로 “명상을 통한 의식의 확대는 분명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며 “알아차림의 파워를 맛보는 삶의 순간은 신비하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저자 **박태수 이사장**은?
–1990. 2=중앙대 대학원 교육학(교육심리전공) 박사
–1978. 9~1988. 4=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 책임연구원
–2005. 8~2007. 8=한국상담학회(초월영성 · 집단상담 수련감독) 회장
–1988. 4~2013. 2=제주대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 교수
–2007. 2~2022. 3.=제주국제명상센터 이사장(현재)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수행속에서 실존을 어루만진 조각가

〈實存〉

‘권진규 탄생 100주년 기념–노실의 천사’ 展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3월 24일~5월 22일



권진규 조각가 ⓒ 권진규기념사업회

작품, 아카이브 등 240여 점 전시
생애 전반의 주요 작품 총망라해

2021년, 권진규기념사업회와 유족
서울시립미술관에 작품 141점 기증

화단의 몰이해로 좌절, 불교에 침잠
가시적 사물 너머의 본질 추구 몰두
“내가 평온할 땐 불상이 미소 짓고,
내가 우울할 땐 불상도 울고 있다”



사진: 권진규, 〈불상〉, 1971, 나무, 45×24.2×17.5cm, (사)권진규기념사업회 기증,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 권진규기념사업회 · 이정훈.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한국현대조각을 대표하는 조각가 권진규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가 열린다. 서울시립미술관은 3월 24일부터 5월 22일까지 서서문 본관에서 ‘권진규 탄생 100주년 기념-노실의 천사’ 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권진규(1922~1973) 작가가 일평생 ‘노실의 천사’를 구하고자 했던 여정을 따라 1947년 그가 본격적으로 미술에 입문한 성북회화연구소(1946~1950)시절부터 1973년 5월에 생을 마감할 때까지의 주요 작품을 총 망라했다. 조각, 드로잉, 유화, 아카이브 등 240여 점을 선보인다.

‘노실의 천사’는 1972년 3월 3일 〈조선일보〉 연재 기사 ‘화가의 수상’ ⑧에 실린 권진규의 시, ‘예술적(藝術的 산보) - 노실(爐室)의 천사(天使)를 작업(作業)하며 읊는 봄, 봄’에서 인용했다. 비장함마저 느껴지는 이 시는 그의 예술에 대한 태도, 작업 대상, 작업 방법, 추구하는 바, 삶의 회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까지 낱낱이 담고 있다. 그의 시구 “진흙을 씌워서 나의 노실(爐室)에 화장(火葬)하면 그 어느 것은 회개승화(悔改昇華)하여 천사(天使)처럼 나타나는 실존(實存)을 나는 어루만진다.”에서 노실은 가마, 또는 가마가 있는 아틀리에를 의미한다. 따라서 ‘노실의 천사’는 그가 작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했던 이상, 즉 승화된 존재, 순수한 정신적인 실체로 볼 수 있다.

2021년, 권진규기념사업회와 유족은 많은 사람들이 권진규 작품을 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서울시립미술관에 작품 총 141점을 기증했다. 기증 작품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에 이르는 조각, 소조, 부조, 드로잉, 유화 등으로 다양한데, 특히 1950년대 주요 작품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미술관은 기념사업회와 유족의 뜻을 기리고, 2022년 권진규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고자 회고적 성격의 전시로 ‘권진규 탄생 100주년 기념 - 노실의 천사’를 마련했다.

이번 전시는 그가 평생을 불교와 함께 해 왔다는 점에 착안하여 시기별로 입산(入山, 1947~1958), 수행(修行, 1959~1968), 피안(彼岸, 1969~-1973)으로 전개된다. 세속적 삶을 떠나 고독한 미술의 세계로 입문하여 평생을 수행하듯 작업에 임했지만 살아생전 한국화단의 몰이해로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불교에 더욱 침잠하다가 결국은 스스로 세상을 등질 수밖에 없었던 그의 삶과 작업을 그대로 담았다.

일반적으로 그의 작품은 ‘지원의 얼굴’ (1967)로 대표되는 여성흉상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동물상, 여성두상, 여성상, 자소상, 부조를 비롯해서 불상, 탈, 가면, 기물, 잡상, 유화, 드로잉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는 자신을 예술가이기 전에 장인으로 칭했고, 그 옛날 이름 없는 장인들이 남긴 문화유산에 큰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작품의 대상이나 크기에 따른 특별한 위계를 두지 않았다. 다만 그는 일관되게 눈에 보이는 사물 너머 존재하는 본질을 추구했고, 이를 위해 동양과 서양의 고대 유산을 참조, 자신만의 강건하고 응축된 형태를 통해 영원성을 구현했다. 이는 그가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온 썩지 않는 테라코타와 방부 · 방습 · 방충에 강한 건칠로 작품을 제작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의 예술관인 영원성, 전통의 현대화와 맞닿아 있는 테라코타와 건칠 제작과정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장을 마련, 그의 독자적인 작품세계 형성에 대한 기초적이면서도 충실한 이해를 돕고자 했다.

“나의 마음이 평온할 때는 불상이 미소 짓고 있지만 나의 마음이 우울할 때는 불상도 울고 있다.” 그의 작품 중에는 불상과 보살상이 다수 있다. 그에게 불상은 종교적 숭배나 구원의 상징물을 넘어 그 자신을 표현하는 매개체였다. 그는 광복 후 1947년 성북회화연구소에 다니며 속리산 법주사 미륵대불 마무리 작업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때의 경험이 훗날 그가 조각을 전공하고 불교의 명상적 이미지를 재현하는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권진규 작가는 당시 어떤 사조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은 채, 다양한 레퍼런스를 반영하면서 작품에 몰입하여 자신만의 모더니티를 구현했다. “진실의 힘의 함수관계(函數關係)는 역사가 풀이한다.”는 그의 시구처럼, 동양과 서양, 구상과 추상, 주제, 재료, 기법 등에 있어서 어떤 제약도 없는 동시대 미술에서 그의 작품이 갖는 의미를 편견 없이 새롭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다.

이번 전시는 시기별로 변화하는 권진규 작가의 작품 세계 전반을 이해할 수 있으며, 그가 영감을 받은 공간에서 그의 작업세계를 깊이 느낄 수 있다. 그의 주요 제작 기법인 테라코타와 건칠 제작 과정을 볼 수 있으며, 작품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권진규 작가의 작품세계 형성에 있어 기반이 된 아카이브와 드로잉에서 그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전시에서는 허명회 고려대 명예교수와 허경회 권진규기념사업회 대표가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 특별 도슨트로 참여한다.

권진규는 1922년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늑막염에 걸려 투병하다가 16세가 되어서야 보통학교를 졸업했다. 춘천중학교를 졸업하고, 1942년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의 사설 미술 아틀리에에서 미술 수업을 받았다. 1948년 도쿄예술원에 들어가 미술교육을 받았고, 1949년에는 무사시노 미술학교 조각과에 입학하여 조각을 본격적으로 공부했다. 1952년 일본의 제37회 이과전에서 ‘백주몽(白晝夢)’으로 입상했고, 무사시노 미술학교를 졸업한 1953년에는 제38회 이과전에서 ‘마두(馬頭)’로 최고상을 수상했다.

1959년 귀국하여 동선동에 작은 집을 장만하고 마당에 손수 설계한 9평짜리 작업실을 마련했다. 이 작업실에서 경복궁 난간의 십이지상, 남대문 용마루 잡상 등을 스케치하는 등 전통문화에 몰두했으며, 새로운 부조작업과 오래된 공예기법인 건칠(乾漆)을 조각의 기법으로 발전시키는 시도를 모색하기도 했다. 그는 생전에 3회에 걸쳐 개인전을 열었다. 1965년 서울 신문회관에서의 제1회 개인전을 시작으로 일본 니혼바시 화랑에서 제2회 개인전, 그리고 명동화랑 1주년 기념초대전으로 3번째 개인전을 열었다. 1973년 5월 3일, 51세로 생을 마감했다. 그의 작업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아틀리에는 2004년에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보존되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 ‘불상’ (1971년), ‘보살입상’ (1955), ‘자소상(自塑像)’ (1966), ‘여인좌상’ (1972) 등이 있다. (02)2124-8800.



자명 스님 9번째 USB 앨범 발매

‘저기 배가 오네’ 등 신곡 7곡과
기발표 커버 16곡, 찬불가 10곡
10년 문화 포교 역정 결산 의미

문화공양주 자명 스님(영덕 기원정사 주지)이 9번째 USB 앨범〈사진〉을 발매했다. 자명 스님은 자신에게 ‘문화공양주’라는 소임을 부여하고 땡큐붓다콘서트와 천도재니르바나 등 문화포교 콘텐츠를 통해 불법(佛法)의 홍포와 한국불교의 대중화를 선도하고 있다.

이번 음반은 자명 스님의 10년간의 문화포교 역정을 결산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타이틀곡인 ‘저기 배가 오네’를 비롯해 ‘부지불각중’, ‘불자라는 이유로’, ‘석가여래 오시었네’, ‘해조음소리’, ‘참회와 원성취를 위한 만트라’, ‘나무약사여래불’ 7곡의 신곡을 담았으며, 범능 스님, 도신 스님, 심진 스님 등 여러 스님들의 기 발표 곡을 커버한 10곡과 기 발표 찬불가 16곡을 더해 총 33곡을 담았다.

특히 타이틀 곡 ‘저기 배가 오네’의 가사는 자명 스님이 자신의 유언장을 써 내려가듯 직접 쓴 시로 기대로 모으고 있다.

2012년 찬불가 음반 1집 ‘연꽃을 만나고 가는 바람처럼’을 발표하면서 음악을 통한 문화포교를 시작한 자명 스님은 2013년부터 ‘땡큐 붓다콘서트’ ‘뮤지컬 천도재 니르바나’ 등 매년 새로운 문화포교 프로젝트 공연을 선보이며 ‘문화공양주’로서의 원력을 회향해왔다. 특히 2019년 6월 16일 서울 더케이아트홀에서 있었던 뮤지컬 ‘천도재 니르바나’는 대작불사로 회향했다.

박재완 기자

일일시호일

뇌출혈·골절상으로 혼수상태 빠진 가장의 사투

네팔 이주노동자 케빈씨…가족 위해 공장일에 배달까지
오토바이 충돌 사고로 사경 헤매…병원비 4000만원 훌쩍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조선시대 불서 속 人名 '총망라'

동국대 불교학술원 · 순천대 남도硏 '조선 불서인명 DB' 공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선불교 전적 1214종 조사
9만 3415명 인명 파악 입력
지역 · 소임 등 상세 분류해
"화승 등 계보 파악에 도움"

조선시대에 간행된 불교 전적에 등장한 인물들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데이터베이스(DB)'가 공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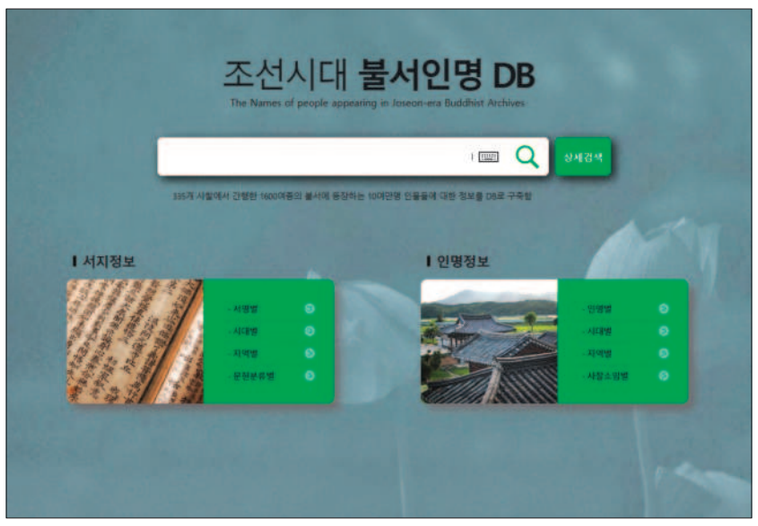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소장 이욱)는 3월 14일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자광)이 운영하는 '불교기록유산 아카이브'를 통해 '조선시대 불서인명 DB'를 공개했다.

'조선시대 불서인명 DB'는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조선시대 간행 불교 서지 인명 DB 구축 사업'의 결과물이다.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는 3년 동안 총 1214종에 달하는 조선시대 사찰 간행 불교 전적을 조사했으며 이 중 인명이 수록되지 않은 89종을 제외한 1124종의 불서 인명 정보를 DB로 구축했다. 이를 통해 확인된 조선시대 불교 전적 속 등장인물은 총 9만 3415명에 달한다. 1종당 77명의 인물이 등장한 셈이다.

'조선시대 불서인명 DB'는 서지 정보와 인명 정보로 나눠 정보를 제공한다. 서지 정보는 △서명별 △시대별 △지역별 △문헌분류별로, 인명 정보는 △인명별 △시대별 △지역별 △사찰소임별로 세분화돼 검색하도록 했다.

제공 정보에 대한 내용들도 매우 디테일하다. 서지 정보에서는 △서명 △간행지 △간행처 △간행년 △총책수 △변란(邊欄, 판면을 둘러싼 먹줄) △광곽(匡郭, 서책 책장의 사주를 둘러싸고 있는 검은 선)크기 △행자수 △어미(魚尾, 물고기 꼬리 모양의 접지표) △변상(變相) △간기(刊記) △서발문 △합집여부 △분류 △소장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된다. 인명 정보에서는 △인명위치 △간행역할 △사찰소임 △겸직 △품계(品階) △법계(法階) △법호(法號) △당호(堂號) △승속구분 △호칭 △가족(사승)관계 △소속 지역 △소속 사찰 등의 상세한 인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3월 14일 동국대 불교학술원이 운영하는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를 통해 공개된 '조선시대 불서인명 DB'의 화면 모습.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가 3년 동안 조사한 불교 전적 속 등장인물 정보가 수록돼 있다.

이 같은 인물 정보DB는 향후 불교사 연구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제, 대다수의 조선시대 간행 불서들은 서문과 발문들이 수록됐고, 간행 배경과 동기, 참여자들의 정보를 담고 있다. 이를 분석하게 되면 조선시대 불서 간행의 유통 경향이나 지역별 간행 불서 특성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불서 간행에 참여한 다양한 계층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된 만큼 조선 초기부터 후기에 이르는 방대한 인명을 채록한 인명사전 편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의 연구 성과가 동국대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에 탑재된 것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통합대장경 · 한국불교전서 · 고려 교장을 비롯해 변상도 · 근대불교잡지 · 근대불교문헌 등 한국불교 전반 기록이 망라된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에 '조선시대 불서인명DB' 탑재됨에 따라 연구 활용도가 높아졌다는 평가다.

책임연구자인 이종수 순천대 사학과 교수는 "조선시대 불교 전적에 대한 연구가 산발적으로 이뤄져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기 어려웠고, 그러다보니 수많은 불교 전적에 기록된 인물에 대한 DB 구축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이번 연구 사업으로 9만여 명에 달하는 조선불교 전적 속 인물들을 확인하고 망라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인명이나 서지를 개인 연구자가 확인하려면 1, 2년 발품을 팔아야 한다. 이 같은 기초 연구는 후대 불교사 연구자들의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동국대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에는 한국불교 서지 기록 전반이 망라돼 있다. 조선시대 불서 인명 DB를 이곳 아카이브에서 활용하는 게 연구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며 "모두 불교학 발전을 위한 일"이라며 밝혔다.

발굴해도 안풀리는 '황복사지' 수수께끼

문화재청 발굴 성과 학술대회
전문가들 "정체불명" 한목소리
왕경사찰로서 역할한 것 추정

보통 절터를 발굴하면 그 사찰의 명칭과 사세, 면모가 확인된다. 하지만, 조사를 하면 할수록 수수께끼인 절터가 있다. 바로 경주 황복사지다.

경주 낭산(사적)의 북동쪽에 위치하는 황복사지는 654년(진덕여왕 8년)에 의상 스님(625~702)이 출가한 곳으로 알려진 유서 깊은 고찰이다. 1942년 황복사지 삼층석탑(국보)을 해체 수리할 때 발견된 사리함서 '종묘성령선원가람(宗廟聖靈禪院伽藍)'이라는 명문이 확인되며 종묘적 기능을 한 왕실사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경상북도, 경주시와 함께 이런 황복사지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시 · 발굴조사를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했고, 다양한 유구와 유물을 확인했다. 3월 17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문화재청 주최 학술대회는 그간 황복사지 발굴조사 성과와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이날 발표를 진행한 전문가들은 황복사지가 아직 정체가 명확하지 않은 사찰임에 동의했다.



경주 황복사지 발굴 중 확인된 십이지신상 기단 건물지.

기조 강연을 진행한 주보돈 경북대 명예교수는 "새로 출토된 고고자료가 논란됐던 문제점을 부분적이나마 풀어주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하지만 황복사지 발굴로 얻어낸 자료들은 그런 과제를 풀기는커녕 오히려 더 미궁 속으로 빠트린 듯한 느낌이 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낭산에 들어선 것으로 추정되는 중생사나 능지탑 등도 사천왕사 이후에 창건됐다. 그럼에도 선덕여왕 대에 창건된 것으로 보이는 황복사만이 예외적으로 사천왕사보다 앞서 맨 먼저 낭산에 창건된 사찰로 보는 건 부자연스럽다"면서 "황복사지를 황복사로 보기는 어렵다. '사리함기'가 보여주듯이 '종묘성령선원'의 성격을 띤 가람 정도로 불러둠이 가장 무난하다"고 주장했다.

김지현 동국대 경주캠퍼스 강사는 '황복사지'라는 명칭 대신 '구황동 사지'로 이름을 변경해 황복사지 삼층석탑과 사지의 관계를 고찰했다. 그는 중심의 목탑지로 추정 유구를 종루나 경루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또한 "황복사지를 신문왕이 죽고 난 뒤 그의 명복을 기리기 위한 사찰로 석탑이 조성됐다"고 추정했다.

신성민 기자

'염처경'으로 살피는 '마음챙김'

불교심리치료학회 4월 22~23일 세미나

1979년 존 카밧진(John Kabat-Zinn)이 개발한 MBSR(마음챙김에 근거한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은 여러 심리 치료에 효과가 입증되면서 '마음챙김' 열풍을 불러 일으켰다. 한편으로는 '맥마인드풀니스(McMindfulness)'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프랜차이즈 명상 훈련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는 서구에서 개발된 '마음챙김'이 정통성을 인정받고 싶을 때에는 불교에 기대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교와 관련없음을 강조하는 이중적 정체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마음챙김'의 시작은 붓다에 의해 창안된 수행 방법인 '팔정도' 중의 하나인 '정념(samma - sati)'과 관련 있으며, 이를 〈염처경(Satipatthana)〉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서구적 마음챙김과 불교 전통의 마음챙김 수행을 비교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는 오는 4월 22일 오후 7시30분, 4월 23일 오전 10시 2차례에 걸쳐 온라인 줌을 통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보다 깊이, 다시 보는 마음챙김- 염처경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카이스트 명상과학연구소장 미산 스님, 김재성 능인대학원대학 명상심리학과 교수가 발표를 진행한다. 발표 뒤에는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 운영위원들이 참여하는 토론도 이뤄진다.

참가 희망자는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해 이메일(kabp@daum.net)로 접수하거나 http://bit.ly/2022KABP로 신청한 뒤 참가자 이름으로 참가비를 입금하면 된다. 참가비는 일반인은 5만 원, 학생은 3만 원이다.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는 "마음챙김 본연의 의미를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010)2217-6921

신성민 기자

근대 풍경 속 마산 정법사를 읽다

정법사, 4월 8일 창건 110주년 기념 학술대회

올해로 창건 110주년을 맞은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가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정법사와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는 오는 4월 8일 오전 10시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의 근대 풍경'을 주제로 창건 11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연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1912년 창건된 정법사가 근대기 마산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했으며 대중포교를 해왔는지 고찰한 연구 논문들이 발표된다.

신용철 양산시립박물관장은 '마산 포교당 정법사 대부모은중탑 고찰'을, 김규순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마산포에 있어서 마산포교당의 지리적 상징성'을, 제점숙 동서대 아시아학과 교수는 '마산포교당의 교육사업 현황과 역사적 의의'를 각각 발표한다.

(055)246-8393

신성민 기자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58



▶ 59회 예고

수시마는 탁실라에서 일어난 소요 때문에 귀국명령을 받고도 떠나지 못한다. 특사가 나서서 메뚜기떼 습격으로 농사를 망친 농민들에게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약속한다. 소요가 사라지자, 수시마는 호위를 받으며 탁실라를 떠난다.

탁실라, 뜻밖에 소요가 일어나다

탁실라에 도착한 빠딸리뿌뜨라 왕궁 친위대 조장은 칼라따까 수상의 지시대로 특사를 먼저 만났다. 특사는 원래 수시마 부왕이 특별휴가를 받아 빠딸리뿌뜨라에 와 있을 때 대리통치를 위해서 부임해 왔는데, 아직까지도 남아서 활동하고 있었다. 특사의 임무는 수시마 부왕을 보좌하면서 통치를 자문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특사나 친위대 조장 모두 칼라따까 수상의 심복이라고 할 수 있었다. 친위대 조장은 빈두사라왕의 건강 소식부터 전했다.

"대왕님께서는 매우 위중하십니다. 갑자기 어떤 상황을 맞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대왕님께서는 여전히 수시마 부왕님을 총애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온 것도 대왕님의 명령서를 수시마 부왕님께 전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특사는 명령서의 내용을 보지 않고서도 예견했다.

"귀국명령서겠지요."

"예, 대왕님께서는 수시마 부왕님을 곁에 두고 싶어 하십니다."

"부왕님께 왕위를 물려주고 싶으신 것이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마우리아왕국의 흥망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이오."

"특사님, 그렇다면 대왕님의 명령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대왕님 명령서이니 달리 방법은 없소."

"명령서를 꺼내 불살라 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사가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손사래를 쳤다.

"대왕님 명을 이행치 않는 것은 왕명거역죄로서 극형에 처해지는 중죄지요. 그대는 대왕님을 지근거리에서 호위해온 친위대 조장이오. 그러니 그럴 수는 없소."

친위대 조장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자 특사가 말했다.

"대왕님 명을 거역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있소."

"특사님,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해낸 비책은 아니오. 칼라따까 수상님께서 나에게 알려준 것이오."

친위대 조장이 고개를 숙였다. 칼라따까를 믿고 탁실라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는 특사에게 존경하는 마음이 들어서였다.

"나는 그동안 수시마 부왕님의 통치에 불만을 가진 토착 성민들에게 다가가 달래는 일을 해왔소. 그것도 부왕님을 돕는 일이었소. 이제 그들은 내 편이 되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게 돼 있소."

특사가 토기사발에 짜이를 따라 친위대 조장에게 권했다. 짜이는 염소젖에 사탕수수 즙을 탄 피로회복제나 다름없었다. 친위대 조장은 짜이를 단번에 마셨다. 특사가 웃으며 말했다.

"빠딸리뿌뜨라에서 오는 길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오."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말을 잘 타는 기병들을 차출해 왔습니다."

"군사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하시오. 다시 빠딸리뿌뜨라로 돌아가야 하니까."

"특사님께서 회유한 성민들을 어떻게 이용하실 생각이십니까?"

"농사짓는 성민들인데 그들을 동원할 것이오. 작년 메뚜기떼 습격으로 밀과 옥수수농사를 망쳤는데 세금을 그대로 내야 하니 불만이 많소. 소요가 일어나면 수시마 부왕님은 탁실라를 떠나지 못할 것이오. 소요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빠딸리뿌뜨라로 출발하겠소?"

친위대 조장은 또 다시 고개를 숙였다. 마우리아왕국을 위해서 빠딸리뿌뜨라에서의 호의 호식을 버린 채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특사가 달리 보였다.

"놀랄 것은 없소. 내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칼라따까 수상님의 비책이오."

"아, 저에게도 칼라따까 수상님께서 내린 지시가 있습니다."

"무엇이오?"

"꾸날라 왕세자님을 모시고 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건 어렵지 않은 일이오. 부왕님께서도 꾸날라 왕세자님을 빠딸리뿌뜨라로 보내고 싶어 하시니까. 내가 보기에 꾸날라 왕세자님이 향수병에 걸린 것 같소. 밤이 되면 두견새처럼 구슬픈 노래를 부르며 성 안을 돌아다닌다고 하오. 부왕님도 조카가 그러하니 마음이 아프지 않겠소?"

친위대 조장이 방법을 찾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특사님, 수시마 부왕님께서 빠딸리뿌뜨라로 돌아가실 때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그러나 그 시기는 알 수 없소. 소요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성민들을 언제 만나실 것입니까?"

"그대가 수시마 부왕님께 귀국명령서를 전달하는 그 시각이오. 준비는 다 되어 있소."

"예, 알겠습니다."

탁실라는 빠딸리뿌뜨라처럼 내성과 외성이 따로 없었다. 왕궁은 작았고 왕궁 주변에는 성민들의 크고 작은 벽돌집과 진흙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특사가 거주하고 있는 관사도 크지는 않았다. 정원이 단정하게 가꾸어져 있었고, 담은 관사가 훤히 보일 만큼 낮았다. 정문에는 군사 두 명이 보초를 서고 있었다. 친위대 조장은 보초 한 명을 따라서 탁실라 왕궁으로 들어갔고, 특사는 상인들이 사는 거리로 내려갔다. 상인들 중에는 무역으로 부호가 되어 용병과 사병을 둔 사람도 있었다. 빠딸리뿌뜨라나 바라나시 같은 먼 도시로 무역하러 떠날 때는 호위군사가 필요했던 것이다.

친위대 조장은 왕궁 정문에 이어 부왕접견실 문 앞에서도 간단한 검문을 받았다. 그러나 빈두사라왕 이름으로 된 통행증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거칠 것이 없었다. 부왕접견실은 초라했다. 가구들은 낡았고 화병에 꽂힌 꽃들은 시들어 있었다. 그런 탓인지 활기는커녕 침울한 공기가 감돌았다. 친위대 조장은 창 옆에 서서 수시마 부왕을 기다렸다.



그러나 수시마 부왕은 바로 오지 않았다. 대신 소년이 나타났다. 친위대 조장은 왕족만 입는 남색비단 도티를 보면서 꾸날라라고 짐작했다. 소년이 말했다.

"빠딸리뿌뜨라에서 오셨지요?"

"예, 대왕님 명을 받고 부왕님을 뵈러 왔소."

"백부님께서 말씀했어요."

"아, 꾸날라 왕세자님이시군요. 부왕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경비대장을 데리고 성 밖으로 나가셨어요. 오늘은 승마하는 날이거든요."

"승마는 얼마나 하십니까?"

"길게 하실 때도 있고 짧게 하실 때도 있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대왕님 명을 전달해야 하는데..."

꾸날라가 갑자기 애처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빠딸리뿌뜨라로 돌아갈 때 나를 데려다주세요."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왕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친위대 조장은 진심으로 대답했다. 아쇼까 부왕이 아들 꾸날라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할지 상상이 되어서였다. 특사의 말대로 꾸날라가 향수병에 걸려 있다면 빠딸리뿌뜨라로 돌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자신도 탁실라에 오는 동안 내내 아내와 꾸날라 또래의 아들이 그리워지곤 했던 것이다. 친위대 조장이 호의적으로 대답해주자 꾸날라가 기뻐하면서 부왕접견실을 나갔다.

"백부님이 어디 계신지 알아볼게요!"

친위대 조장은 긴장을 풀었다. 수시마 부왕을 바로 만나지 않았으므로 여유가 생겼다. 수시마 부왕을 만나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늦어졌기 때문이었다. 지금쯤 특사는 성민들을 만나고 있을 터였다.

이윽고 수시마 부왕이 경비대장과 함께 접견실에 나타났다. 친위대 조장은 무릎을 꿇고 보고했다.

"위대한 마우리아왕국 대왕님의 명을 받고 왔습니다. 저는 빠딸리뿌뜨라 왕궁 친위대 조장이옵니다."

"먼 거리를 오느라 수고가 많았소. 대왕님의 명령서를 보여주시오."

친위대 조장이 품속에서 빈두사라왕의 도장이 찍힌 명령서를 내밀어 올렸다. 명령서에는 빠딸리뿌뜨라로 돌아오라는 것과 특사에게 탁실라 통치를 위임하라는 것, 두 가지가 적혀 있었다. 수시마 부왕은 믿어지지 않는 듯 두 번을 읽고서는 소리쳤다.

"아! 이제 빠딸리뿌뜨라로 돌아가 대왕님을 뵙게 됐소. 희소식을 가지고 온 그대에게 무슨 말로 치하할지 모르겠소."

"부왕님이시여, 저는 대왕님 명을 받고 온 것뿐입니다. 대왕님 명대로 했으니 부왕님을 모시고 무사히 돌아갈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릴 것 없소. 당장 내일이라도 떠날 것이오. 특사가 있으니 이곳을 맡기고 떠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오."

수시마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향수병에 걸린 사람은 꾸날라가 아니라 수시마 부왕 같았다. 수시마의 신임을 받아왔던 탁실라 출신 경비대장은 빈두사라왕의 명령이므로 아무 말도 못했다. 친위대 조장이 말했다.

"제 생각입니다만 꾸날라 왕세자님도 함께 가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당연하지요. 조카도 데리고 가겠소."

그런데 그때 왕궁 밖 멀리서 고함소리가 들려왔다. 고함소리뿐만 아니라 북소리까지 둥둥둥 울려왔다. 수시마 부왕은 탁실라에서 두 번이나 반란을 겪었던 기억이 선명했으므로 놀란 채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무슨 소리요?"

"제가 나가 보겠습니다."

"무슨 일인지 빨리 알려주시오."

경비대장이 나가려는 순간 특사가 달려들어 왔다. 수시마 부왕이 특사에게 다가가 물었다.

"성민들이 왜 소리치고 있소?"

"소요입니다. 누군가가 성민들을 선동한 것 같습니다."

경비대장은 다시 접견실로 들어와 앉았다. 수시마는 특사와 경비대장에게 대책을 물었다.

"어찌했으면 좋겠소?"

"수괴가 일으킨 반란이 아니라면 성민 유지와 대화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비대장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특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무력진압보다는 대화로 수습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수시마의 얼굴은 어두워졌다. 평정심을 잃어가는 듯 시선을 한 곳에 두지 않고 두리번거렸다. 경비대장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특사는 무슨 말을 하려다가 멈추었다. 모두가 입을 다물고 있자 수시마가 참지 못하고 말했다.

"대왕님 명은 어찌해야 할 것 같소?"

"명을 따르시되 소요가 있으니 조금 미루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소요를 수습하신 뒤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소. 급한 불을 먼저 끄는 것이 부왕의 임무일 것 같소."

결국 수시마 부왕은 빠딸리뿌뜨라로 가는 출발 날짜를 늦추었다. 소요가 일어났는데도 방치하고 떠날 수는 없었다. 수시마는 경비대장을 성민들에게 보냈지만 성민 대표는 수시마 부왕과 직접 대화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작년에 메뚜기떼 습격으로 농사를 망쳤으므로 세금을 감면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수시마로서는 혼자 결정할 수 없었다. 빠딸리뿌뜨라 왕궁에서 허락해줘야 가능한 일이었다.〈계속〉



김진무의 중국불교의 고승들 ❻ 구마라집(鳩摩羅什)



▶ 한줄 요약
동진십육국 시기에 들어서 중국불교에는 사상적으로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구마라집이다. 반야학 정립의 초석을 마련하고 중국불교의 사상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실상론'으로 중국반야학 초석 다져

동진십육국 시기에 들어서 중국불교에는 사상적으로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구마라집(鳩摩羅什, 혹은 鳩摩羅什婆, 344~413)이다. 그의 전기는 〈고승전〉 권2, 〈출삼장기집〉 권14 등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그의 부친 구마염(鳩摩炎)은 본래 천축국(天竺國)의 승려로서 구자국(龜玆國, 현 新疆 疏勒)의 왕이 국사(國師)로 임명하였지만, 왕의 여동생이 그에게 반하자 왕은 그 둘을 강제로 결혼시켰다. 그 여동생은 두 아들을 낳았지만, 오히려 불법에 귀의해 7살의 구마라집과 함께 출가하여 수행하였다. 이후 구마라집은 모친과 서역의 여러 나라를 유행하면서 아비담(阿毘曇) 등의 이른바 '소승'에 통달하였지만, 수리야소마(須利耶蘇摩)로부터 '대승'의 가르침을 받고, "내가 옛날에 소승(小乘)을 배운 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황금을 알지 못한 채 놋쇠를 가지고 가장 훌륭한 것으로 여긴 것과 같구나."라고 탄식하였고, 이로부터 대승경전들을 널리 구하고, 〈중론(中論)〉, 〈백론(百論)〉, 〈십이문론(十二門論)〉 등을 암송하였다고 한다. 그 후 20세에 다시 구자국으로 돌아와 구족계를 받고, 비마라차(卑摩羅叉)에게 〈십송률(十誦律)〉을 배웠다.

후에 모친은 수행을 위하여 천축국(天竺國)으로 떠나면서 구마라집에게 중국에 가서 법을 펼 것을 권하면서, 그렇지만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자, 구마라집은 "만약 반드시 큰 교화(대승)를 전하여 몽매한 세속을 깨닫게 할 수만 있다면, 비록 끓는 가마솥에서 몸이 삶아지는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한(恨)이 없을 것입니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로부터 중국에 대승을 전하고자 발원했음을 엿볼 수 있다.

이후 건원 18년(382) 전진(前秦)의 부견(符堅)이 군사를 일으켜 여광(呂光)으로 하여금 구마라집을 모셔오라고 하였으나, 그 사이에 부견은 요장(姚□)에게 살해당하자 여광은 관외에 나라를 세웠다. 〈고승전〉 등의 전기에서는 여광이 불법을 중시하지 않았던 까닭에 구마라집을 상당히 괴롭힌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후에 요장의 아들 요흥(姚興)이 홍시(弘始) 3년(401)에 다시 군대를 파견하여 구마라집을 장안(長安, 현 西安)으로 모셔왔는데, 여광에게 잡힌 지 17년만이고, 구마라집의 58세의 일이다. 그렇지만 이 기간에 구마라집은 중국의 언어뿐만 아니라 사상과 문화에 대하여 상당히 깊이 있게 이해하고, 법을 펼칠 준비를 했다고 추정된다.

장안에 도착한 이후, 후진의 군주 요흥의 극진한 환대를 받았지만, 요흥은 구마라집의 총명을 계승하는 후손을 얻어야 한다는 이유로 10명(혹은 12명)의 부인을 하사하였다. 그 이후 구마라집은 승방(僧房)에 기거하지 않았고, 강설(講說)할 때에도 항상 "비유하면 더러운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는 것과 같다. 다만 연꽃만을 취하고 더러운 진흙은 취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한다. 구마라집은 홍시 15년(413) 4월에 장안의 대사(大寺)에서 70세로 입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십송율(十誦律)〉을 미처 번역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만약 내가 번역하여 옮긴 것에 잘못이 없다면, 화장한 후에도 내 혀만은 불에 타지 않을 것이다."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입적 후에 소요원(逍遙園)에서 의식에 따라 화장하였는데, 오직 그의 혀만은 재가 되지 않았다고 전한다. 현재 감숙성(甘肅省) 무위현(武威縣)에 '설탑(舌塔)'이 있는데, 바로 구마라집의 훼손되지 않은 혀를 모신 것이라는 전설이 전해진다.

구마라집은 58세에 중국에 들어와 70세에 입적하기까지 12년의 짧은 기간이지만, 그가 번역한 경전은 상당히 많다. 〈출삼장기집〉에 따르면, 35부 294권이며, 〈개원석교록〉에는 74부 384권이라고 하지만, 현존하는 것은 39부 3백여 권이다. 무엇보다도 그 이전의 역경(譯經)이 노장(老莊) 등의 역어(譯語)를 사용하거나 현학(玄學)의 사상과 결합시킨 격의(格義)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구마라집의 번역은 정확성과 문체(文體) 등에 있어서 상당히 뛰어나 후대에 '신역(新譯)'과 '구역(舊譯)'으로 구분한다. 더욱이 구마라집이 번역한 〈금강경〉, 〈법화경〉, 〈대품반야경〉, 〈소품반야경〉, 〈유마경〉 등은 이후에 여러 차례 재번역이

일곱 살 때 모친과 함께 출가
57세 중국 입성 70세에 입적
294권 번역 300여 권만 현존
중국불교사상 형성에 큰 공헌



중국 서안 초당사에 있는 구마라집 사리탑.

되었어도 여전히 구마라집의 역본이 유행하고 있다. 또한 구마라집이 번역한 〈중론〉, 〈백론〉, 〈십이문론〉, 〈대지도론(大智度論)〉 등은 이후에 본격적인 중국반야학을 정립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구마라집에게는 후진의 군주 요흥을 위하여 찬술했다는 〈실상론(實相論)〉이 있고, 자신이 번역한 〈금강경〉을 상세히 설명한 〈금강경주(金剛經注)〉 등의 저술이 있다고 하지만, 전해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여산 혜원(慧遠)의 질문에 답한 〈구마라집법사대의(鳩摩羅什法師大義)〉가 전해지고, 또한 승조(僧肇)의 이름으로 찬술된 〈주유마힐경(注維摩詰經)〉(大正藏38 所收)에는 구마라집의 주(注)가 실려 있다. 특히 이 〈주유마힐경〉에는 승조, 도생(道生)의 주석도 실려 있어 중국불교의 사상적 토대를 건립한 세 종장(宗匠)의 견해를 비교할 수 있어 상당히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구마라집이 수행한 중국불교에 대한 공헌은 몇 권의 책으로 설명해도 모자랄 정도이지만, 가장 중요한 공헌은 바로 반야학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그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반야'는 '앎'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법(諸法)의 자성(自性)이 비어 있음[空]을 여실(如實)하게 아는 것이고, 그에 따라 '지혜'라고 한다. 불교에서는 이른바 제법, 다시 말하여 일체의 현상은 모두 '무명(無明)'으로부터 '연기(緣起, 기대어 일어남)'하여 성립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렇게 연기한 제법은 마땅히 그 '독자적 존재성[自性]'을 지닐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체의 현상이 '자성'을 지녔다면 바로 '연기'할 필요가 없이 여여(如如)하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도리를 밝히는 것이 바로 아함부의 '십이연기설'인데, 그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십이연기법'을 순역(順逆)으로 관(觀)하여 '명(明)'에 도달하면 바로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십이연기'의 최종적인 단계인 '명'의 설명에서 다시 '공'의 개념이 나타나는데, 이른바 '십이연기'의 '제일의제(第一義諦)'가 바로 '공'임을 제시한다. 하지만 무시이래(無始以來) 무명으로부터 집기(集起)한 현상계는 쉽게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잡아함경〉 권10에는 "세간의 집기를 여실하게 정관(正觀)한다면 세간이 없다[無]고 말할 수 없고, 세간의 멸을 여실하게 안다면 세간이 존재한다[有]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여 바로 그 중도(中道)에서 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반야'의 '공관'은 '제법성공(諸法性空)'의 '진제(眞諦)[第一義諦]'와 '연기'된 '세속제(世俗諦)'로 설정되고, 서로 끊임없이 상즉(相卽)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제법의 성품[性]인 '공(空)'은 바로 제법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인 담지체(擔持體, 혹은 '本體')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다시 하나의 '실체' 혹은 '상(相)'을 가지게 된다면 근본적으로 반야에서 설하는 '공관'과 정면으로 모순되게 된다. 이것은 대승불교가 갖는 하나의 논리적 딜레마인데, '반야'는 그를 끊임없는 부정(否定)의 논리로 해결하고 있다. 제법의 성립근거를 '유(有)·무(無)·역유역무(亦有亦無)·비유비무(非有非無)'의 '사구(四句)'로 '무한부정[百非]', 즉 '사구백비(四句百非)'로 진행시켜 반야법의 성립 근거는 인간이 가진 논리형식으로는 결코 논증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자체가 다만 '희론(戱論)'일 뿐이므로 '지식(止息)'해야 하고, 반야법은 '부사의(不思議)'하게 성립한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그런데 구마라집은 서역의 반야학과는 다르게 반야법의 성립근거로서 '실상(實相)'을 제시하고 있다. 제법의 성립 근거를 제시할 수밖에 없는 측면에서 담지체로서 '실상'을 제시한 것이고, 그러한 '실상'이 집착의 대상인 '상(相)'으로서의 모습을 지니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무상(無相)'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컨대 〈주유마힐경〉에서 구마라집은 "만약 생멸(生滅)이 없다면 곧 갈 곳도 없으며, 갈 곳이 없다면 바로 실상(實相)이다.", "소승에서는 사제(四諦)를 설하고, 대승에서는 일제(一諦)를 설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제(諦)는 일제(一諦)이고, 일제는 '실상'이다."라고 주석하고, 〈대지도론〉에서도 "항상 '제법실상'은 '무상(無相)'하다고 관하라.", "'실상'이란 불생불멸하는 열반상(涅槃相)과 같으며, 모든 제법의 모습 또한 이와 같으니, 이를 '제법실상'이라고 한다."와 같은 문구가 보인다. 이에 따라 이후 중국불교에서는 '실상무상'이라는 용어가 관용구처럼 쓰이게 된다. 실제로 반야법에 대한 이해가 깊었던 요흥에게 헌상했다는 〈실상론〉은 비록 아쉽게도 현존하지는 않지만, 이를 논증한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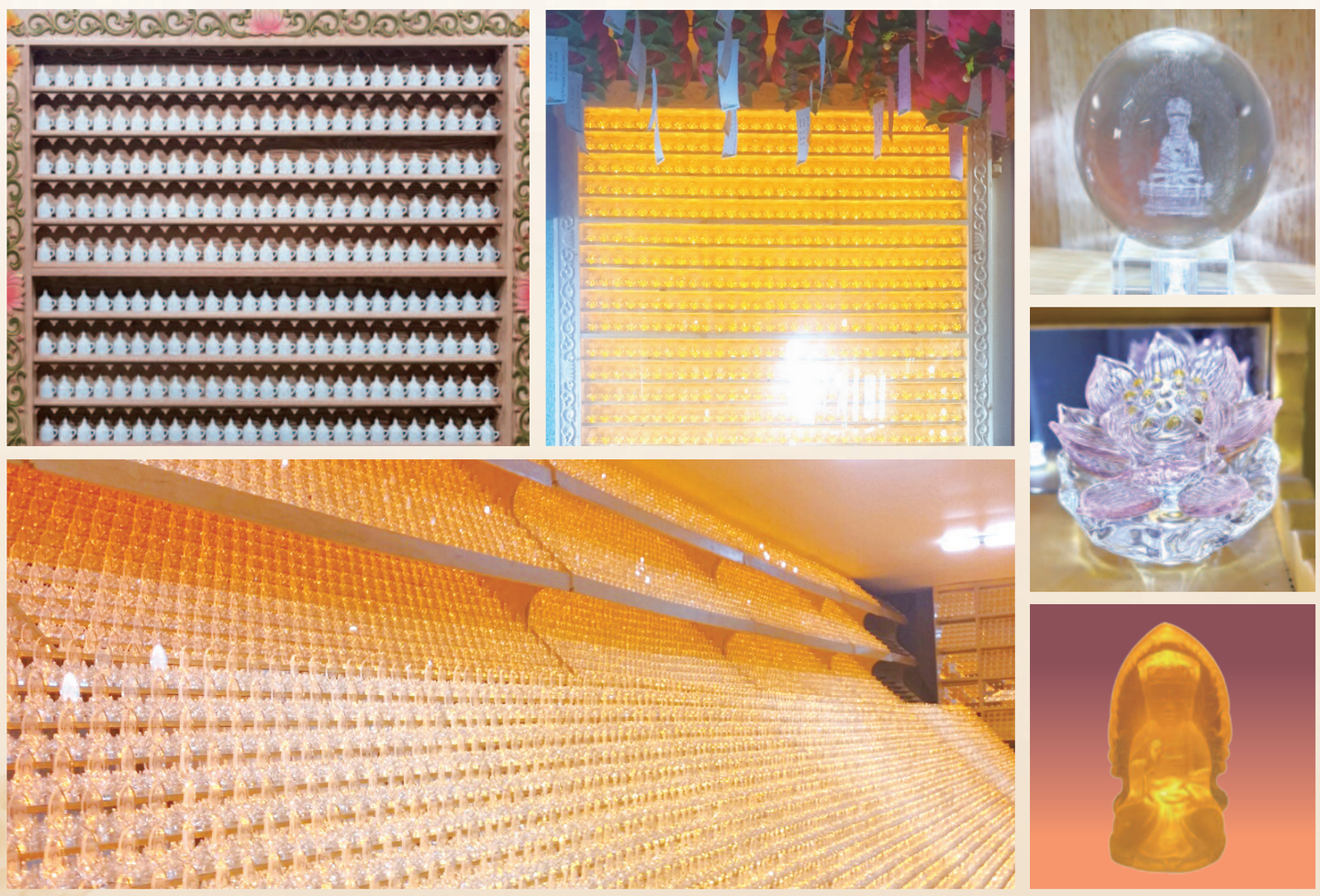
구마라집의 '실상무상'은 서역의 '희론의 지식'과는 다르게 묘한 사상적 탄력성을 지닌다. 특히 이러한 '실상론'에 입각하면 앞에서 언급한 '사구백비'는 수정될 여지가 있으며, 실제로 구마라집이 번역한 〈중론〉, 〈십이문론〉, 〈백론〉을 바탕으로 설립된 삼론종에서는 '이사구(離四句), 절백비(絶百非)'를 제창하고 있으며, 후대의 조사선(祖師禪)에서 또한 이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반야학의 실상론은 이후 중국불교의 사상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겠다.

구마라집의 제자들은 3천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이들은 바로 승조(僧肇), 승예(僧叡), 도융(道融), 담영(曇影), 도생(道生) 등이다. 그러나 중국불교사상사에 가장 중요한 공헌을 한 이는 바로 승조와 도생 두 고승이라고 하겠다.

〈고승전〉에는 구마라집의 "마음의 산(山)에서 밝은 덕을 길러, 그 좋은 향은 1만 유연(由延, 由旬)으로 퍼지고, 오동나무에 외로이 깃든 슬픈 난새, 청아한 울음소리 구천(九天)을 꿰뚫네."라는 게송을 싣고 있다. 이로부터 구마라집의 불법을 체득한 경지에 대한 자부심과 중국에서 함께 법을 논할 수 있는 도반이 없는 외로움, 본의 아닌 파계에 대한 감상 등의 다양한 뉘앙스를 엿볼 수 있다.

〈前 동국대 불교문화원 부교수〉

인등생산 전문기업
금륜사
30여년 축적된 원목제품 생산
노하우와 장인정신으로 유수의 사찰과
맞춤제작 인연을 맺어 오고 있습니다.
※ 무상 A/S 2년 보장합니다.
경기도 포천시 송선로 149번길 48
전화 010-3781-2460 / 031-534-0048
팩스 031-532-2468



김선희 교수의 변상도 바로 읽기 ❻ 영축산 석가모니설법도

▶ 한줄 요약
8세기 조성된 돈황 벽화 〈영축산 석가모니설법도〉는 일반적인 불화나 목판 변상도와는 달리 자수로 수놓은 변상도다. 이는 장경동 출토 작품 중 가장 우수한 작품 중 하나로 평가 받는다.



석가모니 영축산 설법, 자수로 수놓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변상도(變相圖)'라 하면 비단에 채색으로 그린 불화나 혹은 경전 속에 삽입된 목판화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와 다르게 바늘로 한 땀 한 땀 수놓은 자수(刺繡) 변상도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8세기 돈황 벽화 〈영축산 석가모니설법도〉로 100여 년 전 영국으로 건너가 현재 대영박물관에 소장돼 있다.(그림①)

이 자수작품은 색채가 풍부하고 솜씨가 뛰어나 돈황 장경동에서 출토된 가장 우수한 작품 중의 하나이다. 자수 작품을 말하자면 일본 나라국립박물관 소장(勸修寺舊藏)의 자수 〈석가모니설법도〉(일본불교미술원류 · 254쪽 참조)와 비견된다. 이 작품은 서하(西夏)시기에 제작됐으며 크기는 207×157cm이다. 대영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영국의 오렐 스타인 수집품 중에는 다른 자수 작품도 있지만 대부분 장식적인 것이 많은데, 이 작품은 마치 비단에 채색으로 그린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어 주목된다.

이 그림은 오존도(五尊圖)로 구성돼 있는데, 위쪽에는 화개와 비천, 아래쪽에는 수많은 공양인상이 배치돼 있다. 붓다는 청색 꽃잎이 살포시 핀 연화보좌에 서 있고, 편도형(扁桃形)의 신광은 몸을 감싸고 있으며 두광(頭光)까지 뻗어 있다. 만다라의 배경에는 법화경(法華經)에 나오는 영취산이 있다. 붓다는 우견편단(右肩偏袒)이며 오른손은 수직으로 내리고 왼손은 옷자락을 잡고 있다.

이 자수는 오랫동안 장경동에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두 보살은 상(像)의 일부가 훼손됐으나 다행히 주존인 석가모니불은 잘 보존되어 있다. 주존 주위의 각 상들의 배치는 우리가 조각상에서 보았던 각 상들의 배열방식과 같이 어느 정도 공간의 진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특징은 이 작품이 초당(初唐) 시기에 제작되었음을 말해 주고 있는데, 이 시기에는 그림이든 조각이든 공간감과 양감의 표현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그러나 이 자수벽화는 석가모니 붓다의 상이 비교적 생경하고 부드러운 호선(弧線)으로 그려진 가사(袈裟)가 왼쪽 어깨에서 앞가슴을 거의 사선으로 가로 질러 오른쪽 겨드랑이 밑에 밀착된 느낌을 준다. 가사의 겉면은 물결무늬로 능히 안감과는 다른 색깔임을 발견할 수 있다. 왼손에는 두 개의 매듭이 밑으로 늘어져 있다. 특히 앞가슴을 가로지르는 매듭 상단이 오른쪽 겨드랑이에 단단하게 밀착된 점, 가장자리에서 내려오는 물결 기복을 직선으로 딱딱하게 그려낸 점이 눈에 띈다. 가사는 청색 실로 초본의 먹선을 따라 섬세하게 수놓았는데, 그 실이 이미 끊어지고 결손된 부분에서 우리는 초본의 먹선을 볼 수 있다.

모든 불상의 얼굴을 보면 그 표현에 약간의 변화가 있음을 볼 수 있다. 가장 생동감 있는 표정은 붓다의 왼쪽에 서 있는 늙은 제자 마하가섭으로, 치아의 윤곽선을 비롯하여 주요 선들이 푸른색으로 돌출돼 있다. 눈썹은 비단 바탕에 엷은 먹으로 굵게 그렸는데 그 위에 가는 털을 실로 수놓았다. 검은 눈동자는 비단 바탕에 직접 먹으로 그려졌으며 수를 놓지 않았다. 오른쪽 제자의 얼굴(아난존자)은 일부분만 남아 있지만 표정이 부드러워 보인다. 검은 눈동자도 비단 바탕에 먹으로 찍어내고 눈썹은 파란색 실로 바늘 발은 가늘고 길게 처리했다. 얼굴부터 머리까지 옅은 은색 실을 사용하며 여러 가지 색상을 조합해 부드럽고 섬세하게 연출하고 있다.

두 보살의 눈썹과 안와선(眼窩線, Orbital gland), 살구씨 같은 눈의 윤곽을 푸른색의 호선으로 표현하였다. 검은 눈동자는 비단 바탕에 그리지 않고 자수에 먹으로 그렸다. 콧등과 입술 선은 같은 색상을 사용하였으며 원래는 담홍색일 수 있으나 현재는 누런색으로 바랜 상태이다.

붓다의 얼굴은 더욱 공을 들였는데, 머리는 짙은 감색이고 얼굴과 귀의 윤곽선은 밝은 남색을 사용하고 있다. 머리의 육계 자리에는 둥근 모양의 흰색 견사(絹絲) 바탕이 남겨져 있고, 주변을 맑은 남색으로 처리하여 마치 보석처럼 보인다. 가느다란 눈썹은 예쁜 호선으로 그렸으며, 색상은 머리카락의 짙은 감색에 비해 은은한 음영을 띠고 있다.

돈황 장경도 출토된 우수 변상도
자수로 영축산 설법 모습 그려내
오존도 구성… 섬세한 표현 눈길

눈의 윤곽은 남색으로 처리하고, 눈의 흰자위는 얼굴보다 흰 견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감침질(hemming stitch) 수법을 차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자수의 수준이 꽤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은 세부적인 부분들에서 정교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같은 세부사항은 불화에서 비범함을 보여 줄 뿐 아니라 작품 자체의 제작연대가 이르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처럼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불상의 생동감을 높이는 특색은 초당에서 성당까지의 작품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다. 두 보살의 손을 보면 세밀한 부분까지 섬세하게 그려져 있다. 예를 들면 석가모니의 오른쪽에 합장하여 시립(侍立)한 보살은 오른손 집게손가락을 구부려 다른 손가락의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다.

왼쪽에 시립한 보살은 오른손을 뻗어 손바닥을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엄지손가락은 이미 파손되고 손목은 잘 보존되어 있는데 유약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왼손은 손목과 손가락이 그대로 남아 있어 우아하고 생동감이 넘친다. 이러한 정교한 부분은 초본의 묵(墨)선을 따라 자수로 새긴 것이다. 그림의 위쪽 비천이 주위에 흩뿌리는 꽃송이 등 디테일까지 이런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림①. 돈황 막고굴 장경동에서 나온 〈영축산 석가설법도〉의 모습. 8세기에 조성됐으며 영국 대영박물관에 수장돼 있다. 자수로 이뤄진 불화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이를 종합하면 돈황 초당시대 벽화에 비해 제205굴 서벽의 인로보살도(引路菩薩圖, 그림②), 제401굴 공양보살도 등 가장 정교한 벽화에 비견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작품은 오랫동안 접혀져 있어 파손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돼 있다. 화면의 양단은 파손 없이 잘 남아 있고, 위 아래쪽은 남아 있어도 수 cm의 자수 무늬가 없는 비단 바탕에 불과하다.

이 작품은 원래 삼베 위에 가는 재질의 얇은 비단을 겹쳐 놓은 것이다. 비단은 많이 훼손됐지만 화면 오른쪽 윗부분은 남아 있다. 작품 전체는 이 얇은 비단과 삼베를 각각 3폭 연접하여 꿰맨 것으로, 꿰맨 바늘구멍은 자수 밑에 완전히 숨겨져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여러 군데에서 바늘구멍이 드러나 보이고 있다.

이 자수 작품은 런던으로 옮겨진 뒤 다시 마포(麻布)로 배접돼 마치 유화처럼 변했고 액자에 유리를 끼웠으며 커튼에 덮여 오랫동안 대영박물관 북쪽 계단 평대(平臺)에 방치되어 있었다. 1971년에야 박물관 2층 진열실을 개조할 때 특수 제작된 상자에 넣어 동양회화진열실 입구의 눈에 띄는 곳에 진열했다.



그림②. 9세기 조성된 돈황 막고굴 장경동의 〈인로보살도〉. 영국 대영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이 작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그 원본을 직접 비단 바탕에 그려 넣은 뒤 그대로 수를 놓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주선(主線)은 기본적으로 짙은 감색 명주실로 수놓은 것이다. 그러나 일부 드러난 산석(山石), 오른쪽에 시립한 보살의 가사 등은 감색 대신 갈색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부드러운 외올의 명주실로 수놓을 범위를 열심히 채웠는데, 이를 스타인은 단수(緞繡, 홈질)라고 했지만 길고 매끈한 바늘 놀림으로 보아 할수(割繡, 박음질)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런 방법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직선 바느질뿐만 아니라 비단을 짜는 듯한 바느질 방법을 많이 쓰고 있는데, 왼쪽에 시립하고 있는 보살의 중선(中線)처럼 같은 색의 실로 수놓은 부분에 뚜렷한 경계선을 더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법은 붓다의 얼굴 색상을 변화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연화좌의 꽃잎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으며 두 보살의 옷자락 무늬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다. 배경에서 바위가 맞닿은 부분은 서로 수직적 바느질로 바위 표면의 울퉁불퉁함을 표현하고 있다.

각 부분을 메꿔 나아갈 때 바늘땀의 길이나 사용하는 실의 종류를 바꿔 색상의 미묘한 변화를 주고 있다. 면적이 넓은 부분은 거의 꼬이지 않은 외줄로 되어 있으며, 바늘땀은 8~10mm로 표면에 광택이 난다. 그러나 여러 군데에서 수(繡) 바늘이 왕복하면서 두 가닥의 실이 가볍게 꼬이기도 하였다. 한 가닥의 실은 꼬이지 않아도 되는데 말이다. 이 특징은 암산의 청색 부분에 뚜렷하게 나타나 있으며 보살의 의상에도 군데군데 나타나고 있는데, 가는 실로 수놓아진 부분에 실이 꼬여 있으며 아주 촘촘하다.

그리고 이 부분은 바늘땀이 비교적 짧으며 겉으로 드러나는 느낌도 조금씩 다르다. 그 단적인 예가 붓다의 아래로 뻗은 오른손인데, 상하부의 수놓은 방법은 같지만 바늘땀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길이가 짧아지고 있다. 또한 하부로 갈수록 수놓은 실 가닥이 공간을 촘촘히 메우지 않고 땀과 땀 사이에 거리가 있어 틈 사이로 비단 바닥이 드러나 상부와는 전혀 다른 효과를 주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달리 이 작품은 처음 완성했을 때 아래 팔뚝과 손바닥이 이러한 기법으로 인해 금색 어깨나 위 팔뚝과는 다른 효과를 내면서 좀 더 밝았을 것이다. 이러한 효과는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으며, 손을 확대해 보면 자수의 선이 손바닥과 손가락의 곡선을 따라 다르게 그려져 있다. 지금은 손의 앞부분과 손목에서 어깨까지 이어지는 윤곽선이 검은색으로 변하여 원래의 남색을 알 수 없게 되었다.

〈동국대 연구교수(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오직 호흡뿐 = 호흡의 물리가 터짐 = 제6차크라 열림 = 전기뱀장어의 몸 = 기공의 대가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사)전통불교 태고종 종도모집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문을 여시고
"기이 하도다. 저들도 나와 똑같은 지혜와 덕성이 있도다"
그리고 이 우주 그 자체가 법계 즉 부처의 나라임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우리 중생들의 마음 가운데 부처와 똑같은 지혜와 덕성이
깃들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한히 개량될 수 있고, 무량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룩한 말씀과 가르침에 뜻을 같이하실 종도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동참하실 분은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입종서류
① 주민등록 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양식) ③ 주민증(앞 뒤 사본)
④ 사찰 내 외부 사진 1부 ⑤ 증명사진 3매 ⑥ 제출된 서류는 반환불가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장 급은 특별예우!

(사)전통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월운
총무원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 54번길 183-101
전화 031)847-9338 / 팩스 031)842-9337 / 총무원장실 직통 010-6242-6664

유정길의 **불자라면 이렇게** ❸ 생태위기와 무소유



▶한줄 요약
수퀴미시 부족 추장인 시애틀은 땅을 팔라고 압박해오던 미국인들에게 "대지와 물을 어떻게 사고 파는가"라는 명연설을 남겼다. 본래 내 것이 없음에도 소유하려는 탐욕이 지금의 기후위기와 환경파괴를 가져왔다.

본래 소유는 없다

어떻게 자연을 사고 팔 수 있나

캐나다 밴쿠버와 국경을 맞닿은 미국의 서부 끝 큰 도시가 시애틀이다. 이 도시는 본래 아메리카 선(先)주민 수퀴미시 부족 추장인 시애틀(Seattle, 또는 Sealth)의 이름을 딴 것이다. 아메리카 선주민의 살던 땅 대부분을 빼앗았고 이제 서쪽 마지막 끝 이곳을 빼앗기 위해 14대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피어스는 선주민 부족 추장인 시애틀에게 땅을 팔라고 압박을 했다. 구매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 강탈과 다름없는 협박이었다. 이때 시애틀 추장이 한 연설은 너무도 유명하다.

"워싱턴의 대추장(대통령)이 우리 땅을 사고 싶다는 전갈을 보내 왔습니다. (중략) 우리가 땅을 팔지 않으면 백인이 총을 들고 와서 우리 땅을 빼앗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대들은 어떻게 저 하늘이나 대지의 온기를 사고 팔 수 있나요? 우리로서는 이상한 생각입니다. 대기의 신선함과 반짝이는 물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들을 팔 수 있다는 말인가요? (중략) 우리에게는 이 땅의 모든 부분이 거룩합니다. 빛나는 솔잎, 모래 기슭, 짙은 숲속 안개, 세찬 날개 짓하며 노래하는 온갖 벌레들 이 모두가 우리의 기억과 경험 속에서는 신성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땅의 한 부분이고 땅은 우리의 한 부분입니다."

이 시애틀 추장의 연설은 감동의 명문으로 세계 환경운동가들의 금과옥조같은 성전이 되었다. 당시 이에 감동한 피어스 미국 대통령은 그 추장을 기리며 도시 이름을 시애틀이라고 지었다. 이제 시애틀 추장은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에게 묻는다. 과연 당신들이 땅과 나무와 산, 물과 새들을 어떻게 사고 팔 수 있는가? 아니 언제부터 사고 팔게 되었는가?

돈주고 산 노예는 당신의 것인가

과거 '노비'는 봉건 영주나 양반들의 소유였다. 그러나 지금 노예란 없다. 과거에는 돈을 주고 매매했지만 노예제도가 사라진 지금, 사람은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없는 대상이며, 돈을 주고 산다고 해도 사람은 누구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체로 내 것이 된 근거는 '돈을 주고 구입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돈을 지불하는 것이 '내 것'이 되었다는 징표가 된다면 노예를 돈 주고 구입했다고 '내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태양이 누구의 것일까? 하늘은, 강물과 바다는 누구의 것인가? 당연히 누구의 것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인간들은 땅과 하늘, 바다에 금을 그어놓고 내 땅이라고 주장하고, 영토 · 영해 · 영공이라는 국가의 소유권을 주장한다. 내 땅이나 국경이라는 것이 실제 땅에 금이 그어져 있는가? 당연히 아니다. 그저 지도에만 존재할 뿐이다. 지도는 사람들의 관념을 형상화한 것이지 실제가 아니다. '소유한다'는 것은 현대 사회가 만들어놓은 '관념적 합의' 일뿐이다. 생각이 만든 약속일뿐이다. '근본의 자리'에서는 자연(자원)은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존재, 소유개념을 넘어선 존재이다.



불교환경연대를 비롯한 불교시민사회단체들인 2020년부터 시작한 '무소유 나눔 페스타'의 홈페이지 화면. 자신이 쓰지 않은 물건들을 나누기 위한 불자들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소유란 도둑질이다

지금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이름으로 집을 소유하고 땅을 소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현재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은 전(前) 소유자로부터 구입했거나 물려받았을 것이다. 전 소유주는 그 앞의 소유자에게, 또 그 사람은 더 앞의 소유자에게 땅을 구입했을 것이다. 계속 거슬러 올라가 보면 최초의 소유자는 누구였을까?

수 만년 역사 속에 광활한 대지에 살던 선조들은 누구도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수렵채취를 했을 것이다. 그러다 어느 시점에 갑자기 담장을 치고 '내 것'이라고 주장한 최초의 소유주가 있었을 것이다. 그를 시작으로 팔고 사기가 계속되면서 결국 나에게 이르렀을 것이다. 그 최초의 소유주는 누구에게 구입한 것이 아니다. 인간과 모든 생물들이 함께 공유하는 자연을 사람이 배타적으로 독점하는 일은 자연을 도둑질하고 강탈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프랑스의 아나키스트 푸르동은 〈소유란 무엇인가〉에서 "소유란 도둑질"이라고 말한다.

"대지와 물을 어떻게 사고 파는가" 시애틀 추장 연설, 현재도 의미 커
소유할 수 없는 것 소유한 탐욕이 현재 기후위기와 환경파괴 가져와
불교시민단체 '무소유 나눔 페스타' "본래 내 것 없다"는 정신 보여줘

또한 토지공개념을 주장한 헨리 조지는 '사람이 자기 손으로 땀 흘려 노력해 생산한 곡식이나 오랜 연구와 기술로 물건들을 만들어 이윤과 이득을 얻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땅(토지)은 사람의 노력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며 강물과 산하대지는 인간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닌데도 이걸 특정 개인이 사고 팔면서 이득을 얻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더욱이 이를 자손에게 물려주며 대를 이어 이익을 보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한다.

인클로저: 공유지 사유화하기

영국의 16~17세기에 당시 누구나 사용했던 공유지에 울타리를 치며 사유화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를 '울타리 치기'라는 뜻으로 '인클로저(enclosure)' 현상이라고 한다. 이전 사람들은 숲이나 들, 임야 토지를 모두가 공유하고 있었다. 이 공유지는 야생식물을 채취하거나 가축의 방목, 벌목으로 누구든 이용했다. 그러나 장원이 해체되면서 이들 공유지를 몇몇 지주들이 울타리를 치며 사유지화하며 자기 땅으로 만들면서 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더욱이 자기 땅이라고 울타리를 친 영역에서 나온 모든 자원(석탄, 석유, 광물)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여 채굴하며 이득을 얻었다. 땅도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지만 석탄, 석유 등 광물자원도 자신이 만든 것이 더더욱 아니다. 수십억 년 동안 태양과 자연과 식물, 동물들이 함께 태어나고, 죽고, 썩고 축적하며 자연과 지질학적 역사가 만들어낸 지구적 산물인 것이다. 인간은 그저 발견하고 캐었을 뿐이다.

오늘날 유럽 사회의 발전과 성장은 광대한 아프리카와 아시아, 아메리카 등을 식민지화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온갖 광물자원을 수탈하고 채취하여 이룬 물질적 풍요이다. 또한 식민지의 수많은 값싼 노예 노동의 억압 착취를 통해 이룬 경제적 발전이다. 이제까지 인류 역사는 광물과 자원을 얻기 위해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투쟁하며 대립해 왔다. 석유이용의 주도권을 위해 중동이 화약고라고 할 정도의 전쟁이 발생한 것도 이러한 자원전쟁이다. 그 모든 전쟁과 환경파괴의 맨 앞은 '내 땅'이라는 '소유' 의식이 그 시작이다. 본래 "누구의 것도 아니며", "누구의 것도 될 수 없는" 자연을 '소유'라는 인간의 사회적 관념으로 장악 해버린 것이다.

기후위기, '소유'가 근원

오늘날 자본주의 산업사회의 성장은 종착지 없는 무한정한 직선적 발전을 추구한다. 지구는 태양과 관계된 에너지에 있어서는 개방계이지만, 물질순환에서는 폐쇄계이다. 따라서 에너지로서 태양광은 거의 무한정한 공급원이지만, 석탄,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 등은 지구라는 폐쇄시스템에서 '채굴' '채취'를 기반으로 하는 유한한 물질이다. 그러나 오늘날 개인과 기업의 탐욕과 국가의 무한정한 경제적 성장은 무한한 상품생산과 소비를 추구한다. 무한성장주의는 곧 무한채굴주의이다. 그러나 무한한 자원채굴은 지구자원의 유한성 때문에 불가능하다. 우리가 탈성장사회로 전환하지 않으면 파국을 맞게 되는 이유이다.

땅과 자연의 '소유'를 기반으로 그곳에서 나온 자원을 부의 원천으로 뭇 생명에 대한 고려나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 없이 무한정 채굴하여 풍요를 누려온 것이 바로 기후위기의 원인이다. 내 것이니까 아낀다지만 오히려 내 것이라서 함부로 한다. 돈벌이와 이익을 위해 내 것이라고 마음대로 파헤치고 개발하며 파괴하며 결국 심각한 환경문제와 기후위기를 초래했다. 자연은 인간을 포함하여 온갖 벌레와 동물이 함께 공유하는 곳이다. 나무는 새들의 것이 아니듯, 숲이 노루나 곰의 것이 아니듯, 풀들은 벌레들의 것이 아니듯, 자연과 대지는 '인간의 것'이 아니다.

무소유는 청빈과 절약이 아니다

불교는 무소유의 종교이다. 그런데 대부분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연상하면서 '적게 소유하는 청빈의 삶'이나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것' 정도로 한정되게 사고한다. 앞서 소유는 도둑질이라고 했듯이 소유란 본래 없는 것. 자연 속에 '본래 내 것이란 없는 것', '누구의 것도 아닌 것'임을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뿐만 아니라 비인간 생명, 미래세대까지 '모두가 함께 쓰는 것', '공유'하는 것을 뜻한다. 심지어 나도 내 것이 아닌 '무아'이다. 그래서 자기 욕망으로 자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요구에 수승하며 가장 절실한 곳에 잘 '쓰이는 삶'이 되어야 한다. 보살의 삶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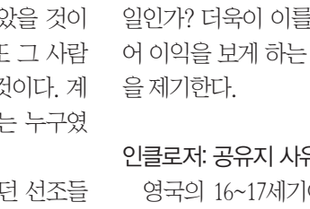
그래서 생명운동이나 환경운동은 '무소유 사회', 모두가 함께 쓰는 '공유가 많아지는 사회'를 지향한다. 이름하여 '커먼즈(Commons)운동'이다. 공유 토지를 넓히는 활동, 공유사회를 확대시키는 운동, 공동의 것을 사유화하지 않는 운동이다. 설령 사유지라 할지라도 보존할 가치가 있으면 공동구입하여 공공으로 만드는 운동(내셔널트러스트)이다.

신대승네트워크와 불교환경연대 등 불교시민단체들은 2020년부터 불교의 무소유 정신을 토대로한 '무소유 나눔 페스타'(무 · 나 · 페)을 시작했다. '내 것은 없다 · 가격이란 없다', '1년 간 안 쓴 물건은 내 것이 아니다'는 기치로 시도된 '돈 없는 장터'이다. 매월 1회 한 장소에서 자신의 안 쓰는 물건 중에서 남에게 선물이 될 만한 것을 내놓는 것이다. 비싸고 싼 것은 없다. 모두 우주적 가치를 갖는 소중한 것이다. 내놓은 물건들을 필요한 사람이 돈 없이 거저로 가져가는 것이다. 과거 재활용장터 '아나바다 장터'와 다른 점이다. 당시 코로나로 활성화 되진 못했지만, 앞으로 사찰에서 매월 '무소유 나눔장터'를 통해 불교의 무소유정신을 함양하면서 기후행동으로 자원재활용과 나눔 정신을 일구는 활동으로 발전되길 기대한다.

〈불교환경연대 녹색불교연구소소장〉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 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스님! 커피한잔 주시면
아주 작은 염불에도 엄청 장엄하고 신명 넘치는 소리로 화답하는 디지털 소리 체험을 드립니다.

주의 : 한국법당 시설들 거의 중국, 베트남 심지어 메이커를 지워버림
본품 : 100% MADE IN KOREA 특징 : 고가제품, 고장없음, 소리월등

디지털앰프 다루기 1초! 특징 : 고장없음, 전제품 국산 확인

수준급을 자랑하는 법당시설들과 현장 비교시 놀라운 차이속에 현재 귀 법당 시설비의 1/3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에도 완전 소리 업그레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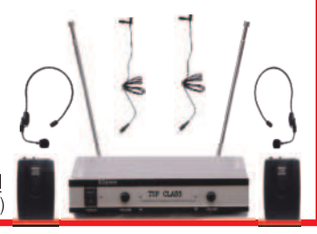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 완벽시설, 가격 198만원,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장기할부가능

방문시 8천만원 하는 마이크 있음을 스마트폰 확인해 드림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가격 ₩ 40만원 (출장 설치비 20만원 별도)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 40만원 (출장 설치비 20만원 별도)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로 화답!
가격 ₩ 60만원 (출장 설치비 포함)

'眞諦' 위한 각오·서원 있어야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⑪ 버려야 하는 세 가지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다시 큰 뜻을 말하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말해 보라."

승만 부인이 부처님께 사뢰었다.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것과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사람은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것과 다르지 않고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사람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선남자 선여인이 곧 바로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선남자 선여인은 정법을 거두어들이기 위하여 세 가지를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버려야 할 세 가지는 몸과 목숨과 재산을 말합니다.

선남자 선여인이 몸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태어나고 죽음에 몸 받을 것이 있으므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여의고 부서짐이 없이 항상 그대로 있어 변하지 않는 불가사의한 공덕인 여래의 법신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태어나고 죽음과 다음에 몸 받을 것이 있으므로 필경에는 죽음을 아주 여의고 끝없이 항상 그대로 있는 불가사의한 공덕과 일체의 매우 심오한 불법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버린다는 것은 태어나고 죽음과 다음에 몸을 받을 것이 있으므로 중생이 가지고 있지 않은 줄어들거나 다함이 없는, 필경에 불가사의한 가지가지 공덕을 모두 다 얻게 되어야 하며 일체 중생들의 뛰어난 공양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세 가지를 버리는 선남자 선여인이 정법을 거두어들여 언제나 일체의 모든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고 일체의 모든 중생들이 우러러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또한 선남자 선여인이 정법을 거두어들인다는 것은 법이 사라지려 할 때에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 사부대중이 서로 붕당을 만들어 분쟁을 일으키고, 파괴하여 흩어지더라도 아첨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거짓된 짓을 하지 않고, 정법을 즐거워하고 정법을 거두어들여 법의 벗이 될 것입니다. 법의 벗이 되는 사람은 반드시 모든 부처님의 수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이러한 큰 힘을 보는 것처럼 부처님께서는 진실의 눈이시며, 진실한 지혜이시며, 법의 근본이시며, 법을 통달하시며, 정법에 의지하므로 또한 모두 아시고 보실 것입니다."

승만 부인은 계속해서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일(正法攝受)에 대하여 설하고 있다. 법과 사람이 하나라는 것, 다시 말해 사람을 떠나 바른 법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정법을 거두어들이려는 사람은 몸과 목숨과 재산을 버려야 한다고까지 말하였다. 이는 정법을 위해 일체의 집착을 끊고 법신의 몸을 얻고 불법을 얻고 불가사의한 공덕과 중생의 공양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정법을 섭수하려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하고 몸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세속적 환경의 속된 가치를 우선하거나 편협한 자아의식으로는 정법인 대승의 가치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불법의 진정한 가치인 진제(眞諦)를 위해 온몸을 던진다는 각오와 참된 서원이 있어야 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불법의 참가치는 출세간법의 진제(眞諦)에 있고 속제(俗諦)에 있지 않다. 비록 진속이 다르지 않는 진속불이(眞俗不二)라 하지만 법을 위하는 위법망구(爲法忘軀)의 정신이 나올 때 정법이 지켜지며 섭수의 공이 살아나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승의 서원이 깊이 스며들어 있는 것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처럼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사람에 의해 정법의 가치가 살아 있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말하자면 정법과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사람이 하나라는 말이다. 바꾸어 말하면 법을 근본으로 하는 것이 사람을 근본으로 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불교는 법본주의(法本主義)이자 동시에 인본주의(人本主義)인 점을 천명하고 있다. 더 쉽게 설명한다면 깨달음을 통해 탄생한 불교가 법(法)인데 누가 깨달았느냐 하면 사람(人)이 깨달았으므로 이점에서는 법과 사람이 하나라는 것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자비심 사홍서원과 보리심 함양으로 '成佛'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㉞ 관음신앙에 대한 올바른 견해

대표적인 서원, 사홍서원(四弘誓願)

불자 여러분! 자비심에 바탕을 둔 중생구호의 '서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사홍서원'입니다. 사홍서원은 모든 보살의 공통적인 서원이라는 의미에서 총원(總願)이라고도 불립니다.

사홍서원은 첫째, 중생무변서원도(衆生無邊誓願度) 둘째, 번뇌무진서원단(煩惱無盡誓願斷) 셋째, 법문무량서원학(法門無量誓願學) 넷째, 불도무상서원성(佛道無上誓願成)의 네 가지 맹세를 말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첫 번째 일체의 중생을 모두 구제하기 위하여 깨달음의 피안(彼岸)에 도달하겠다는 맹세, 두 번째 다함이 없는 그 많은 번뇌를 모두 끊겠다는 맹세, 세 번째는 광대무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두 배워 깨닫겠다는 맹세, 네 번째는 가장 존귀하고 그 이상 뛰어난 것이 없는 불도를 닦아 깨달음에 이르러 성불하겠다는 맹세, 이 네 가지를 사홍서원이라고 합니다.

이 사홍서원은 대승불교의 신앙적 토대일 뿐만 아니라 차후에 보리(菩提)를 이루는 자량(自量)입니다. 그러므로 무상정각을 얻어 성불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비심에 바탕을 둔 사홍서원과 보리심의 함양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친보살은 〈불성론〉에서 사홍서원을 갖추어야 함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중생이 무변하기 때문에 항시 머문다는 것은 초발심시에 사홍서원을 한다. 한량없는 열 가지 큰 원을 일으킨다. 만약 중생이 한량없다면, 나의 서원도 한량이 없을 것이며, 중생이 만약 다 한다면 나의 원도 다할 것이다. 중생이 이미 한량이 없기 때문에 화신(化身)도 언제나 세간에 머물고, 중생을 교도(敎導)함에 다함이 없다."고 사홍서원을 밝힙니다.

불자 여러분! 수행자는 사홍서원을 통해 대비심과 서원과 보리심의 함양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대비심은 사홍서원의 분명한 근본이기 때문에 대비심의 함양으로 보살행을 실천하며 사홍서원을 확고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원생(願生)

불자 여러분! 관세음보살님은 서원뿐만 아니라 중생들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중생 세계에 스스로 태어나는 원생(願生)을 하고 계십니다. '원생'이란 말의 의미는 대보살들이 중생구제의 서원을 세워 중생들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중생들의 세계에 다시 재탄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력에 의해 윤회세계에 탄생하는 업생(業生)과는 전혀 다릅니다. 중생구제를 위한 보살이 스스로 대비원력의 의지적인 서원을 일으켜 중생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중생이 고통 받는 세계에 재탄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살의 원생은 대자대비한 '보리심'인 것입니다. 또한 보살은 중생을 위한 서원과 원생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중생이 고통 받는 세계에 항상 상주하며 중생의 고통을 제거하며 중생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보살이 서원과 보리심에 인해 원생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 경론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사론〉에서는 보살이 중생구제를 위해 열반을 버리고 오랜 세월 동안 원생하고 있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편으로도 열반을 얻을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보리를 위하여 그토록 오랫동안 많은 고행을 닦아야 하는가? 일체 유정을 이익 되게 하고 즐겁도록 하기 위하여 보리를 구하여 오랫동안 원을 세우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큰 능력을 갖추어, 괴로움의 거센 흐름에서 온갖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반의 도를 버리고 무상보리를 구한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흐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⑪ 올바른 견해의 경

나타남의 두 견해 뿌리 알아야

[싸리뿟따]"벗들이여, '올바른 견해, 올바른 견해'라고 말하는데, 벗들이여, 고귀한 제자는 어떻게 하면 올바른 견해를 지니고, 견해가 바르게 되어,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고 가르침을 성취합니까?"

[싸리뿟따]"벗들이여, 고귀한 제자가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을 분명히 알고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의 뿌리를 분명히 알고, 착하고 건전한 것들을 분명히 알고 착하고 건전한 것들의 뿌리를 분명히 알면, 그 만큼 올바른 견해를 지니고, 견해가 바르게 되어,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고, 올바른 가르침을 성취합니다."

팔정도에서 첫 번째 가르침이 '바른 견해'이다. 그 당시 수행자들에게도 이 바른 견해라는 주제는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도 바른 견해를 안다는 것은 원론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바른 견해를 아는 순간, 그 바른 견해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싸리뿟따는 부처님을 친견하고 자아라는 개념이 완전히 사라진 자이다. 앎은 보편성이므로 자아를 가지고 있는 한 바른 견해를 안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른 견해는 어떤 하나의 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타남의 원인인 두 견해의 뿌리를 알아야만 한다. 그래야만 두 견해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릴 수 있는 확신을 갖게 된다.

그 확신을 가진 제자를 '고귀한 제자'라 부르는데, 그 이유는 두 견해의 뿌리가 같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으로도 견해의 치우침이 없는 제자이기 때문이다. 종교에서 제시하는 견해는 선악을 구분하여 악을 지양하고 선을 높이 받드는 것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북돋우고 고무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지향이 잘못되었다거나 옳지 못하다는 것은 아니나, 부처님은 악하고 불건전한 것과 착하고 건전한 것의 뿌리가 같아 돌고 도는 원리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한다.

두 가지 견해는 어떠한 위치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착하고 건전한 것의 뿌리와 악하고 불건전한 것의 뿌리가 각각 다르게 쓰이는 것이다. 도둑과 강도는 훔치고 빼앗는 것이 착하고 건전한 일일 것이고, 선량한 사람은 남을 돕는 것이 착하고 건전한 일인 것처럼, 오온이 처한 위치에 따라 두 견해는 완전 다르게 해석되고 평가된다.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억압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하는 질문은 선뜻 대답하기 힘든 이야기이다.

'고귀한 제자'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하다. 만약 이 고귀한 제자라는 말을 알아듣기만 한다면 뒤 문장은 사실 불필요한 말들이다. 가르침을 새기고 무르익게 하여 아상이 완전히 사라진 자를 고귀한 제자라 칭할 수 있다. '나'라는 생각이 사라진 자는 악하고 불건전한 것과 착하고 건전한 것을 어느 고정된 위치에서 보지 못할 것이다. 그는 '나'라는 견해를 가지고 말하는 착하고 건전한 것을 착하고 건전한 견해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고, '나'라는 견해를 가지고 말하는 악하고 불건전한 견해를 악하고 불건전한 견해로 보지 못할 것이다. 나 '라는 견해 자체가 악하고 불건전한 견해이고, ' 나 '라는 견해가 없는 것이 착하고 건전한 견해이다. 이러한 바른 견해를 바르게 알기 위한 방편으로 "착하고 건전한 것들의 뿌리를 분명히 알고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의 뿌리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두 가지의 뿌리는 아상이라는 동일한 뿌리에서 출발한다. 그러니 그 두 가지는 탐욕에서 나온 견해이지 바른 견해가 될 수 없다.

착하다는 것 착함이 아니고 악하다는 것 악한 것이 아니네
'나'라는 상을 가지고 있으면 착하다는 것 착함이 아니고
'나'라는 상을 가지지 않으면 악하다는 것 악함이 아니네
위치에 따라 전변(轉變)하는 견해
탐을 따라 변하는 욕망일 뿐
바른 견해가 될 수 없고 바른 견해는 위치가 변하더라도
아상을 나라고 말함이 없네

〈(사)여시아문 선원장〉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80호 | 17 | 전면광고

계를 지키면 늙도록 편안하고 잘 지내게 되나니, 지혜는 사람의 보배요, 복은 도둑맞는 법이 없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출요경》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계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과정 모집 •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우주광명 「누진통」「천안통」 시공을 초월한 수행법

단 한시간이면 업장소멸, 번뇌가 사라져 무상무념이 되고 해탈이 되어 매일 선정과 삼매에 들어 깨달음을 이루고 병고액난의 고통과 삼악도에서 벗어날수 있음.

일광합장 010-3586-6091

천도재, 49재 회향 혼자서 여법하게 봉행합니다.

❊ 바라, 피리, 극락무 ❊
올려드립니다.

010-2204-8375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합

010-5412-8040 법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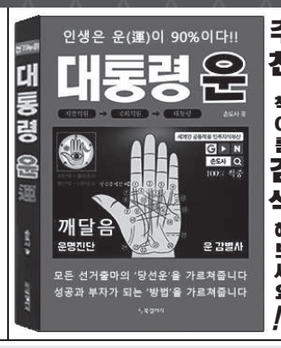
불 교 용 품

고 가 매 입 전 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추천-책이름검색 해보세요 !!

49재 · 천도재 · 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자비행법 전수인 모집

지장보살님의 점찰행법
아미타불님의 현행참법

❊ 사부대중의 전수인을 00명 모집합니다 ❊

유튜브. 법장TV를 참고하세요
지리산향기암 법장행자

010-2367-0086

공양주 모십니다

강원도 양구 흥덕사

010-5049-1533

비구니 기도스님, 보살 모십니다.

지리산 작은암자

010-4569-3722

취득 동참 안내

◆포교사, 전문포교사 ◆법사, 전문법사
◆법계분야 – 대종(선율)사, 종사, 율사, 선사, 종법사, 종무사
◆제출된 서류로 평가심사 취득가능

교육부 상학인가 **만대 불교학대학원**
한국불교수행자연합회
서울시 노원우체국 사서함 25호

010-5412-8040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특수기도법

스님에게만 전수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0-3741-0867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상담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성명학·타로·절간사주·비법

절간사주 · 타로 · 인상학 · 수상
특별비법 **비구니 스님**께만 전수 **수강료 100만원**
★간절하게 꼭 배우고 싶은 비구니 스님만 문의 주세요★
아로마테라피 1급강사 ◈ 아로마테라피와 싱잉볼명상 전수해드림 ◈

문의전화 010-6284-6172

불자가 운영하는 '아라리냠냠'

강원도 정선에서 생산한 곤드레부각, 곰취부각, 깨잎부각, 고추부각과 도라지, 곰취, 현미, 17곡, 강황누룽지칩 오란다등 다양하게 수제로 만듭니다.

코로나로 많이어렵습니다.
큰스님, 불자님 꼭 한번주문해주세요(1봉지5천원)
문의전화 : 010-8844-8245 청정행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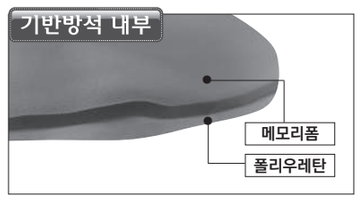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향(香) 특판 안내

● 능인계향 ● 능인라벤더 ● 능인로즈마리



능인계향
판매가 : 20,000원

능인계향은 히말라야와 베트남,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구해온 향나무와 꽃 등다섯 가지 재료를 배합하여 만든 향으로 심신 안정과 기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능인라벤터
판매가 : 15,000원

라벤더는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로즈마리
판매가 : 15,000원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 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마하몰 TEL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80호 | 18 | 전면광고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드는 이가 있으면 설사 커다란 불 속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불이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서

광 진 불 사

◎위치 : 서울
◎경내부지 : 5,000평
◎건평 : 60평 외
◎시내중심, 산및, 주차가
◎양도가 : 협의
◎위치 : 전국
◎부지 : 1,000평-10만평
◎건평 : 120평 외 전각
◎천년사지 외
◎양도가 : 가격다양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안내 가람

- 경남 양산 위치 사찰
- 부지 총면적 : 718㎡(217평)
- 건물 총면적 : 224.82㎡(68평)
- 가액 : 7억8천만원

사진은 인터넷 검색창 "사찰매매안내가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10-8980-4789

다래공인중개사사무소 : 서울중랑구 봉우재로203-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 335평
-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5000개 가능
- 가액 : 12억 5천(가격절충)

010-5421-153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 2층 독채 40평
- 보증금 1천만원
- 월세 45만원
- 시설금 1천만원
- 시설완비

010-8567-3667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사찰부지 및 토굴터

- 위치 : 경남 산청군 생초면 향양리 (924번지, 925번지)
- 면적 : 800평(국유림內 소재), 생산관리 지역
- 특징 : 정남향, 주변 소나무 및 암반, 포장 완료, 버스 진입가능, 물1급수, 주변 민가없음, 토목공사 완료
- 가액 : 3억

010-8516-3326

창원 사찰안내

- 사찰 전체35평
- 법당 15평, 1층법당 화장실, 샤워실, 창고
- 권리금 1천만원, 보증금 550만원, 월세30만원
- **비구니스님 환영**

010-3132-9666

사 찰(급) 안 내

-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 대지 84평 /국유지 50평(사용가) 법당 / 요사채 76평
-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 (불상, 불화등)
- 가액 10억

010-6325-5112

멋진 법당 안내

- 위치 : 포항시 남구 멋진 법당
- 상가 2층 60평(시설완비) 방2, 주방, 화장실3
- 넓은 옥상, 방음완비
- 민원없고 주차공간 넓음
- 가액 : 1억 2천만원

010-2857-281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동
- 층/평 : 3층 / 90평
- 보증금 7천만원, 월세 50만원(조정가능)
- 시설금 및 입주조건 : 협의 결정

010-7726-110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백병길,171)대웅사
- 토지 : 5,824평(종교용지 : 1,690평, 산168-2 : 4,134평)
- 건물 : 대웅전1동, 요사체(1,2층)1동, 기도방(연가 및 납골용)
- 특징 : 전설속의 백병산 남한강을 바라보는 전망좋은 기도사찰
- 입주조건 : 매수(조건부 장기임대로 분할상환 가능)
- 가액 : 21억(계약과 동시 입주 사용등 협의 절충가)

010-4225-0012

사찰(급)안내

- 종교부지 760평 계획관리. 대재 240평
- 감곡 장호원 KT역에서 10분거리
- 대웅전, 종각, 요사채, 휴게실, 찜질방2, 연못, 잔디정원, 요사3동, 산신각, 차고40대, 대형해수관세음보살, 5층석탑, 진사리탑
- 친견하시고 상담하세요
- 매매상담 하실분만 전화요망

010-5883-2255
010-5223-3705

절터 최적지 안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가산면 가산로
- 면적 : 총680평
- 건평 : 50평
- 가액 : 6억8천만원

010-2315-7243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 평사리길
- 비어있는 토굴에 비구니스님, 보살님 사실분
  아미타불님의 현행참법
  지장보살님의 점찰행법

유튜브, 법장TV를 참고하세요

010-2367-008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서포면
- 부지 : 대지,전,답 1,800여평
- 바닷가 부근
- 대웅전, 주지실, 큰방
- 가액 : 13억

010-9178-6397

암자(터)안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정안IC 10분
- 유명한 산 칠부능선, 암반에서 1급수 약수가 365일 사시사철 흐름
- 가옥 : 25평(2채) 40평
- 평수 : 8,000평
- 가액 : 16억(주인 직접)
- 물물교환 가능(상가건물시)

010-5343-6711

3층 상가주택 안내

- 위치 : 김천시 부곡동
- 대지 약 98평
- 1층 : 상가3칸 세나옴
- 2층 : 주택 전세3천
- 3층 : 학원하던곳, 포교당자리
- 가액3억에서 3천만원 빼드림

010-4999-562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 대지 7백평, 임야 3천8백평
- 대웅전 55평, 공양실 30평 종무소 10평, 요사 30평 창고 60평, 컨테이너 2동
- 천연 지하 석수 1일 200톤 이상
- 가액 : 11억

010-4547-002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하북면
- 통도사에서 15분, 양산IC에서 15분
- 총평수 : 588평, 법당 단독 기와집 주방 방3개 46평, 양지, 영축산을 등지고 천성산을 바라봄, 산신각 전통목조 6평, 콘크리트조 9평, 지하수(청옥 암반수), 시수도 연결되었음, 농사용 전기, 저온창고
- 융자 3억, 평당 2백30만

010-5309-9117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공기 맑고 아늑한 절
- 잡종지내의 대지 143평
- 가액 : 1억5천(조정 조금 가능)
- 가전제품 보시합니다.
- 당일법회 가능합니다.
- 현재 운영중입니다.
- 법사님, 보살님도 인연맺습니다.

010-4180-17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안동 부지
- 종교용지 및 전1,256평
- 대웅전, 산신각, 약사전, 요사채2동, 황토방, 주차시설
- 명혈명당 가진자가 천하를 지배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입신양명한다.
- 자연석 돌로 경관 수려함
- 가액 : 9억5천

010-9692-5775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북로 149번길 34 마강사
전화 041)832-4153 **팩스** 041)833-4154

우리불교조계종 총무원 Tel 010-6478-1569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 사암등록 및 입종안내 ◈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1통
- 승적원부 및 증빙서류(총무부 비치)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사진 6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 제반서류 총무부 비치

T. 033-532-1773 / F. 033-532-1774 불교대승 조계종 총무원

무료 灸쑥뜸 수행정진하는 사부대중님께 쑥뜸공양 올립니다.
장소 : 강원동해 향운암 상담 : 010-2873-3446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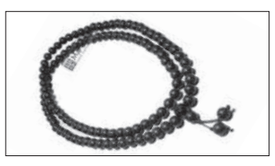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서정의 절집나무이야기

⑥ 제주 관음사 삼나무

사느냐 죽느냐, 운명의 삼나무 영원하라

제주 불교의 중심 사찰 관음사는 한라산 650m 기슭에 있다. 이 지점은 식물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다. 식물의 수직적 분포가 뚜렷한 한라산에서 600m까지는 난대성 식물, 600~1400m까지는 온대성 식물, 그 위로는 한대성 식물이 자라고 있는데, 관음사와 그 일대에서는 난대와 온대가 겹쳐지고 있어 다양한 식물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20년대보다 연평균 기온이 1.6℃ 상승한 제주도도 지구 온난화 영향을 피할 수 없어 더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한라산처럼 넓고 크게 서 있는 관음사 일주문 앞에 서면 용마루 너머 하늘로 삐죽이 솟은 푸른 잎들이 궁금해진다. 오대산 월정사나 부안 내소사 전나무숲길이 파드득 떠오르지만 일단 전나무는 아닌 듯하여 돌담 옆으로 가 짧은 가지에 색이 바랜 채 달라붙어 있는 잎들을 주워본다. 보통 나무들은 잎만 떨어지는데, 가지째 떨어지는 나무로 편백나무와 삼나무가 있다. 생각을 좁혀서 살펴보니 편편한 잎을 가지고 있는 편백나무는 아니고, 바늘처럼 뾰족한 잎을 가지고 있는 삼나무다. 그래도 확신이 안 들어 뒤적거려보니 전체 가지가 떨어져 있지 않고, 잔가지로 떨어져 있는 게 바로 일본 원산의 삼나무로 동정해본다.

삼나무는 일본 한자인 삼(杉)을 그대로 부르기 때문인데,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삼나무는 전나무나 잎갈나무를 가리키는 것이기에 구분해서 봐야 한다. 일본의 삼나무는 임진왜란 때 배를 만드는 목재로 쓰였고, 태평양전쟁에서 패망하고는 건축 자재를 마련하기 위해 대거 심어 일본 전체 산림의 4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삼나무가 1924년부터 제주도에 식재되기 시작했는데, 일본과 비슷한 기후 덕분에 무난히 자라는 걸 넘어 일본보다 삼나무가 더 잘 자라는 최적지로 꼽히게 되었다. 그래서 1970년대에 들어서 한라산에 대거 삼나무를 조림했다.

제주도 내 최대 인공림 수종인 삼나무는 단순성 때문에 제주 경관과 생태계를 해친다는 이야기와 제주 삼나무로 건축을 하면 환경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공존하고 있다.



제주 관음사 삼나무

그 상황에서 한라산 삼나무들이 어떻게 될지 그 운명을 기다리고 있는데, 혼잡스러우면서도 우울한 느낌을 흰 눈처럼 사라지게 하는 현무암 부처님들을 보면서 관음사 안으로 직진해 간다.

하지만 대웅전으로 향하는 길은 '한라산 관음사 개산조 해월당 봉려관 스님 행적비' 에서 멈춘다. 제주 곳곳에 유채꽃이 피고 있지만 아직 남은 차가운 겨울바람에도 단아하면서도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봉려관 스님에게 얼른 목례를 한 뒤 행적비를 읽는데 마지막 문장에서 결기가 느껴진다.

"봉려관 스님은 조선조 억불정책으로 인한 200여 년간의 무불시대를 마감하고, 이 땅에 불교를 일으켜 세운 제주 불교 중흥조요, 선각자요, 애국지사다."

제주 관음사 역사는 1909년 전후로 기술될 수 있는데, 고려 성종 때 지리서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관음사 기록이 있었고, 조선시대에도 존재했는데 1702년 이형상 제주 목사에 의해 흔적 없이 사라지는 비운을 겪는다. 그러다가 1909년 해월굴에서 3년간 관음기도를 드린 봉려관 스님에 의해 창건되었는데, 스님이 입적한 1936년으로부터 3년이 지난 1939년 화재로 대웅전 등이 불에 탄다. 그래도 제주 불사를 멈출 수 없어 불심을 모아 관음사를 일으키고 있었는데, 1948년 4.3항쟁 시 토벌대에 의해 모든 전각이 전소되는 아픔을 겪는다. 지금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찾아갈 수 있는 관음사는 1962년 한라산 입산금지가 풀리면서 다시 시작된 불사가 일군 장엄의 모습인데, 그래서인지 비극의 역사까지 생각하게 해주는 관음사의 또 다른 자랑인 제주도기념물 제51호인 왕벚나무에서 활짝 핀 꽃을 보고 싶었지만, 피부에 감기는 공기는 시리기만 한 것 같다.

1911년 식재했다는 살아 있는 화석 은행나무를 지나 경내를 둘러본 뒤, 푸르게 관음사를 굽어보고 있는 곰솔 넘어 금빛 미륵대불과 현겁천불을 이루기 위해 푸근히 겨울햇살을 받고 있는 작은 아미타불,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약사여래불을 품어보고는 바람을 피해 보려고 해월굴에 들어가 본다.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을 곁에서 지키고 있는 촛불들의 따뜻한 열기가 언 몸을 스르르 녹인다. 보일러가 잠시만 멈춰도 냉기로 병이 날까봐 호들갑을 떠는 중생은 그저 고개 숙여 경외감만 표하고는 봉려관 스님 행적비 뒤에 슬그머니 선다.

"이 몸 타는 것이 걱정이 아니라 / 연기가 고르지 못할까 걱정이다. 낙조의 붉음을 따라 갔다가 / 또한 붉음을 보거든 나의 원력이 그런 줄 알아라."

부처 앞에서 깨달음으로 죽음을 삶과 하나로 연결시켜보고자 애를 써도 이 한 몸 없어지는 게 늘 걱정인 우매한 자는 푸르게 푸르게 도열하듯 서 있는 삼나무를 다시 올려본다. 개발이냐, 보존이냐,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는 제주의 삼나무들. 비운을 비껴가 타지 말고 오래도록 하늘 높은 걸 알리는 지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작가 겸 숲해설가〉



승한 스님의 불교시 감상

⑥ 조지훈의 '고사(古寺) 1'

'눈부신 노을'과 '모란' 치환된 정토와 깨달음

고사(古寺) 1 / 조지훈

목어(木魚)를 두드리다
졸음에 겨워
고오운 상좌 아이도
잠이 들었다.
부처님은 말이 없이
웃으시는데
서역 만리(西域萬里) 길
눈부신 노을 아래
모란이 진다.

(조지훈 시집, 〈趙芝薰-한국현대시문학대계 19〉, 지식산업사, 1982)

49세의 짧은 나이로 졸(卒)한 조지훈(1920~1968) 시인은 불교를 소재로 모두 5편의 불교시를 썼다. 위에 소개한 '고사(古寺) 1' 을 비롯해 '고사(古寺) 2', '승무(僧舞)', '앵음설법(鶯音說法)', '범종(梵鐘)' 이 그것이다. 드문 기회니만큼, 모두 맛보고 가보자.

"목련(木蓮)꽃 향기로운 그늘 아래/ 물로 씻은 듯이 조약돌 빛나// 흰 옷깃 매무새의 구층탑 위로/ 파르라니 돌아가는 신라천년(新羅千年)의 꽃구름이여// 한나절 조찰히 구르던/ 여흘물소리 그치고/ 비인 골에 은은히 울려오는 낮종소리.// 바람도 잠자는 언덕에서 복사꽃잎은/ 종소리에 새삼 놀라 떨어지노니// 무지개빛 햇살 속에/ 의희한 단청(丹靑)은 말이 없고…" - '고사(古寺) 2'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薄紗) 고깔에 감추오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빈 대(臺)에 황촉(黃燭)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이 접어올린 외씨보선이여.//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모도오고//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煩惱)는 별빛이라.//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뻗는 손이/ 깊은 마음 속 거룩한 합장(合掌)이냥 하고// 이 밤사 귀또리도 지새는 삼경(三更)인데/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 '승무(僧舞)'

"벽에 기대 한나절 조을다 깨면 열어제친 창(窓)으로 흰구름 바라기가 무척 좋아라./ 노수좌(老首座)는 오늘도 바위에 앉아 두 눈을 감은 채로 염주(念珠)만 센다./ 스스로 적멸(寂滅)하는 우주(宇宙) 가운데 먼지 앉은 경(經)이야 펴기 싫어라./ 전연(篆煙)이 어리는 골 아지랭이 피노니 떨기나무에 우짖는 꾀꼬리 소리./ 이 골안 꾀꼬리 고운 사투린 범패(梵唄)소리처럼 낭랑(琅琅)하고나./ 벽에 기대 한나절 조을다 깨면 지나는 바람결에 속잎 피는 고목(古木)이 무척 좋아라." - '앵음설법(鶯吟說法)'

"무르익은 과실(果實)이/ 가지에서 절로 떨어지듯이 종소리는/ 허공(虛空)에서 떨어진다. 떨어진 그 자리에서/ 종소리는 터져서 빛이 되고 향기가 되고/ 다시 엉기고 맴돌아/ 귓가에 가슴 속에 메아리치며 종소리는/ 웅 웅 웅 웅 웅...../ 삼십삼천(三十三天)을 날아오른다 아득한 것.// 종소리 우에 꽃방석을/ 깔고 앉아 웃음 짓는 사람아/ 죽은 자(者)가 깨어서 말하는 시간(時間)/ 산 자(者)는 죽음의 신비(神秘)에 젖은/ 이 텅하니 비인 새벽의/ 공간(空間)을/ 조용히 흔드는/ 종소리/ 너 향기로운/ 과실(果實)이여!" - '범종(梵鐘)'

모두 같은 시집에 실린 작품들이다. 읽기만 해도 '옛 절집[고사(古寺)]' 과 '중춤[승무(僧舞)]' 과 '꾀꼬리 울음소리[앵음설법(鶯吟說法)]' 와 '커다란 종[범종(梵鐘)]' 소리를 실제로 보고 듣는 것 같다. 승려도 아닌데 조지훈 시인은 어떻게 이리도 절절히, 절집의 내력을 알고, 승려의 은밀을 알고, 중춤의 섬세함을 알고, 범종소리의 울림을 잘 알까. '깨우친 승려[도승(道僧)]' 가 아니면 절대로 헤아릴 수 없는 절집의 내력과 풍경과 은밀을 이렇게 그림 같이, 한 폭의 풍경화처럼 절묘하게 잘 해석할 수 없다. 필자도 승려이고 시를 쓰는 사람이지만, 필자가 승려이고 시인이라는 것을 정말 부끄럽게 만든다.

아니나 다를까. 조지훈 시인의 학력을 보았더니 동국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찌 이리 불교를 깊이 읽고 해석해낼 수 있겠는가. '꾀꼬리 울음소리' 를 '앵음설법(鶯音說法)' 이라고 탁월하게 조탁해낼 수 있겠는가.

'앵음설법' 은 정말 기막힌 비유다. 꾀꼬리 울음소리를 설법으로 듣는 귀와 눈과 마음이 있었기에 조지훈 시인은 이 같은 절묘한 비유로 불교시를 써낼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스님들의 희로애락과 은밀을 은밀하게 관찰하고 분석하고 해석해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노수좌(老首座)는 오늘도 바위에 앉아 두 눈을 감은 채로 염주(念珠)만 센다./ 스스로 적멸(寂滅)하는 우주(宇宙) 가운데 먼지 앉은 경(經)이야 펴기 싫어라' 라는 구절은 스님들보다 더 스님다운 심경을 그리고 있다. 아무리 천재 시인이라고 해도 상상만으로는 도저히 이를 수 없는 경지다.(그래서 필자는 필시 조지훈 시인이 절집생활을 실제로, 꽤 했으리라 짐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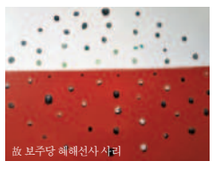
다시 오늘 소개하는 '고사(古寺) 1' 로 돌아가 보자. 필자는 이처럼 옛 절의 하루와 풍경과 교법(敎法)을 진실하고 절실하게 노래한 시를 보지 못했다. 이 시에서 '서역' 은 석가모니부처님이 태어나고, 불교를 탄생시킨 곳을 말한다. '깨달은 사람이 가는 곳', '극락세계', 또는 '서방 정토'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그 먼 곳에 도착하는 길의 거리가 '만 리' 이다. 만 리 먼 길을 가야 하기에 승려는 부지런히 가야한다. 부지런히 닦아야 한다. 그런데도 옛 절의 스님들은 옛 절[고사(古寺)]처럼 한가하게, 낮잠도 즐기며 게으르게, 한 발 한 발 가지 않는 듯 간다. 구름에 달 가듯이 간다. 그 끝에 '눈부신 노을(서방정토)' 이 있고 '모란(깨달음)' 이 있다. 그 피안(彼岸)을 찾아 오늘도 불제자들은 경(經)을 읽고 외며, 목어 속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조지훈의 불교시를 읽으면서 필자의 눈시울이 한없이 매운 까닭은? 눈물방울이 양 볼을 적신 까닭은? 필자가 입고 있는 잿빛 옷이 한없이 부끄러워진 까닭은? 그것은 아직도 '과실[도과(道果)]' 을 따지 못한 필자의 게으름과 갈애 탓이리라. 그 과실을 위해 오늘밤은 필자도 '웅 웅 웅 웅 웅.....' 울어야겠다. 경(經)에 낀 먼지를 걷어내고.

〈불교문학연구소장〉

흥륜사 故 寶珠堂 慧海 노스님 사리친견법회





이차돈 순교지로써 신라 최초 사찰인 경주 흥륜사에서는 2020년 입적하신 寶珠堂 慧海 禪師의 사리 친견법회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열반 후, 220과의 사리를 남기신 비구니계의 별, 慧海 노스님의 생전 수행을 사리 친견법회를 통해 생전 스님의 사상을 되새기게 될 자리에 걸음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불기 2566(2022)년 3월 향기로운 날
흥륜사 사부대중 합장

사리함 봉안기념 특별초청법문 : 혜국큰스님 (4월 24일, 오전 10시)

- 장소 : 흥륜사 금당 선방
- 기간 : 3월 19일 ~ 31일 까지 (오전 10시~ 오후 5시)
-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흥륜사
- 주관 : 경주황룡원신라문예센터
- 후원 : 국제신문, 부산일보, 불교신문, 법보신문, 현대불교, BTN불교TV, BBS불교방송, e-붓다, 맑은소리맑은나라
- 문의 : 흥륜사 054.773.3387 / 010.5616.3882

상담환영

- 빙의에 시달리시는 분 !!
- 신(神)내림 받기전에 신기운에 시달리시는분!
- 신을 받았어도 제대로 못하고 신기운 때문에 힘드신분!
- 신기운을 떼어내고자 하신분!

[상담대상]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가지 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 연예인, 연극인, 영화배우, 탈렌트, 가수등 마음이 여리고 순수하고 감정, 감성 중심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빙의와 신기운에 잘 접속되고 벗어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인생 전체가 불행해집니다! (예 : 만성우울증, 가위눌림, 불면증, 공황장애, 공포증, 불안장애등에는 반드시 빙의가 접속되어 있습니다!)
◉ 다 그런건 아니지만 직업상 시신을 자주 접하는 사건 현장 담당 경찰업무 하신분, 119대원, 소방업무 종사자, 장례식장 종사자 등 심약하신 분들은 빙의에 접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예 : 가위눌림, 악몽자주꿈, 불면증, 망자가 꿈에 자주 나타나는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 몸이 무겁고, 만성 피로감등)
◉ 이상행동, 어느 시점 이후 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등
◉ 희귀병(병원에서 낫지 않은), 조현병, 분노조절장애는 100% 빙의로 인한 것입니다! (감정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 (환자직접 오지않아도 됨) ⇨ 최고 전문가만 가능
◉ 문제해결, 증상해결 중심으로 상담
◉ 전생빙의치유, 마스터과정수료 ◉ 20여년 빙의, 신기운 천도 경력 노하우 갖춤
◉ 증세가 오래 되었거나 심한 경우는 일정기간 간격을 두고 천도정성과 사후 관리를 꾸준히 받으면서 가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원격사후관리 가능)

※ 전화 ·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전국 최고. 빙의치유. 천도. 신기운 제거. 차단. 벗어나기 전문상담원 제주불교금강선원

제주불교금강선원 ☎ 064-746-0789 오시는길 :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 3층

마음책 다시 읽기 '그대는 꽃입니다' ❹ 칭찬이 필요해요

▶ 한줄 요약
타인에 대한 칭찬을 위해서는 장점 발견시 이를 기록하는 습관을 갖고 억지로라도 표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칭찬'을 '메모'하면 '행복'이 두 배



고마운 점 수시로 '메모'
감사의 리스트 작성하고
표현 시간 정기적 가지면
좋은 관계 구축 지름길돼

감사와 행복으로 칭찬하기

마음에 꽃피우기 위한 따뜻한 대화의 기술 첫 번째 단계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마음의 꽃에 물주기를 하지 않으면 꽃들은 시들고 말죠. 하지만 꽃에 적절하게 물을 준다면 아름답게 피어나는 모습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직장동료 간에 우정을 나눌 때 사람들은 처음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은 서로 참 행복해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서서히 행복했던 순간들을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관계가 처음에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서로의 행동을 그저 당연시 해버리고 말죠.

그래서 '마음에 꽃피우기'의 첫 번째 수행은 다른 사람에게서 무언가 좋은 점을 발견했을 때 바로 메모를 해두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죠. 사랑하는 아들이 사려 깊은 행동으로 당신을 감동시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들에게는 칭찬할 만한 재능이나 재주가 있어서 가끔 당신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럴 때 아들을 칭찬하고 그의 장점을 인정해야 하는데 수행을 통해 당신은 방법을 잘 배우게 됩니다.

마음챙김 수행에서는 한 사람이 말하는 동안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도록 잘 들어줍니다. 당신은 당신의 배우자나 자녀, 동료나 친구들과 함께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수행은 당신이 누군가와 어울릴 때 상대방의 훌륭한 자질을 보다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감사와 칭찬 리스트 작성하기

일상에서 당신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사람의 모든 것에 대해 수시로 기록해 놓으면 좋습니다.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파일로 보관하면 도움이 되죠. 때때로 주변사람들은 당신이 인정할 만한 여러 재능과 자질을 보여줍니다. 무언가 사려 깊은 행동을 보일 때도 있죠. 그런데 당신은 너무 바빠서 그것을 칭찬해줄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과 같이 아름다운 주변사람들의 재능과 훌륭한 성품에 대해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다시 기억해내서 종종 물을 주듯 칭찬하도록 스스로를 수련해야 하는 것이죠.

컴퓨터에 '행복'이라는 이쁜 이름의 파일을 열어 놓거나 주머니에 작은 수첩을 넣어두세요. 매일 저녁 당신의 배우자나 자녀 또는 동료들에 대해 그 날 감사했던 것들을 적어 둡니다. 마음에 꽃피우기 수행을 하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 마음의 꽃에 물을 주어야 합니다. 당신의 기억이 되살아나도록 '그 마음에 꽃피우기' 시간이 되어 마음 꽃에 물 주는 수행을 시작하게 되면 당신은 배우자에게 정말로 감사한 모든 것을 말해야 합니다. 이 수행을 하는 동안 그 사람에게 존경을 표하면서 진정으로 감사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길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하기만 하면 됩니다.

가정에서 마음에 꽃피우기 수행을 할 때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나 날짜를 선택하세요. 특히 마음에 꽃피우기 수행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가족 중 당신이 유일한 사람이라면 공식적인 절차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에 가족끼리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한 후 적당한 시간에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먼저, '행복' 파일에 기록해 놓은 것을 미리 읽어봅니다. 그런 다음에 가족들을 보면서 당신이 그들에게 갖고 있는 감사한 마음을 떠올려 보세요. 그런 다음 당신 자녀들의 어떤 성공을 축하하며 큰소리로 칭찬하세요. 가족 전체가 그것을 알게 하는 거죠. 이 수행을 매주 하면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사랑과 신뢰가 새롭게 생깁니다. 직장에서도 동료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지만 우리는 속으로만 간직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행복' 파일을 만들어서 잊지 않고 고마움을 표현한다면 모두에게 즐거운 직장생활이 될 것입니다.

감사 문화 만들기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 꽃에 물주는 것으로 감사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서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그가 하는 일이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고 한다면 사실 당사자가 그것을 가장 먼저 듣고 싶어 할 거예요. 바쁜 직장 생활에서 사람들이 서로에게 조언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현명한 투자랍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오래된 가구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반대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한다면 전혀 즐겁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 해 동안 함께 살았거나 일한 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당신은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당신이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게 되면 그 사람들과 함께 지냈던 아름다운 순간 또는 당신이 그와 함께 헤쳐 나갔던 어려운 순간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얼마나 능숙하고 용감하게 그것을 잘 해결해 나갔는지도 되돌아보게 되죠. 그러면서 당신은 그 모든 순간에 감사하게 되고, 그가 했던 긍정적인 행동들도 생각나 더욱 감사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부부나 가족, 동료 또는 친구들끼리 서로의 마음에 존재하는 좋은 씨앗에 정기적으로 물 주는 시간을 정해놓으면 좋습니다. 상황이 나빠질 때까지 계속 기다리지는 마세요. 너무 늦게 마음에 꽃피우기 수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진심어린 감사를 소리 내어 표현하는 서로의 꽃에 물 주기 수행시간을 매주 금요일이나 토요일로 정해도 좋구요, 다른 날이라도 정규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은 꼭 갖도록 하십시오.

처음 느꼈던 사랑을 떠올리기

그런데 관계가 이미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면 그 사람이 당신에게 처음으로 사랑고백했던 때를 회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자녀, 아내나 남편, 상사나 직장 동료의 관심을 처음 받았을 때를 떠올려보고 그때 당신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다시 회상해 봅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결혼 후 당신은 아이를 간절히 원했고 마침내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갓 태어난 어린 아기를 보면서 사랑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그러나 점점 아기의 울음으로 불면의 밤과 낮을 보내면서 의식적으로는 그렇게 말하거나 생각하지는 않을지라도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사랑스런 아기가 당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당신이 자녀에게 처음 느꼈던 감정과 생각을 현실과 대조해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깊이 들여다보세요. 아이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면서 부드럽게 말하세요. 아이가 당신의 말을 충분히 이해할만한 나이가 됐다면 당신은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길 바라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애정 어린 마음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녀가 아직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기인 경우라도 한 인간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문제는 나이든 자녀들은 당신이 자애로운 마음으로 부드럽게 말하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책임감 있고 합리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당신은 끝까지 자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말해야 합니다. 자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자녀는 마침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책임감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이라서 당신이 꿈꿔 왔던 여성이나 굉장히 자상하고 멋진 남성을 당신의 삶 속에서 만났습니다. 당신이 이 사람과 처음으로 사랑에 빠졌던 순간을 한 번 회상해 보세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 진지한 감정을 불러일으켜보시고, 당신의 삶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것에 감사하며 진심을 담아 편지를 써봅니다.

다음 단계로 당신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우리는 너무 미숙해서 지금 서로를 서서히 잃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마음에 꽃이 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말해 주세요."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하기 전에 당신은 먼저 따뜻한 기억을 되살리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꽃에 물주듯 칭찬하기

내가 아는 부부는 결혼했을 당시에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면서 남편은 아내의 소유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남편과 아이들과만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어요. 시어머니가 아들과 손자를 보러 오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죠. 그녀는 친구도 없었고 스포츠나 음악수업도 받지 않았고, 마음챙김 수행을 위한 수련회에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부부는 결국 이혼을 했는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아이들을 보기 위해 서로 잠깐 만날 때마다 고통스러웠답니다. 아이들을 방문하기 전이나 후에 두 사람에게는 항상 큰 싸움이 기다렸고 아이들에게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마음챙김 수련회에 참가하기로 결심하면서 나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스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 수련회는 제가 처음으로 갖는 탈출구입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존경하는 스승님이신 틱낫한 스님과 함께하는 수련을 꿈꿔 왔습니다. 여러 해 동안 저는 책을 통해서만 알고 있었지요. 지금까지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 전처는 저의 어머니가 아이들을 방문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고 너무 감옥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했다고 해서 그녀와의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네요.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그에게 그녀 안에 있는 꽃에 그냥 물을 주듯 칭찬하고, 어떤 다른 형태의 대화도 아직 시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몇 주가 지난 후에 그가 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스님, 효과가 있었어요. 저는 사실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일단 잠깐 동안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그녀도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 순간 제가 저의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너희 엄마를 좀 봐봐. 너희 엄마는 눈이 정말 예뻐, 너희들도 엄마의 눈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니?' 라구요."

그는 그녀 안의 꽃에 계속 물을 주었고, 그로 인해 아내는 남편에 대한 적대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후로 그들은 매주 두 번씩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서로 만나야 할 때마다 내면의 꽃에 물을 주는 것만으로도 매우 즐거워졌다고 했습니다.

저자 : 찬콩 스님 〈사유수 펴냄〉





대행 스님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팍팍 놔버리지 뭘 그렇게 불들고 앨 쓰십니까

망상과 졸음으로 집중이 안 됩니다

질문 : 마음공부를 집중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루 한 시간 정도는 좌선을 해 보려고 하는데 앉아 있으면 계속 번뇌, 망상이 생기고 안 그럼 졸음이 몰려와서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 보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게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 그래서 선지식들은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졸지 말고 정진해라.", "망상을 끊어라." 철저히 그랬습니다. 그것뿐입니까마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떠한 생각을 했느냐 하면 '망상을 끊기 이전에 사람이 생각을 내지 못하면 목석이 되지 않나? 아니, 생각을 자꾸자꾸 내야 그게 발전을 하는 거지 어떻게 생각을 망상이라고, 방편으로 이름을 지었을까?' 하는 의심이 났단 말입니다.

망상이다 졸음이다 이런 걸로 인해서 공부를 못 한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둘로 보는 까닭에 못 하는 것이지 둘로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을 망상이라고 보겠으며 졸음이 와서 공부를 못 한다고 하겠습니까? 일하느라고 못 한다, 졸려서 못 한다, 바빠서 못 한다, 망상 때문에 못 한다 이런 문제들에 여러분이 매이신다면 영 그 자리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나오더라도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자리에다 그냥 내버려 두지, 그걸 망상이다 뭐다 하고 끊으려고 애를 쓰니, 그게 칼로 물 베기지 어떻게 끊어집니까. 어떠한 물체입니까, 그게, 끊어지게? 어떠한 물체라면 칼로 끊을 수 있지만 이 마음이라는 것은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칼로 물 베기나 똑같습니다. 그걸 끊으라는 게 아니라 공부할 수 있는 재료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드려 왔습니다마는, 나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육조 스님의 뜻을 본다 하더라도, "불성인 주인공이 청정함을 어찌 알았으리까."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공으로 인해서 여여함을 어찌 알았으리까." '불성'이라는 것은, 즉 말하자면 불이 들어오는 것을 말하고, '주인공'이라는 것은 불이 들어오게끔 전체가 작용되도록 한마음으로 뒷받침하는 겁니다. 그렇게 같이 돌아가는 것을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즉 말하자면 영원한 그 생명의 근본과 마음 내는 거와 육신이 움죽거리는 거를 포함해서 주인공이라고 하고, 그대로 한마음으로 딱 당쳐서 주장을 세운 것이 바로 근본 불성입니다. 그러니까 둘러치나 메치나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모든 것을 일체 갖추어 가지고 있음을 어찌 알았으리까. 주인공으로 인해서 일체 만법을 들이고 냄을 어찌 알았으리까." 이겁니다. 또 거기다 말을 한마디 더 붙이자면 "주인공으로 인해서 자유자재함을 어찌 알았으리까." 하는 겁니다.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새겨 보신다면 우리 모든 행이, 일체가 다 머무르는 바 없이 머무르는 겁니다.

우리가 깊은 정글을 지나간다고 합시다. 지금 깊은 정글을 지나가는데 거기는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또 스치기만 하면 말아서 피를 빠는 풀들이나 나무들이나 어떤 동물이나 다 곁들여서 있다고 봅시다. 그런다면 그 정글을 넘어가야 대로(大路)가 나오는데 정글을 가는 길에 무슨 잡담이 필요하고, 정신을 어디다가 팔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나아가면서 어떠한 게 닥친다 하더라도 그냥 타파하고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망상이다 할지라도 '어, 망상은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재료야.' 하고 넘어서야 하고 시공을 초월해서 볼 때에, 잠이 온다 하더라도 '잠자는 게 잠자는 게 아니다'라는 얘깁니다. 잠 안 자는 것도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닙니다. 꿈도 아니요, 생시도 아니듯. 모두가 이렇게 그대로 여여한 생활 자체가 그대로 진리요, 참선이요, 부처님 법입니다.

졸음이 오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건데, 그 놈한테서 나오는 건데, 그냥 편안하게 자게 내버려 두지, 그 뭐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아, 자다가 깰 때도 있겠지 내내 잡니까? 내내 자도 할 수 없는 거고 내내 깨어 있어도 할 수 없는 거지, 그거를 성화를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정글을 넘어섭니까? 자든지 깨든지 시공을 초월해서, 바쁘게 서둘지 말고 차근차근히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형상이 돼야만이 그 자리를 과감하게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부처님 법이라고 해서 우리들의 법이 다르고 부처님의 법이 다르다고 생각지는 마세요. 우리들이 즉 부처이자 중생이니까요. 그러니 3천 년 전에만 부처님이 계셨던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계신 한, 부처님은 항상 이 자리에 계십니다. 어떠한 망상이든 어떠한 애고든 어떠한 병고든 어떠한 문제가 닥쳐온다, 내 생명이 지금 위태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자기 몸뚱이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끄달려서는 안 됩니다. 텔레비전 몸체와 화면 같은 외형을 어떻게 자기라고 하겠습니까? 마음에 갖추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바로 심력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형성시켜서 이날까지 끌고 온 그 장본인, 불성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육신이 없어도 아니 되고, 육신을 나라고 해도 아니 됩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으로 비유한다면, 속의 기능이 없어도 안 되고 화면이 나오는 몸체가 없어도 텔레비전의 역할을 다 못 합니다.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먼저고 나중이고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공부 하시는 데는 절대로 끄달려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끄달린다는 말이 거기 들어갈까? 지금 이 세상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물질이 없어도 아니 되고 물질만 있어도 아니 됩니다. 생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물질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영혼들도 연결 연결 연결 연결, 연결을 짓고 돌아가는 데는, 한마음으로서 공심으로 돌아가려는 데는 바로 물질을 필요로 합니다.

인간 마음의 그 무한한 레이저 광선, 이 마음의 레이저 광선은 무한이지만 물질적인 레이저 광선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이저 광선이 지금 세계적으로 안 쓰이는 데가 없죠. 하다못해 라디오까지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무한량으로 쓸 수 있고, 모든 것을 자유스럽게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다는 얘깁니다. 거짓말로 알지 마세요. 사대 성인들과 깨달은 분들 모두가 다, 역대를 거치면서 발견한 거고 연구한 거고 실천한 거고 그렇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머리 깎은 사람과 머리 안 깎은 사람이 다 동일하게 공부할 수 있다고 해서 유마힐 거사도 그 시절에 났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불성이 있다 할지라도 지혜가 풍부해야 들이고 내는 데 조금도 손색이 없고 또 모가 지지 않게 할 수 있는데, 바로 그런 지혜도 주어져 있습니다.

심한 말을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형선고에다가 무기 집행유예를 받고 한 계단 한 계단씩 조심스럽게 마지막 계단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만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신다면 아마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22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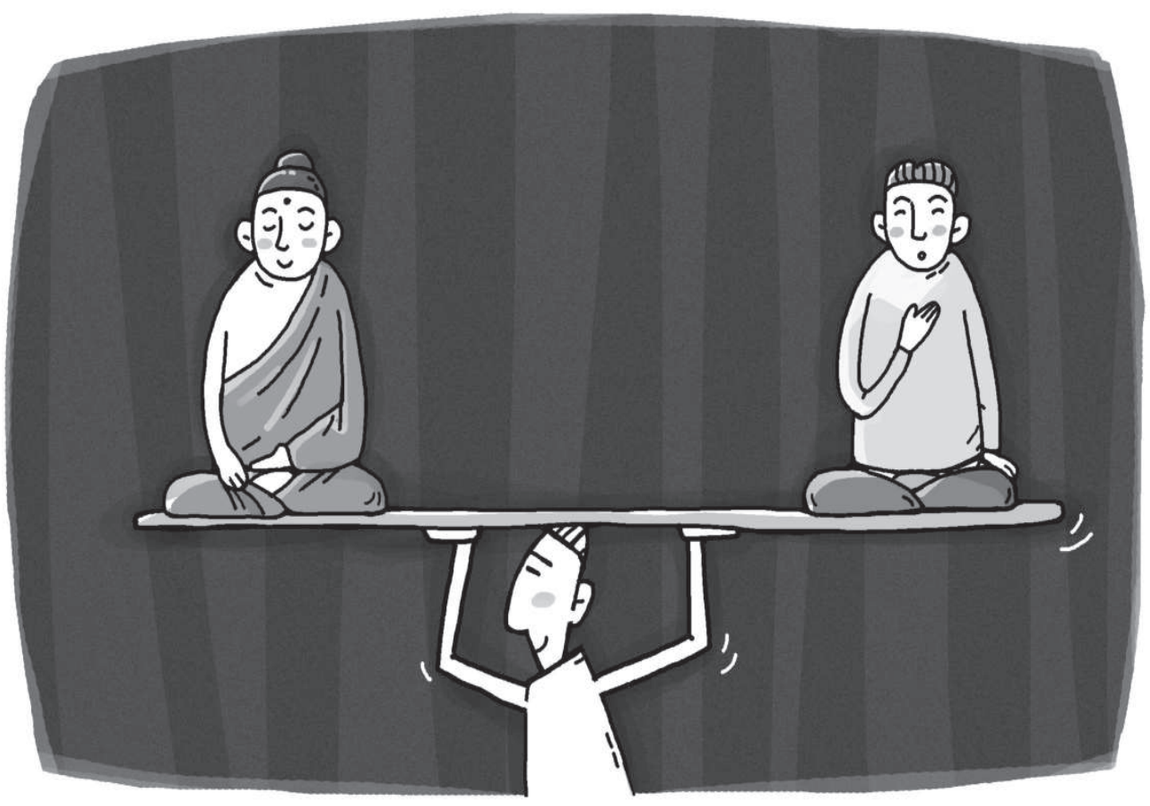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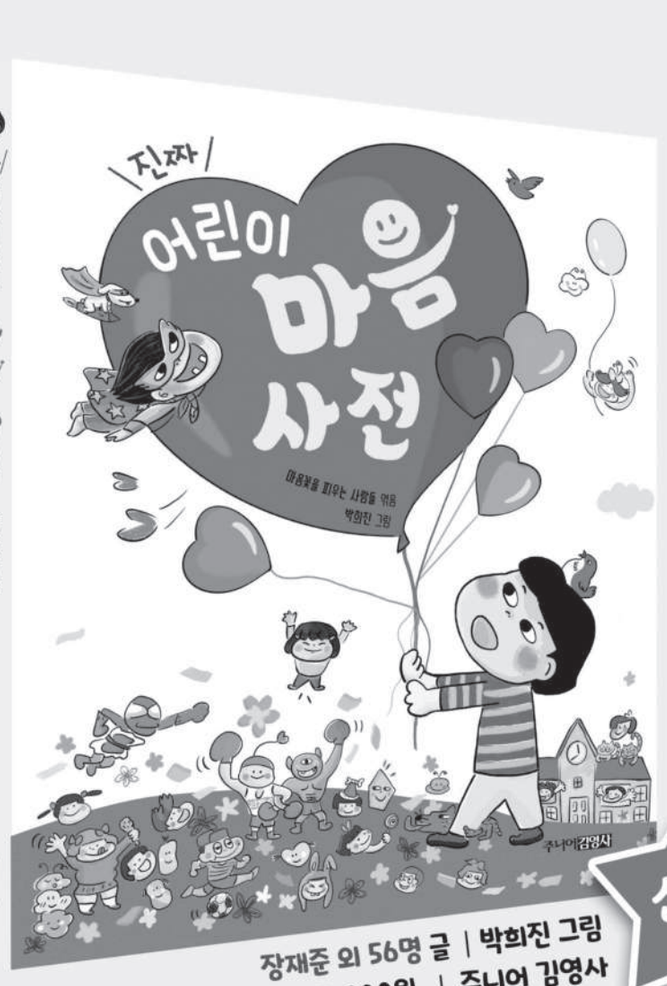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월간 어린이잡지 「마음꽃」 인기코너
〈아무나 쓰는 이야기〉 모음집



우리가 잘 몰랐던
어린이의 진짜 마음을
알아볼까요?

장재준 외 56명 글 | 박희진 그림
144쪽 | 12,800원 | 주니어 김영사

신간!

일주일 동안 너무 바빴다.
월요일에는 놀랴,
화요일에는 학교 숙제하랴,
수요일에는 책 읽으랴,
목요일에는 학원 가랴 ……,
금요일에도 또 학원 가랴 ……
초등학생은 바빠도 너무 바빠!
-본문 중에서

인터넷 판매중

전국 대형서점 및 온라인 서점(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등)에서 구매하세요.

무조건 주인공에 맡기면서 물러서지 말고 패기 있게 나가세요

☞ 21면에서 계속

그런데 제일 문제는 지금 정글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지금 사느냐 죽느냐, 이 중세계에서 승진을 하느냐 하천세계로 좌천이 되느냐 하는 판국이죠. 좌천이 되면 세세생생에 쳇바퀴 돌듯 그냥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끌려다니면서 고(苦)를 면치 못해요. 자기뿐만 아닙니다. 수십억의 중생들이 내 몸속에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한눈팔 사이가 어딨습니까? 그렇다고 신경을 쓰고 모질음을 쓰면서 '아이고, 이걸 끊어뜨리지 않고 해야 하는데, 공부를 어떡하면 잘할까?' 이런 걱정 근심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본래 이 생활이 종교이고 참선이기 때문에 그대로 생활하는 것이 바로 자기 주인공에서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낸다는 사실, 이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열쇠가 주어질 것입니다.

참나를 발견하는 지름길?

질문 : 제가 요즘 마음공부를 하고 있는데 수행 방편은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나를 발견하는 지름길은 없을까요?

답변 : 하하하. 이런 말을 어디서부터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물질로서의 현자만을 가지고는 도저히 알 길이 없어요, 현자만 가지고는. 그래서 "전자 부(父)와"라고 하죠. 부처님이 부라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지금 시쳇말로는 전자라고 해도 되는데 거기 사람이 끼어 있으니까 전자 부라고 합시다. 전자와 현자가 한데 합쳐지는 반면에 그 가운데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 바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하나로 한데 합쳐져 가지고 용도에 따라서 방출이 되죠. 많이 방출이 됐다가 제자리에 올 수도 있고, 또 제자리에서 적게 배출될 수도 있고 많이 배출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더한다 덜한다 말할 수도 없고 한계가 없어요. 상대가 되는 어떠한 물체가 작으면 작은 대로 바로 합쳐지고 크면 큰 대로 합쳐지니까. 그리고 크면 큰 대로 발산이 되고 작으면 작은 대로 발산이 되니까. 그것이 얼른 쉽게 말해서 생산이죠. 이건 발산이라고 할 수가 없죠. 생산이죠. 생산을 해서 이것이 앞으로 더 발전이 되고 능숙해지면, 앞서 거쳐 왔던 진화 과정은 그냥 한데 합쳐져서 없어지고 다시금 또 일어나죠. 이렇게 해서 일체 만물만생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극치적인 문제는 지금 나를 어떻게 발견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과학자들이 지금, 쉽게 말해서 이것은 어떻게 생기고, 요거는 몇 자고, 요건 둘레가 얼마고, 요거는 뭘 하고 있고 어디서 나오고, 요런 것만 가지고 그러는데 이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신통은 도가 아니니라." 이러셨어요. 오신통이 지금 과학자들이 하는 일들이거든요, 다. 보는 사이 없이 보고, 듣는 사이 없이 듣고, 아는 사이 없이 알고, 어디서 온 거를 아는 사이 없이 또 알고, 가고 오는 사이 없이 가고, 이 문제를 그렇게 잘 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천안통을 알고 천이통을 알고, 타심통을 알고 숙명통을 알고, 신족통을 안다 하더라도 그건 도가 아니니라 이랬어요.

비교를 한다면, 과학자들이 오신통을 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 오신통 안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 오신통을 자유스럽게 굴릴 수가 없고 나라는 존재를 알 길이 없죠. 이 오신통 바깥으로 벗어나야 오신통을 굴릴 수 있는데 말입니다, 마음대로. 우주 세상 삼라만상, 즉 말하자면 과거, 현재, 미래심, 이 삼심(三心)을 다 알아서 처리할 수가 있는 그런 역할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모두 지혜롭게 어디 걸림이 없이 아주 여여할 텐데, 이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질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지금 어항 속에서 고기가 나오지 못하는 격과 같기 때문입니다. 고기들이 바다에서 바깥으로 나오면 죽듯이 공기통 안에서 우리는 한 발짝도 떼어 놓을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공기 바깥으로 벗어나도 아주 광대하고 여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길러야 한다, 첫째는 마음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바깥에서 찾는 것도 아니고 바로 나 있는 자리에서 찾아야 합니다. 내가 움죽거리고 보고 듣고 행하는 전체를 바로 내 그 알맹이가 하는 거니까, 얼른 쉽게 말해서 영원한 뿌리가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물질도 자기가 형성시켰는데, 형성을 시킬 때에는 정자 난자를 빌려서 같이해야만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자 난자를 빌려서 자기가 형성을 시켜 놓고 자기가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자기 안의 자생 중생들은 전자에 살 때 악업 선업을 지은 자체이기 때문에 오신통이 바로 컴퓨터라고 할 수 있어요. 자동적인 컴퓨터예요. 우리가 행하고 말하고 사는 것이 전부 거기에 입력이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자에 살던 입력이 현실에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입력된 자리에다 내 형성된 것까지 일체 다 맡겨라. 몰락 맡겨라. 거기서 지금 운행을 하는 거니까, 행을 하게 하는 거니까, 말을 하게 하는 거니까, 보게 하는 거니까 모두를 거기다가 몰락 다 놓으라는 거죠. 놓지 않으면 어떡할 겁니까. 왜냐하면 안에도 자생 중생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기 때문에 내가 혼자 먹은 것도 없고, 내가 혼자 한 것도 없는데, 뭘 가지고 내가 혼자 산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놔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놓으려도 뭐가 있고, 뭐가 걸리고, 조그만 일은 놓을 수 있는데 큰일이 생기니까 못 놓는다고 합니다. 못 놓긴 뭘 못 놓아요? 아니, 자기가 그대로 놓고 가는 건데 말입니다. 자기가 혼자 먹고 가는 겁니까? 혼자 다닙니까? 아니, 헤아릴 수가 없이 많은 덩어리가 지금 다니는데 혼자 다닙니까, 놓을 수 없느니 놓을 수 있느니 거론이 붙게? 진짜 놓을 수만 있고, 양자가 바로 전자라는 걸 안다면 진짜 그냥 그대로 여여한 겁니다.

고질적으로 허리가 아픈데…

질문 : 저는 고질적으로 허리가 아픕니다. 계속 관을 하다 보니 고통이 좀 덜해지긴 한 것 같은데 시원하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제 욕심이 너무 과한 것인가요?

> 깊은 정글을 지나가는데 거기 무슨 잡담이 필요하며
> 어디다가 정신을 팔 수 있겠습니까?
> 오로지 나아가면서 어떠한 게 닥친다 하더라도
> 그냥 타파하고 가는 겁니다.

답변 :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었죠. 병원의 의사입니다. 수술을 했는데 잘못 건드려 가지고 잘못됐는데, 의사들은 알죠. 이 의사 저 의사 불러다가 다 해 보니까 이건 뭐, 급박해졌어요. 이제 문도 닫게 되고 큰 문제가 벌어질 것을 생각하니 그냥 눈앞이 캄캄해진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길래 알았다 그랬죠.

그렇지만 그 알았다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것이 가벼운 대답이었다면 아마도 그건 안 됐을 겁니다. 무거운 대답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 시각부터 달라지면서 부위가 그냥 다 정상적으로 됐다는 겁니다. 의사인데도 '이건 내가 의사 할 만한 가치가 없구나.' 하는 생각에서 그냥 탁! 아예 만사가 다 버려지더랍니다. '나는 의사 될 자격도 없고, 우리가 모두 거기만 매달려서 연극배우처럼 사는구나.' 하는 생각에서 말입니다.

그랬듯이 그런 걸 좀 알려면…, 지금도 시들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전력을 다해서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파서 재고 재고, 또 들고 또 들고 해야 합니다. 육조 스님도 둘이 아닌 도리에서 나투는 도리를 배우려고 그냥 12년 동안이나 또 뭉쳐 놓고 그렇게 하셨죠. 몸은 팔방으로 돌아다녔으나 마음은 한 군데다 항상 일념으로서 두셨다는 얘깁니다.

그렇듯이 여러분이 천차만별로 살림살이를 사시겠지만 그 살림살이는 바로 여러분의 그 불성, 한마음 속에서 들이고 내는 겁니다. 일체가 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고 모두 살죠? 똑같이 숨 안 쉬면 죽을 겁니다. 일체 만물만생이 숨 안 쉬고는 못 사는 겁니다. 그렇게 일체 만물만생이 다 숨쉬고 살듯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 포괄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개별적이고 하치않은 나, 주인공.'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얼마나 귀중한 한마음입니까? 이것은 개별적인 자기 한마음이 아닙니다. 이건 지수화풍이 동시에 같이하는 것인 반면에 또 그 지수화풍 속에서 갈라지는 건 얼마나 많습니까. 지수화풍이 있기 이전에는 어땠구요, 또, 천차만별의 이름이 전부 모여서 그걸 이룬 거 아닙니까. 산소와 수소가 한데 합치니까 물이 됐듯이.

그러니까 그 허리가 그대로 낫게 되는 거죠. 허리뿐만 아니라, 자기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서 '아무리 해도 이거는 낫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분도 있고, 또 입이 돌아가거나 뭐,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당장 그냥 침으로 다스리려고 하고 야단나죠. 그렇다고 그런 걸 말할 수도 없죠. 애통할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 말해 볼까요? 이것을 뛰어넘으려면 죽고 사는 것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러는 거를 그렇다고 해서 '그건 법이 아니다' 할 수도 없는 거고 말입니다. '그럭하면 뛰어넘을 수 없다' 할 수도 없고, 그냥 가는 대로 뒷받침만 하고 가는 거지 어떡합니까. 내가 죽고 살고 이런 거를 떠나야만이 된답니다.

그까짓 거 캠핑 나와서 놀다 가는 거, 그냥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팍팍 놔 버리지, 그놈의 걸 뭐 때문에 붙들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에 놀러들 가시죠? 놀러 가실 때는 바로 탄생하는 겁니다. 다 놀고 들어올 때는 멸하는 겁니다. 아, 그렇게 잠시 잠깐 가서 놀다가 올 거를, 뭘 그렇게 그냥 서로 찢고 뺏고 모두 살겠다고 애를 쓰고, 더 살겠다고 그러십니까.

손주가 마음을 못 잡아요

질문 : 저의 손주가 고1 때 중퇴를 해서 아르바이트 한다고 다니는데 한 군데 며칠을 못 다니고 게다가 도벽이 생겨서 자꾸 남의 물건을 훔쳐오고 또 친구들을 데려다가 집을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마음을 잡지 못합니다. 제 말은 씨가 먹히지도 않고요. 자기 엄마는 벌어먹느라고 밤마다 일하러 가는데, 이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바르게 잡을 수 있을까요?

큰스님 : 그 백 마디 천 마디 해도 다 소용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온 거라면 과거에 살던 자기 주인공한테 모든 걸 관하시고 거기다가 그냥 편안하게 놓으세요. 그래야 해결이 납니다. 마음으로 지은 거 마음으로 해결을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육체가 고생이죠. 그래서 이 마음공부를 열심히 하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체가 없는 마음이 주인이고, 체가 있는 자기 몸은 체가 없는 자기에게 시자일 뿐이다. 시자가 그저 마음 따라서 잘하되 그 시자고 주인이고 그 가운데 내가 이게 보고 듣고 하는 판단이 흐리면 안 되죠. 흐리게 하지 말고 무조건 거기다 맡기고 그냥 진행하고 나가세요. 이익한 일이면, 남이 이익하다면 거짓말도 해도 거짓말이 아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잘해서 거기다 맡기고 나간다면, 무조건 물러서지 말고 패기 있게 그냥 그렇게 나가면서 점프하시면요, 그대로 여러분들이 편안할 수가 있어요. 정말입니다. 이건.

그 요량을 몰라서 그렇지, 이거 자꾸 막다른 골목으로 자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면 정말이지 그 큰일 나는데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걸 보고도 아, 주인공을 진짜로 믿는다면 거기다 그냥 맘 편안하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여기서 그냥 마음의 기탄이 없고 걱정이 없으니깐…, 아이, 급하잖아요, 주인공이. 영혼이 자기의 영혼을 시켜서 그 영혼을 끌어오니까, 마음이 끌려오니깐 육체도 끌려오죠. 그렇게 해서 착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이, 절에 가도 고만 안 가도 고만, 마음공부 하는데 가면 뭘 해? 여기 집에서 하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러는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길에 오다 가다가도 배우는 수가 있는데, 이 스님네들한테 와서 또 이 대중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토론을, 얘기를 하는 거를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것도 배울 수 있고 '저렇게 해야겠다' 하는 것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그 마음공부를 잘하시면 덩달아 따라서 그거는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진짜 해 보세요, 없어지나 안 없어지나.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 스님 법문의 정수가 담긴
2019년 최고의 결정판!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초창기 법문의
핵심을 모아 한 권으로 엮은 책

삶의 지침이 될 지혜의 가르침들이
내 마음에 꽃이 되어 피어나다!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양장본 | 총 384면 | 책값 18,000원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무진향 031)470-3118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현불 논단

불평등, 기후위기 가속화 원인



민정희
국제종교시민사회 네트워크 사무총장

국가경쟁력 4위에 빛나는 위상
여전히 국제사회선 '기후 악당'
기후대응지수 64개국 중 59위

가장 영향력 있는 IPCC보고서
30년만에 처음으로 '정의'언급
기후변화 대응의 장애요인으로
불평등·부정의·자본주의 꼽아

5월 10일 출범할 윤석열 정부
세계 기후정책에 역행 우려돼

한국이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K문화, K방역, 한국의 경제력 상승과 촛불로 상징되는 민주주의 등이 요인이다. 스위스의 세계경쟁력센터(WCC)가 발간한 '2021년 IMD 국가경쟁력 연감'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미국, 독일, 영국에 이어 4위로, 프랑스와 일본을 앞섰다. 요샛말로 단군 이래 가장 잘 나가는 시기이다. 반면 독일 환경단체 저먼워치와 기후연구단체 뉴클라이밋연구소가 국가별 기후 정책과 이행 수준을 평가한 '2021년 기후변화대응지수(CCPI)'에서 한국은 64개국 중 59위를 기록했다. 국제사회에서 왜 한국을 '기후악당'으로 부르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동안 전 세계 기후위기 대응의 방향과 각국의 정책 수립에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온 것은 'IPCC평가보고서'이다. IPCC 평가보고서가 나오기까지 1천여 명에 달하는 저자와 1천여 명의 기여저자, 1천여 명 이상의 검토자가 참여한다. 평가 대상 논문만 3만 편 이상으로 방대하다.

이는 양주에서 10여 년을 억류되어 있던 구마라집이 마침내 장안에 들어와 역경사업을 펼치던 모습과 비견된다. 〈법화경〉 번역에는 문도 8백여 명과 사방의 의학 승려 2천여 명이, 〈범망경〉 번역 등에는 각각 3천여 명의 승려가 모였다. 당대 비교 대상이 없었던 역경 프로젝트처럼, IPCC평가보고서가 전 세계 학계, 정부 및 산업 부문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표준 참고자료로 삼는 이유와 권위를 짐작할 수 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전 세계의 기후운동은 기후변화의 근본 원인이 경제 성장주의와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한 인과의 도리에 따라, 역사적으로 탄소를 많이 배출한 국가나 기업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하고, 기후변화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과 국가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후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했다. 반면 1990년의 첫 보고서부터 2014년의 5차, 2019년의 특별보고서에 이르기까지 IPCC보고서에 '정의(justice)'가 언급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올해 2월 28일 발표된 약 4천 페이지에 달하는 제6차 제2실무그룹 보고서 〈기후변화의 영향, 적응과 취약성〉은 눈을 의심할 정도다. '정의'가 670회, 불평등 446회, 자본주의 등의 연관단어만 거의 2천여 회에 이른다. 기후변화를 가속시키는 원인이자 기후변화의 영향과 피해를 줄이는데 장애요인으로, 불평등과 부정의,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으로 적시하고 있다. 나아가 끊임없는 성장중심의 발전 담론에서 벗어나 다양성과 행복, 좋은 삶(buen vivir), 평등을 강조하는 발전 담론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권위 있는 보고서의 변화는 각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시대흐름에 맞지 않은 경제성장 논리와 기업이익만을 옹호하는 논리만으로 기후정책의 발목을 잡기에는 IPCC보고서의 파도가 높고 깊어 보인다.

논란이 많은 GDP성장론의 관점으로만 접근해도 기후위기 대응은 경제와 무관하지 않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환경보호(environment), 사회적 책임 경영(social), 윤리경영·지배구조(governance)의 앞 글자를 딴 'ESG' 평가기준이 낮은 기업의 주식과 채권은 매입하지 않는다. 이미 보유하고 있더라도 화석연료 매출이 25%를 넘는 기업은 매각하고 있다. 2020년 2월 네덜란드 최대 공적연기금운용공사(APG)가 석탄 사업을 지속한다는 이유로 한국전력에 투자한 6천만 유로(약 8백억 원)를 회수했다. 지속가능한 생태·윤리경영을 하지 않은 기업은 자금 투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5월 10일 취임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기후정책이 세계적인 흐름과는 역행할 것으로 전망되어 더욱 우려된다. GDP성장의 꿀물, 단군 이래 최고라는 찬사에 빠져 혁신적인 전환을 이루지 못하면 한낮의 단꿈으로 끝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유응오의 문화 산책

소년은 어른 행동 따른다

③ 드라마 '소년심판'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의 장르는 '휴먼 법정 오피스극'이다. 장르에 휴먼이 붙는 것은 주제가 휴머니즘으로 귀결되기 때문이고, '법정 오피스'이 붙은 이유는 소년법원의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작품은 소년범을 혐오하는 심은석 판사가 지방법원 소년부로 부임하면서 시작된다. 심은석 판사가 소년범을 혐오하는 이유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이 아이들이 아파트 옥상에서 던진 벽돌에 맞아 죽었으나, 그 범인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소년범들에게 "이래서 내가 너희들을 혐오하는 거야. 갱생이 안 돼서"라는 말을 서슴지 않는 심은석 판사의 모습에서는 법이 지닌 엄벌주의를 읽을 수 있는 반면, 소년원 출신이기에 소년범들의 마음 속 상처를 보듬어주려고 하는 차태주 판사의 모습에서는 법이 지닌 교정주의를 읽을 수 있다.

형벌의 기능이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재사회화에 있다고 보는 교정주의와 달리 엄벌주의는 엄벌만이 범죄자의 재발을 막고 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엄벌주의의 사상적 근간은 토머스 홉스가 〈라비이어던〉에서 기술한 아래의 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정의, 공평, 겸손, 자비 등 요컨대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대하라'고 하는 자연법 자체는 어떤 권력의 위협 없이는 지켜지지 않는다. 칼이 없을 때 사회적 약속은 말 뿐인 것에 불과하며 사람을 보호해줄 힘이 없다."

그래서 심은석 판사는 극중에서 "가르쳐야죠, 사람을 해하면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라는 대사를 하는 것이다. 극중 재판부가 심리하는 사건들은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대전 중학생 렌터카 절도 운행 추돌사고 등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어서 리얼리티를 더하고 있다. 이 작품은 한국 드라마의 단골메뉴인 신파적 감성을 내세우지 않는 게 특징이다. 소년범들이 저지른 잔혹한 범죄들을 여과 없이 보여주되 소년범들이 그 범죄를 저지른 근원적 이유가 불우한 가정환경 때문임을 설득력 있게 묘파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의 미덕은 두 가지다. 첫째,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에피소드들을 통해 교정주의에 방점이 찍혀 있는 소년범들에 대한 법체계가 옳은지 회의를 갖게 한다는 것이고, 둘째, 소년범들의 범죄는 근원적으로 어른들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일깨워준다는 것이다.

사견이지만 필자는 에피소드 중 문광고 입시비리 사건을 다룬 내용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강원중 부장판사가 자신의 아들이 입시비리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알면서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는 대목에서는 많은 정치인들을 떠올리게 한다.

"성경을 읽느라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된다"는 심은석 판사의 말은 그 어떤 대의를 위한 일일지라도 그 방법이 그릇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소년범죄의 해답은 "바퀴가 수레 끄는 소의 발을 따르듯" 소년들은 어른들의 행동을 따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리라. 〈소설가〉

社 說

간화선 대중화 원년 되길

전국 선승과 불자들이 모여 마음 속 부처를 체험하는 간화선 대법회가 4월 20~26일 경북 문경 봉암사 세계명상마을에서 열린다. 한국불교 전통수행인 간화선은 대중화라는 중대한 시대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선지식들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간화선의 요체를 설명하는 간화선 대법회가 열리는 것이다.

간화선 대법회는 2013년 서울 조계사를 시작으로 2년마다 열렸다. 하지만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미뤄져 3년 7개월 만에 열리게 됐다. 이번 간화선 대법회에는 제15대 종정 성파 스님을 비롯해 아흔 평생 처음으로 산문 밖에서 설법하는 지유 스님 등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승 7명이 나선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법회가 열리는 봉암사 세계명상마을은 '국민 참선방'으로 새로 문을 여는 국제선센터로 2015년 전국선원수좌회의 고우·적명 스님 등 우리나라 대표 선승들이 봉암사에 모여 건립을 결의한 지 7년 만에 문을 열게 됐다. 세계명상마을은 매달 한 차례씩 9일 화두 명상 집중수행과 평일 선스테이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청년희망캠프도 갖는다.

한국불교는 조사선 전래 1200년을 맞았지만 정작 간화선 대중화가 요원한 실정이다. 코로나19로 각 가정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마음공부, 수행에 대한 요구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조계종 대표수행법인 간화선 대중화를 부르짖지만 정작 위빠사나를 비롯해 명상에도 밀리는 현실이다. 이번 간화선 대법회를 계기로 보다 많은 이들이 간화선에 대한 관심을 갖고, 봉암사 세계명상마을을 토대로 활발한 수행문화를 이끌길 기대한다. 선 수행의 대중화의 원년으로 2022년이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첫 종단본 '불교개론' 환영한다

조계종 교육원이 첫 종단본 〈불교개론〉을 출간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교육원은 새로 편찬된 〈불교개론〉을 올해 1학기부터 학인 스님들의 교재로 활용한다. 향후 교육원은 대승불교 전반을 다루는 〈대승불교 개론〉, 계율 개론서인 〈계율과 사회윤리〉 등도 발간할 계획이라고 한다.

사실 시중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불교 개론서는 많이 있다. 하지만 교학 중심으로 어렵거나 단편적인 지식만을 습득하도록 했다. 그러다보니 불교 초심자에게는 개론서가 더 어려운 경우도 왕왕 있어왔다.

이런 지적은 교육 일선 현장에서도 있었다. 제8대 교육원은 승가교육 발전 방안을 위한 교육교역자 스님 간담회를 2년여 간 진행했고, 이 자리에서 교역자 스님들은 새로운 〈불교개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한다.

이번에 새로 발간된 종단본 〈불교개론〉은 종교에 대한 기본적 이해로 시작해 불교 사상·역사 전반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그 수준은 중학교 졸업자도 읽을 수 있도록 쉽게 썼다. 또한 한글세대를 위해 어려운 용어를 최대한 한글로 풀어 쓴 것도 눈길을 끈다. 승가공동체와 계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래 승가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지를 한 챕터에 걸쳐 기술한 것도 이번 개론서의 특징이다.

세상은 변화하고 있고, 시대의 눈높이에 맞는 불교 교육은 필요하다. 새로운 종단본 〈불교개론〉이 던지는 화두는 바로 '눈높이 교육'이다. 일방통행식 교육은 효과도 떨어지고 깊이가 없기 마련이다. 조계종 교육원이 보이는 쌍방향 교육 행보가 시대에 맞는 불교교육의 지남(指南)이 되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14, 8216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10-5640-8883 경남지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구지사 : 010-2813-8008 영주지국 : 010-9373-3778 전북지사 : 010-8642-7733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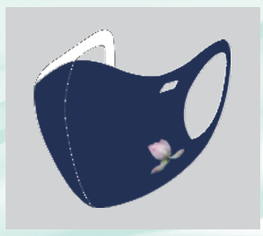
또 다시 닥친 코로나의 위기와 공포!!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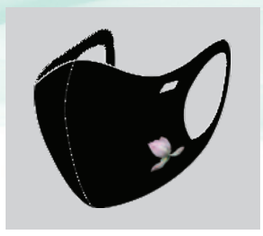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구리마스크

FDA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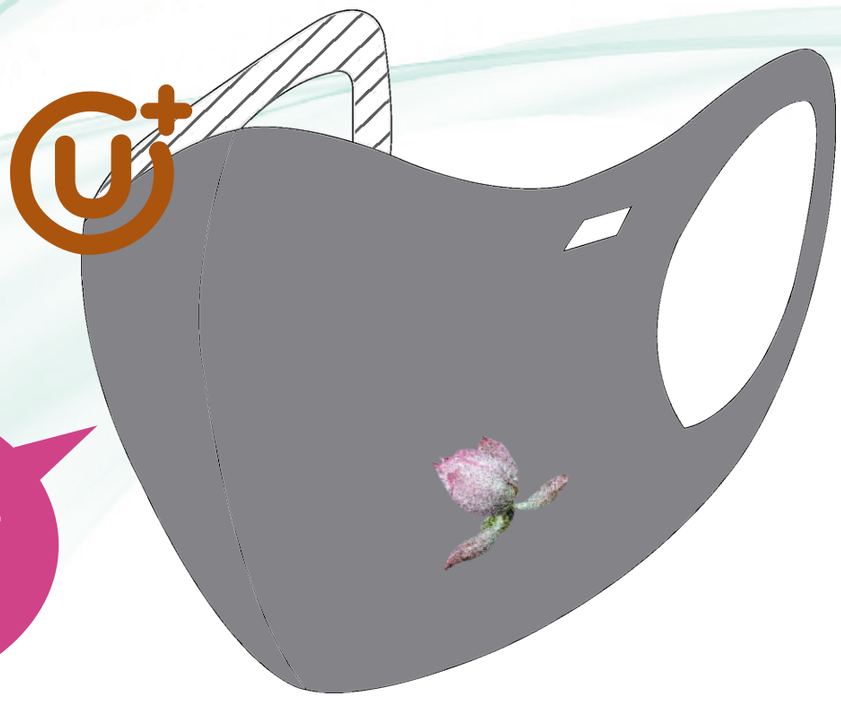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마스크 (연꽃문양/4색)

- **재　질** : 폴리에스테르 92%, 스판 8%
- **색　상** : 연회색, 백색, 청색, 검정색
- **판매가** : 4개 1셋트 15,000원 (개당 3,75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2,500원	(개당) 2,400원	(개당) 2,300원	(개당) 2,200원	(개당) 2,000원



구리마스크는 일반마스크보다 항균력이 탁월합니다.

기능성 비말차단 구리마스크 (연꽃문양/진회색)

- **재　질** : 폴리에스테르 81%, 구리 7%, 스판 12%
- **색　상** : 진회색 (그외 색상 주문 가능)
- **판매가** : 4개 1셋트 22,000원(개당 5,50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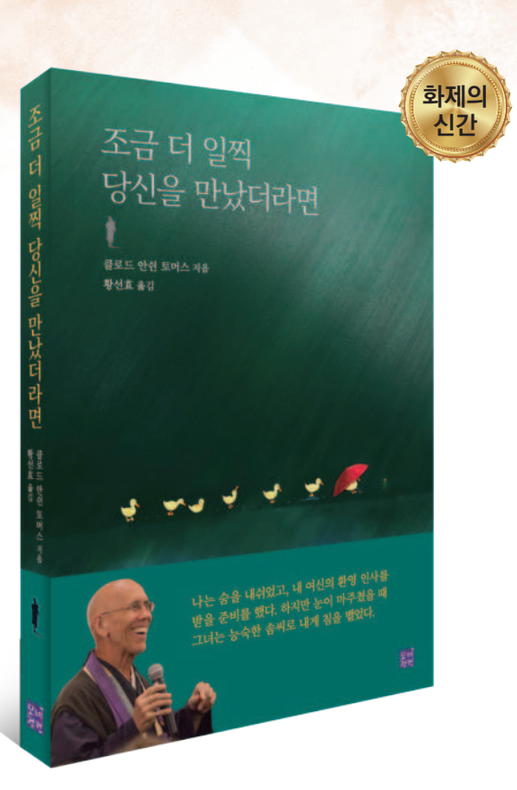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3,500원	(개당) 3,400원	(개당) 3,300원	(개당) 3,200원	(개당) 3,000원

Deodorization 소취 / Antibacterial 항균 / Anti-Splash 비말차단 / UV Protection UV차단 / Fast Drying 빠른건조 / Reusable 재사용가능

※ 여름용 쿨 마스크는 주문제작상품으로 제작기간은 5~7일 소요
※ 색상 및 디자인 변경가능하오며, 로고 및 사찰명 인쇄시 장당 300원 별도 추가됩니다.
※ 대량주문 및 전체디자인 변경 등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문의 : 02)732-1520 www.mahamall.co.kr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의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